

보도기사자료집
NIPA PRESS KIT





CONTENTS

2019 — 2020 — 2021

○	PART 01 · 인공지능을 통한 전산업 지능화 선도	006
○	PART 02 · SW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043
○	PART 03 · VR·AR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실현	090
○	PART 04 · 글로벌 진출 ICT·SW 생태계 구축	124
○	PART 05 · 신뢰받는 ICT 전문기관 실현	152
○	PART 06 · 기고	184
○	PART 07 · 기획기사	201
○	PART 08 · 인터뷰	249
○	PART 09 · 방송	278

PART 01.

인공지능을 통한
전산업 지능화 선도





NIPA·데이터 산업진흥원, AI 경제 활성화 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 AI경제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최신 알고리즘을 포함한 AI 인프라 데이터를 확보·지원해 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데이터·AI 기반 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 △원활한 데이터 유통기반과 AI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한다. 김창용 NIPA 원장(왼쪽)과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GSIP 지원부문별 과제내용 및 지원규모 >

부문	특성	규모
산업혁신형	IoT·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해 제조·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4억원 (3.4억원x10개)
선도적용형	교육·의료·금융·공공 분야에 클라우드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7억원 (3.4억원x5개)
고도화	GSIP로 기개발한 SaaS 고도화(추가개발 및 사업화) 지원 (2016~2018년 GSIP지원과제 대상이며, 고도화로 지원받은 과제 제외)	7억원 (1.4억원x5개)

2019 글로벌 SaaS 육성프로젝트(GSIP) 수행 기업 공모 스타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9년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 프로젝트(GSIP·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를 수행할 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GSIP는 아마존웹서비스(AWS), KT 등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중소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NIPA는 올해 전년 대비 80% 증액된 58억 원을 투입해 사업화와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3개 부문, 20개 과제를 지원한다.

NIPA는 이전 GSIP 수행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과제당 2억 8,000만 원 내외였던 산업혁신형과 선도적용형 부문 지원액을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했다. 고도화 부문 지원액도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번 수행기업 선정에서는 신남방 시장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배점을 높여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GSIP 개발과제는 모두 사업화에 성공했다. 국외 매출 8억 1,700만 원(미국·중국·일본·베트남 등)을 포함해 총 21억 4,600만 원 매출을 기록했다.

NIPA는 3월 13일까지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서 지원과제를 공모한다. 중소 SW·ICT 기업들에게 SaaS 개발과 국내외 사업회 등을 지원할 클라우드 선도기업을 오는 25일 까지 모집한다. 사업설명회는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SW 개발·배포방식과 고객 SW 사용패턴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넘어 가면서 국내 SW·ICT 기업들은 한시라도 빨리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GSIP 수행 기업이 빠르게 글로벌 진출로 성장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IPA, 19년 1차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지원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25일부터 「19년 1차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클라우드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서비스 품질·성능 측정 등을 통해 이용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NIPA는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품질·성능 기준에 따라 관리체계 점검 및 품질·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기준은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등 총 7개다.

NIPA는 품질·성능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에 한해 ‘품질·성능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와탭랩스, 에이에스디코리아, 두드림시스템 등 7개 기업, 2018년에는 영림원 소프트랩, 이노그리드, 메가존 등 15개 기업의 서비스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올해부터는 확인서를 ‘클라우드 품질·성능 검증지원 포털’에 공개해 서비스 이용자들도 품질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30개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집공고는 분기당 1회씩 총 4회를 진행한다.

1차 모집공고는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3월 26일(화)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개최된다.

NIPA AI 융합산업본부 김득중 본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시장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품질·성능 검증 지원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NIPA-TTA,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컨설팅 대상기업 모집

종속성 해소 솔루션, 상호운용성 검증 테스트 서비스 등 제공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는 다음 달 24일까지 ‘2019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ID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전체 응답의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W기업들은 특정 클라우드 인프라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 인프라 이용료 상승, 해외 진출 시 각국의 정책 차이 등에 인해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로 서비스를 이전할 때 상당한 재개발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 표준을 준수하거나 오픈소스를 도입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NIPA, TTA는 지난 2016년부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에 적합한 국제 표준 및 오픈소스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컨설팅 ▲클라우드 환경 상호운용성 여부 시험·검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상호운용성 컨설팅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김광일 빅데이터센터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클라우드 기반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 설계의 개념검증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상호운용성 컨설팅에 힘입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며, “플랫폼 개발 완료 시 다수의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클라우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달 16일에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시험 및 컨설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도 최근 각광받는 컨테이너 관리 표준 및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플랫폼 등으로 확대됐다.

김득중 NIPA AI융합산업본부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한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표준 및 기술 기반의 생태계 조성 과 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IPA-NIA 공공·산업의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확산 MOU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과 산업 분야의 데이터, 클라우드,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NIA와 NIPA는 8일 이 같은 ‘공공·산업 ICT 융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ICT 융합의 공공부문과 산업진흥을 총괄하는 NIA와 NIPA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ICT 융합 분야의 정책지원과 사업, 제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공유 및 공동 활용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한 협력 △ICT 융합 규제 발굴 및 개선 △해외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전문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NIA는 데이터사업 신규 과제 기획 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해 NIPA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NIPA의 AI 분야 산업 육성에 활용한다.

NIPA는 NIA가 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각종 기업지원 사업 기획에 활용하고, 기업에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NIA가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 AI 개발 경진대회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기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분야에선 NIPA의 ‘클라우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를 NIPA의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에 등록하도록 권장해 공공·민간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ICT 신기술·서비스 사업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혁에 협력키로 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앞으로 ICT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앞당기고 ICT 융합 산업 발전과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활성화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활성화 포럼’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클라우드 관련 정책·사업, 국내외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및 개발·시험 사례 소개 등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양한 산학연 클라우드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TTA가 운영 중인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 신임 의장인 김양우 동국대 교수의 ‘상호운용성 협의체 소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레드햇과 아콘소프트,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기술 및 사례가 공유된다.

이밖에 NIPA는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KDATA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을 소개한다. TTA는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NIPA 김득중 AI 융합산업본부장은 “클라우드는 전기·수도와 같은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포럼으로 클라우드 기업과 이용자가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클라우드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회 AI@Cloud 데모데이 출품작 공모

오는 12일까지 '제1회 올앳클라우드 데모 데이' 출품작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는 오는 12일까지 '제1회 올앳클라우드 데모 데이(ALL@CLOUD DEMO DAY)'의 출품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개발자 등이 참여 가능한 일반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1인 혹은 최대 5인 까지 팀원을 구성할 수 있다. 학계·후원사·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상용화 가능성, 아이디어 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아이디어 데모 제출 및 UCC 제작 등을 가점 사항으로 반영한다.

이번 달 말 1차 예선을 진행하고, 1차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및 데모 구현을 지원한다. 9월 초에 진행될 2차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는 9월 18일 조선포털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개인 및 기업 부문 각각 최종 수상작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 ▲NIPA 원장상 4점 ▲후원기업상 1점 내외 등을 선정한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일반부문은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1,000만 원 ▲기업 부문은 클라우드 개발지원 사업 지원 시 평가 가점 및 VC 투자 기회 등을 받게 된다. 또한 후원기업상에 선정된 수상작은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현물 및 현금, 총 1억 원 상당의 펀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올앳클라우드 데모 데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로 탄생하고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IPA, 제1회 인공지능 개방형 경진대회 개최

20개 팀에 총 32억 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오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제1회 인공지능(AI) 개방형 경진대회(AI STARTON 2019)'를 온라인상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첫 온라인 AI 경진대회는 민간의 창의적 알고리즘 개발과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자리다.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대기 문제, 이미지 분석 등 20개 과제를 주고 이를 가장 잘 해결한 팀의 AI 알고리즘 20곳을 뽑아 각 1억6000만 원, 총 3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과제는 한·영 번역 말뭉치, 사물 이미지, 글자체 이미지, 인도 보행 영상, 감성인지 동영상, 사람 동작 영상, 안면 이미지, 위험물 엑스레이 이미지, 질병 진단 이미지, 이상 행동 영상이다. 8월 말 우수 팀들을 선정해 연말까지 제품을 사업화하는 일정으로 진행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기간 답러닝에 효과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컴퓨팅 파워는 물론, 학습용 데이터와 알고리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차세대 AI 기술의 발굴을 위해 대형 도전과제를 푸는 'AI 그랜드 챌린지' 행사도 개최했다. 총 4년 동안 4단계로 'AI와 로봇(드론)기술을 활용해 복합 재난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최종 1개 우승팀을 가리는 시합이다. 1, 2, 3등 팀에는 각 6억, 5억, 4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김창용 NIPA 원장 시로 전산업 지능화 선도

“인공지능(AI)을 통한 전(全)산업 지능화를 선도하고 SW 융합으로 신(新)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면서 여느 때보다 신성장동력 육성이 절실하다면서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인공지능, 5G, VR 및 AR 등 ICT와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DMC연구소장(부사장)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NIPA 원장에 부임했다. NIPA가 4대 목표로 ▲인공지능을 통한 전산업 지능화 ▲SW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VR 및 AR으로 스마트한 국민 생활 실현 ▲글로벌 진출과 ICT 및 SW 생태계 조성 등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통한 전산업 지능화와 관련, 김 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지원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가속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속도감 있게 융합하기 위해 의료, 제조 등 전 산업의 지능화를 위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 인공지능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과 정밀 의료 서비스(닥터앤서),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김 원장은 “조선, 해양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농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과 SW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지역산업 혁신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VR 및 AR로 스마트한 국민 생활 실현과 관련해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하고 5G 킬러콘텐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출과 ICT 및 SW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해외 IT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현지 파트너 발굴과 시장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 지역에 SW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ICT와 SW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8월 설립됐다. 조직은 1실 5본부 1부설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직원은 467명(정규 242명, 계약 225명)이다. 올해 예산은 3,874억 원이다.



NIPA, 국내 유망 IoT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김창용)이 국내 유망 사물인터넷(IoT)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IoT 해외로드쇼’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했다.

‘IoT 테크 엑스포 2019’에서 이틀간 한국 IoT 하이라이트를 주제로 한국 공동 전시관을 열었다.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IoT 기술 수요자에 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IoT 기술을 알렸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제품 발표회와 현지 바이어, 유통 제조 파트너사 발굴을 위한 전시회를 열었다. 공식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해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류 시간을 가졌다.

참가 기업 구루아이오티, 드림가이드컴퍼니, 디씨알, 리니어볼, 스케치온, 열사람, 오토오, 인포웍스, 제이투씨, 플렉시티 등 10곳이다. 글로벌 기업 IDT, 비자, 오라클 등 바이어와 268건 상담에 걸쳐 약 1,20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홍채 인식 솔루션을 선보인 제이투씨는 세계 센서와 칩을 개발하는 미국 IDT와 수출 상담에서 2,000달러 상당 IR-LED 모듈 샘플을 주문받고 NDA 체결을 추진한다. 플렉시티는 인천공항 통합모니터링 기술로 캐나다 토론토 공항 관계자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학생 안전관리시스템을 선보인 드림가이드컴퍼니는 미국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 ASA와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모빌리티센서 전문업체 인포웍스 관계자는 “행사에 참가해 닛산, 히타치, 미쓰비시 등 우수 자동차, 전장업체와 기술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과 협력,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득중 NIPA AI 융합산업부장은 “국내 IoT 유망기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현지에서 최적의 파트너와 연계하도록 해외 로드쇼 등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PA, 2019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공공, 민간 및 지자체 클라우드 활용 혁신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Grand Cloud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컨퍼런스로 금년에는 공공, 민간부분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클라우드 적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씨.-씨. 제이 쿠오(C.-C. Jay KUO)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의 '공공 및 민간에서의 AI·클라우드 전략'과 박기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CTO의 'AI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민간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KT의 금융 및 5G 에지 클라우드, SAP의 AI 서비스, 클로버과 버추얼월드에서는 각각 로봇과 음악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은평구청의 AI 의료영상 분석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공공 협업 혁신 우수기관 사례 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멀티클라우드 구축 전략 및 인프라닉스의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각각 영유아 교육 및 의료·금융 융합 서비스 등 광역지자체의 클라우드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김득중 NIPA AI 융합산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금융, 의료, 로봇,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해 동안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게 수여 하는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과 우수 클라우드 공급 및 도입 기업에게 수여 하는 'K-ICT 클라우드 산업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NIPA, 2019년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개최

올해 국내 20개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글로벌 사업화 등에 성공해 32억 1,000만 원 매출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김창용)은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19년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19년 GSIP 수행기업, 클라우드 기업, 멘토들 70여 명이 참석했다.

NIPA 2019 GSIP 지원사업에 참여한 20개 기업은 모두 SaaS 사업화에 성공, 수출액 8억 1,600만 원을 포함해 매출 32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개발자, 마케터 등 분야에서 약 170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포티투마루는 우수과제 수행기업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다. 기계독해(MRC) 기반 질의응답(QA) 시스템을 SaaS로 전환해 독일 벤처기업에 채팅봇을 수출하고 국내 대기업에도 공급했다. 에스프레소북은 개인 사진과 글을 손쉽게 편집하고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데스크톱 퍼블리싱을 SaaS화해 약 1만 5000명 신규고객을 확보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세계 수준 MRC 원천기술을 확보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SaaS화가 필수"라며 정부 도움으로 SaaS 사업화를 완료해 기반을 다진 만큼 내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득중 NIPA AI 융합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망설여선 안 된다."며 SaaS 분야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만큼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기업이 SaaS로 전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SIP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중소 SW·ICT 기업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NIPA, 20년 1차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검증 지원 30개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년 1차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이하 품질·성능 검증)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클라우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를 받아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총괄은 NIPA가 담당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등 7개 품질·성능 기준에 따라 관리체계 점검 및 품질·성능 시험을 실시해 이를 충족한 서비스에 한해 품질·성능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올해 품질·성능 검증 지원 사업은 30개 이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총 4회 진행하며 3월10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김득중 NIPA 인공지능융합산업본부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들을 융합하는 연결고리”라며 “국제표준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을 통해 기업의 품질 역량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품질·성능 검증을 지원받은 24개 서비스가 확인서를 받았다. 플레이오토는 1년 만에 170여 개 민간 온라인 판매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에프원시큐리티와 버추얼랩은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NIPA, 20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대상기업들을 모집한다.

국내 클라우드 동급기업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할 때 서비스 재개발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소프트웨어(SW)나 서비스와 호환이 쉬워 해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된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에 적합한 국제 표준 오픈소스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컨설팅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여부 시험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서비스형 플랫폼(PaaS)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TTA 베리파이드 인증 시험을 수행하고 통과 시 인증서를 부여해 시험 결과물 고객 신뢰도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지원 범위도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기업은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도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도록 지원받는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컨설팅 서비스 지원 사업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득중 NIPA AI 융합산업본부장은 “지난해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아콘소프트는 싱가포르 캄브리아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 투자유치를 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IPA, ICT기업에 코로나19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전담팀서 범부처 지원 내용 상시 업데이트... 해외 수요처 자료 제공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중소기업 돕기에 나섰다.

17일 NIPA는 ICT기업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어디서나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NIPA는 지난 3일 ‘코로나19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CT 분야 26개 협단체를 통해 피해기업 현황을 파악해왔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과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기업 간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TF는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NIPA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범부처 지원내용’을 상시 업데이트, 제공한다.

또 NIPA 시설 및 해외 거점을 활용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우선, 해외 거래처와의 대면 미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NIPA 원내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국내 ICT 기업에 무료로 개방, 현지 수요처 및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돕는다.

또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 수요처 및 파트너의 기술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기업별 매칭 서비스도 강화한다. NIPA 해외사무소는 미국(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하노이 및 호치민) 등 5곳에 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ICT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하겠다”면서 “국내 ICT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글로벌 진출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NIPA 영상상회의 시스템 이용 및 해외거점 활용 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NIPA 홈페이지 및 글로벌 ICT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인프라 분야 민간 아이디어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경제구조 고도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과제로 밝힌 바 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체 발굴과제 외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nipa.kr>)에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newdeal@nipa.kr)로 접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Rnet2020 컨퍼런스 2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등 9개의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인터넷 컨퍼런스 2020(KRnet Conference 2020)’가 22일~23일 양일간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린다.

국내·외 인터넷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KRnet 컨퍼런스는 1993년 7월 제1회 한국 학술전산망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28회째인 KRnet 컨퍼런스는 코비드 19영향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컨퍼런스(웹비나)로 개최한다.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를 주제로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90여 개의 기술 세션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ICT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4명의 기조연설자들이 AI 시대를 맞이해 위기와 기회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실장은 “비록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ICT 기술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방향과 세부기술에 대한 활발한 정보공유와 온라인소통의 장으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IPA,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언택트 도전에 힘 실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언택트(비대면)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인프라 지원에 나섰다.

NIPA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885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상 지원했다.

NIP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한 기업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지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업무 환경 구축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해 사업 운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여행·이벤트 관련 중소기업 씨앤티어(대표 박상용)는 리모트워크 서비스 ‘티그리스’를 지원받아 전임직원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시행했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생산성이 83% 향상됐다.

초등 유아 대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지에듀팜(대표 백영미)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방문 교육 방식을 바꿨다. 교사와 학생에게 학습 도구 사용설명서와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직원 고용유지와 신규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했다.

nipa-통신3사, 5G, IoT 분야 대중소 상생기술 지원 나선다

NIPA, 통신 3사와 중기 5G IoT 제품 테스트 돕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5G 기반 IoT 제품·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 3사와 ‘5G IoT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지원’ 협력 MOU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5G 상용화로 IoT 시설장비와 이용환경이 달라졌지만 IoT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테스트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사별로 제품검증을 통과하려면 최소 2~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에 NIPA는 통신 3사와 협력, IoT 기술지원센터에 5G 기반 IoT 기술개발·테스트 인프라를 확충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 공유 △각사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5G IoT 제품 상용화를 위한 통신사 사전 테스트를 NIPA 테스트로 대체 △5G IoT 관련 중소기업 기술 자문·컨설팅 제공 등에 협력한다.

중소기업은 통신사의 별도 시험인증 없이 NIPA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한 달반 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제품 애로해소 및 사전테스트 기술지원으로 기업당 개발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김창용 NIPA 원장은 “5G 기반의 IoT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5G 기반 IoT 신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IPA, 2020 인공지능 문제 해결 경진대회 시동

NIPA “AI로 현장문제 해결 도전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0년 인공지능 문제해결 경진대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는 우주전파센터, 서초구청, 한국임업진흥원, 피디젠 등 18개 기관이 직면한 20개의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실력을 겨룬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400개 팀을 접수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기간 답러닝에 효과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컴퓨팅파워, 학습용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환경이 제공된다.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등 다양한 오픈소스 툴도 제공한다. 대회 종료 후 문제별 우수 알고리즘 수상자에게는 문제를 제출한 기관에서 상금, 채용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NIPA 홈페이지나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회는 11월 중 진행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경진대회가 우수한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IPA, 2020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클라우드로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이 1일 '2020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Grand Cloud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클라우드로 열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 K-ICT 클라우드 산업대상 시상식과 기조연설을 비롯해 총 4개 트랙으로 나누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전망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은 수상자에 대한 공적 발표로 대체했다.

1부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술개발·산업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하는 포상으로 산업·공공의 단체·개인에게 총 7점(산업 3점, 공공 4점)의 과기정통부 표창을 수여 했다.

수상자는 엔에이치앤(주) (산업-단체 부문), 경상남도청(공공-단체 부문), 이현욱 티맥스 소프트 전무, 김주성 (주)케이티 상무(산업-개인 부문), 인민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현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이철우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공공-개인 부문)이다.

'K-ICT 클라우드 산업 대상' 시상식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활용한 우수 기업에 상장을 수여 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 클라우드 기업은 네이버 클라우드, 아토리서치(주), 메가존 클라우드, 타이거컴퍼니다.

공적발표에 이어 KT 김종 상무와 네이버 클라우드 박기는 CTO가 '5G·Cloud와 함께 하는 DX 가속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OTT, 유통, 디지털 워크, 헬스케어 분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별 클라우드 적용사례와 전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소개, 공공 클라우드 도입사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IPA, 2020 글로벌 SaaS 육성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NIPA, 2020 글로벌 SaaS육성 프로젝트(GSIP) 성과공유회 개최...
11개 과제 사업 화율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2020년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 프로젝트(GSIP)' 성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GSIP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KT 등 글로벌·국내 클라우드 선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기업 SaaS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기업은 중소기업에 SaaS 개발·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인프라·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NIPA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 전문가 멘토링, 예산 등을 지원한다.

성과공유회는 사업성과 발표, 우수 과제·선도기업·멘토 포상, 우수 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GSIP는 제조·교육 등 다양한 분야 11개 과제를 지원했다. 과제 모두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완료했다. 미국·중국·호주 등 해외 매출 8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24억 1,000만 원의 매출 발생을 비롯해 개발자, 마케터 등 신규채용 114명을 포함 총 363명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원투스엠(대표 한정윤)은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발급한 바우처·티켓·쿠폰을 하나 시스템으로 통합해 유통·관리하도록 'V-Maker'를 개발했다. 다만, 국내 지자체 등을 통해 8억 원 매출을 거뒀다. 유엔세계식량 계획(UN WFP)에 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GSIP를 통해 개발·사업화에 성공한 알서포트(대표 서형수)의 '리포트 세미나'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드는 디지털 전환 핵심 수단"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이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분석·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고성능컴퓨팅 지원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의 원천인 컴퓨팅 자원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올해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AI가 범용기술(GPT)*로 급부상함에 따라 3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13조 달러를 기여해 글로벌 GDP는 연평균 1.2%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개발은 데이터 획득과 가공을 거쳐, 다량의 반복 학습을 통한 AI 모델(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서비스로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연산 과정이 필요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산 자원 확보가 AI 개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고성능 컴퓨팅 구축은 비용이 고가여서 대학·스타트업·연구소 등에서의 연산자원 활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원 첫해였던 '19년 대비 약 6배 이상 지원용량을 확대해 2020년도 인공지능 분석 및 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1회 선정 지원방식에서 연중 상시 지원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용량도 전년 대비 약 6배 이상 확대된 240PF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산용량은 단일 용량지원 방식에서 필요한 용량만큼만 신청하고,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점검하여 이용률에 따라 사용 연산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연중 상시 지원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공급업체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NAVER Business Platform, NBP)이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고성능컴퓨팅 자원과 개발환경, 백업 서비스, 보안관제 등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며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70개 중소·벤처기업, 연구소(원), 공공기관, 대학교(원) 등에서 고성능 컴퓨팅 지원 신청이 접수(19.11월~20.02월)되었으며, 3월 9일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오는 4월 10일부터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포털(aihub.or.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내 AI 기술력 제고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I. AI 온라인 경진대회 추진절차

문제발굴	참가자 접수	문제 공개 및 경진대회 운영	사업화계획 접수
경진대회 문제 발굴	→ 대회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우선 대상자 선발(60팀) (고득점자(팀) 우선 선발)	→ 상위 60개 기업 대상 사업화 계획 접수

문제 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 (AI 경진대회)

다음 달 17일 대회... 총 30개 팀 48억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는 ‘2020 인공지능(AI)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우수한 기업, 대학, 개인 등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회다.

기존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하여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수 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도전·경쟁형 방식의 지원 방법이다.

첫 대회였던 작년에는 206개 팀이 참여하여 1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선정된 20개 팀에게 3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30개 기업에 총 48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중 사업화 가능성과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언어·수치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20개의 문제를 온라인에 제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설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지원한다.

‘2020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대회기간 동안 딥러닝(Deep Learning)에 효과적인 GPU기반 컴퓨팅 자원, 학습용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6월 1일부터 2주간 ‘인공지능 허브(aihub.or.kr)’를 통해 진행되며, 대회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7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화 지원이 시작된다. 대회 종료 후, 사업화 지원 대상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알고리즘과 경진대회 문제는 ‘인공지능 허브(aihub.or.kr)’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기업 및 전문연구자는 물론 어느 누구라도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0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 개인은 ‘인공지능 허브(www.AIHub.or.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대회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부터 패션까지, 전 산업분야 인공지능 확산 시동!

첫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15개 기업 최종 선정

정부가 반도체부터 패션까지, 전 산업 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 하는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3차 추경을 통해 560억 원 규모(추경 정부안 기준)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의료, 제조, 교육, 금융은 물론 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신청해 반도체 결함 자동 검사, 패션 가상 피팅, 하수관로 진단, 차량 외관 관리 등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15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총 335개 기업이 신청해 2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수요기업’) 간 매칭을 통해 지원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폭발적인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56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확정 후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공급기업 추가 모집을 이달 22일부터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국가 전략’ 발표 이후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은 각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온라인면접·감염병 대응 로봇 등 비대면 분야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본격화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응하고자 ‘생활 밀착 분야 비대면 선도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비대면 선도 서비스 도입 전문기업을 육성 하는 게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평가, 감염병 대응 안심터치, 스마트 멘탈케어, 감염병 대응로봇, 생활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여가·홈트레이닝 플랫폼, 로봇 배송 등 지정과제 7개와 자유 과제 1개의 기획안을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정과제 수행 기업은 과제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자유과제 수행 기업은 과제당 최대 5억 원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28일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ist.go.kr)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PA,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컨설팅 지원 기업 모집

IaaS·PaaS에서 SaaS 분야로 시험인증 범위 확대
심화 컨설팅 도입하고 클라우드 적격평가 시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21년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대상기업·기관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된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에 적합한 국제표준 및 오픈소스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컨설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시험(TTA Verified 인증) 등을 지원하며,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작년까지 IaaS(인프라 서비스) 및 PaaS(플랫폼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했던 ‘TTA 베리파이드’(TTA 자체 시험인증) 시험인증 대상 범위를 올해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TTA 인증시험 통과 시 인증서를 부여한다. 컨설팅 지원 범위도 최근 패러다임에 맞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운영으로 확대한다.

심화 컨설팅도 새로 도입된다.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시험을 통한 검증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적격평가 시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호운용성 컨설팅을 받은 18개 기업은 매출 증대 및 해외 진출 등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앤이교육은 중국 현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중국 광서사범대학에 온라인 수학교육 및 교육 연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을 통해 향후 5년간 4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미국 및 베트남 진출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비젠토로는 TTA 컨설팅을 통해 자사의 ‘UNIERP’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해 ERP(전사적자원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클라우드 신규 고객과 전환 고객을 30% 이상 발굴해 작년보다 매출이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득중 NIPA 시산업본부장은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과 이식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표준 및 기술의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해 보다 다양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IPA, 2021년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 신규 과제 공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이 ‘2021년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한다.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은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 교통, 안전,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과제 6개를 모집하며 중소·중견 ICT 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2년간 총예산 120억 원을 지원한다. 과제당 20억 원 규모다.

모집 분야는 전략 트랙의 △영상인식을 위한 인공지능경망 서비스 분야 △국산 AI 반도체 활용 서비스 분야 등 4개 과제와 지역 트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2개 과제다.

과제당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2차년도에 1차년도 지원금의 50%만 지급됐다. 올해 지원금은 1차년도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에도 1차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은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외 수상, 특허·인증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뷰노는 치매, 안과 질환 등의 의료 판단을 보조하는 AI 솔루션 ‘지능형 의료영상 판독 보조 서비스’를 개발해 세계 녹내장 탐지 인공지능 대회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

공감랩은 AI 분석 엔진을 통해 임대차 계약 안전진단과 금융심사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주택 임대차 금융심사 시스템’을 개발해 웰컴파이낸스캄보디아(WFC)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2021년도 과기정통부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날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득중 NIPA 시산업본부장은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을 통해 산업혁신뿐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기정통부, 560억 원 규모 AI 바우처 지원 사업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이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2021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AI 바우처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AI 기술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이 고가의 AI 기술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는 200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560억 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첫 사업임에도 1,972명의 신규 채용 효과 391억 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하는 한편 AI 활용을 통한 수요기업의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현장 혁신 성공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AI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 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위해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급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AI 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하기 위해 공급기업 풀 내에서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활용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신 부가가치 창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라며 “AI 바우처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적의 기술을 공급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약 800억 원을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지원한다. 공공이 마이크로 서비스아키텍처(MSA) 등 최신 기술을 도입 하도록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바우처 지원 사업,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 사업 등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협력해 핵심 산업별 혁신적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억 원을 투입해 금융, 에너지, 제조(전자), 물류(항만), 교육(스마트 스쿨)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 서비스를 선정·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제조(기계), 물류(육상),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창출과 확산이 기대된다.

< 2021년 주요 클라우드 사업 지원내용 >			
사업명	예산 규모	지원 규모	지원 내용
클라우드 플래그십	250억 원	55개 기업 (컨소시엄)	국내 핵심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업 서비스 개발 지원
클라우드 바우처	92.5억 원	500개 기업이상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국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109.5억 원	컨설팅 30개 기관 선도 3개 기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인식개선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과제 발굴·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 부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9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500개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646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기술, 제도, 비용 등)을 제공한다. 올해 30개 기관을 선정해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MSA 등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설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심층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MSA는 큰 애플리케이션(앱)을 여러 개 작은 앱 단위로 쪼개 손쉽게 변경·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공공부문에 MSA 도입을 지원하면서 최신 클라우드 기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과(신규과제 6개, 계속과제 17개, 총 206억 원) 국내 SaaS 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55억 원)’를 진행한다.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11억 원)’도 계획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오는 9일 ‘20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톡에 채널명 ‘2021 클라우드 통합 사업 설명회’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데이터·AI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누구나 인공지능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환경조성에 박차

AI 개발 기업·기관 1000곳에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HPC)’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선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최적의 모델(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자원 확보가 개발 경쟁력을 좌우한다. 하지만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 스타트업,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HPC 자원 30.6페타플롭스(PF)를 확보해 1,000개 이상 기업과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1PF는 부동소수점(컴퓨터의 실수 표기법) 연산을 1초에 1,000조 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HPC 지원사업 공급 업체로 선정해 연중 상시지원 체제로 추진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텐서플로 등 AI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레임워크, 보안관제 및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필요한 용량만큼 컴퓨팅 자원을 신청하고,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점검해 이용 실적에 따라 연산 용량을 조절한다.

지난해 HPC 지원사업은 883개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에 제공됐다. 사업에 참여한 곳의 AI 개발 기간은 이전보다 평균 4개월 줄어듦과 비용도 월평균 500만 원 감소했다. AI 에지 디바이스 개발 스타트업인 노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관련 신규 매출 4억3,000만 원을 올리고 두 건의 특허도 출원했다. 가축 행동 패턴 분석 솔루션 개발기업인 한국축산데이터도 투자유치 55억 원, 신규 매출 4억7,000만 원 및 특허 4건 출원 등의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IPA, 2021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지원 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2021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품질 성능을 측정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정책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총괄은 NIPA가 주관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등 7개 클라우드 품질·성능 기준에 따라 관리체계 점검과 품질·성능 시험을 시행한다. 이를 모두 충족한 서비스에 품질·성능 확인서를 발급한다.

올해 품질·성능 검증 사업은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30개 이상의 서비스에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 기업에서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클라우드 품질·성능 검증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편, NIPA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질·성능 검증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영림원 소프트랩, 버추얼랩, 이지서티 등 총 68개 기업의 73개 서비스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지난해 품질·성능 검증 지원을 받은 스파로우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스파로우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등 1년 만에 스파로우 클라우드의 국내외 사용자가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스에이테크, 인재아이엔씨, 에프원시큐리티 기업은 품질·성능 검증을 지원받아 고객들의 서비스 신뢰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 높아졌다.

김득중 NIPA AI 융합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품질·성능 인증을 받아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IPA, 글로벌SaaS 육성프로젝트 파트너십 데이 개최

클라우드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글로벌 SaaS(SW 서비스) 육성프로젝트(GSIP)’ 파트너십 데이를 1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KT·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 등 올해 선정된 GSIP 선도기업과 GSIP 지원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 간 매칭을 위해 열렸다. 참여 중소기업은 메디칼스탠다드·자이오넥스·젠틀에너지 등 11곳이다.

이날 행사는 선도기업별 지원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 기업 간 자유토론에 이어 매칭 선호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은 매칭된 선도기업의 인프라, 마케팅, 컨설팅 등을 활용해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수행하게 된다.

11개 중소기업은 기업 당 최대 4억7,300만 원과 글로벌 클라우드 전문 멘토단,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글로벌화 전략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GSIP는 국내 중소 ICT·SW 기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이 팀을 이뤄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제조·교육·의료·건설 등에 적용 가능한 120종의 SaaS가 개발돼 그중 99개가 사업화에 성공했다. 지원받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해외 매출 64억 원을 포함해 총 30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등 1,116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SaaS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우수기업 바이브 컴퍼니 현장 방문

바이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와 디지털 트윈 기술 선보여

바이브컴퍼니(대표 이재웅)는 지난 25일 바이브 본사 사옥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방문한 가운데 바이브의 대표 서비스인 썸트렌드(Sometrend)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NIPA가 인공지능(AI) 우수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NIPA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AI, ICT, SW 관련 국가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3만7천 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을 통한 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바이브는 NIPA 김창용 원장을 비롯, NIPA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26억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 시연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디지털 트윈’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바이브는 2018년 스마트시티 연구소를 세워 디지털 트윈 사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하공동구 디지털 트윈, 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등 국책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사업, LH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셜 분석 및 이를 통한 인사이트 발굴이 미래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모으며 AI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디지털 트윈 사업, 메타버스 사업, AI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바이브 이재웅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AI 분야 국가 R&D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NIPA로부터 현재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부 과제 참여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정부의 R&D 투자가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우리나라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NIPA,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本格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이하 바우처 사업)사업'을 진행한다.

바우처 사업은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및 이용료를 지원한다.

NIPA에 따르면 올해 총 2,524개 기업이 신청해 5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클라우드 전환·이용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는 △경영, △회계, △고객관리, △인적 관리, △특화 서비스 등 업무 솔루션 (230개사, 344개 서비스)으로 기업당 최대 1,55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김득중 NIPA AI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지능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ART 02.

SW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과기정통부-NIPA,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컨설팅 대상 공모

오는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52억 원이며,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PoC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며, 자유 공모로 총 10여 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4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성능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이며, 자유 공모 방식으로 총 10개 기업·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사업설명회를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NI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며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발굴·육성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IPA, 블록체인산업 이끌어갈 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동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 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활용 할만한 서비스를 발굴에 나선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 ‘오픈 블록체인 세미나,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참여한 KISA 민경식 블록 체인확산 센터장과 NIPA 방용주 블록체인 산업 팀장은 각각 내년 블록체인 관련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KISA “올해는 더 블록체인스러운 사업 찾을 것”

KISA는 지난해부터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에는 총 6개 사업이 진행 됐고, 올해는 공공 분야 시범사업 12개 과제와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3개 과제 까지 총 15개 과제가 예산 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올해 이 시범사업에 투입 된 예산만 117억 원에 달한다.

KISA,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100억 원 이상 집행 2년 연속 예산 지원하는 ‘다년도 과제’도 선정 NIPA, 전문기업 육성하는 기술검증 사업에 40억 원 인력양성 위한 무료 교육 과정도 지속 운영

올해도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공공 시범사업은 10개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고 민간주도 프로젝트도 3개 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범 사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다년도 지원과제’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1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투입된다.

민경식 센터장은 “내년 블록체인 사업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블록체인스러운 것’을 많이 발굴해보려고 한다”며 “문서 투명성, 정보 공유 등에만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블록체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 공공 수요 기관들과 지속 소통하며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ISA는 최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 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사업과 수요기관이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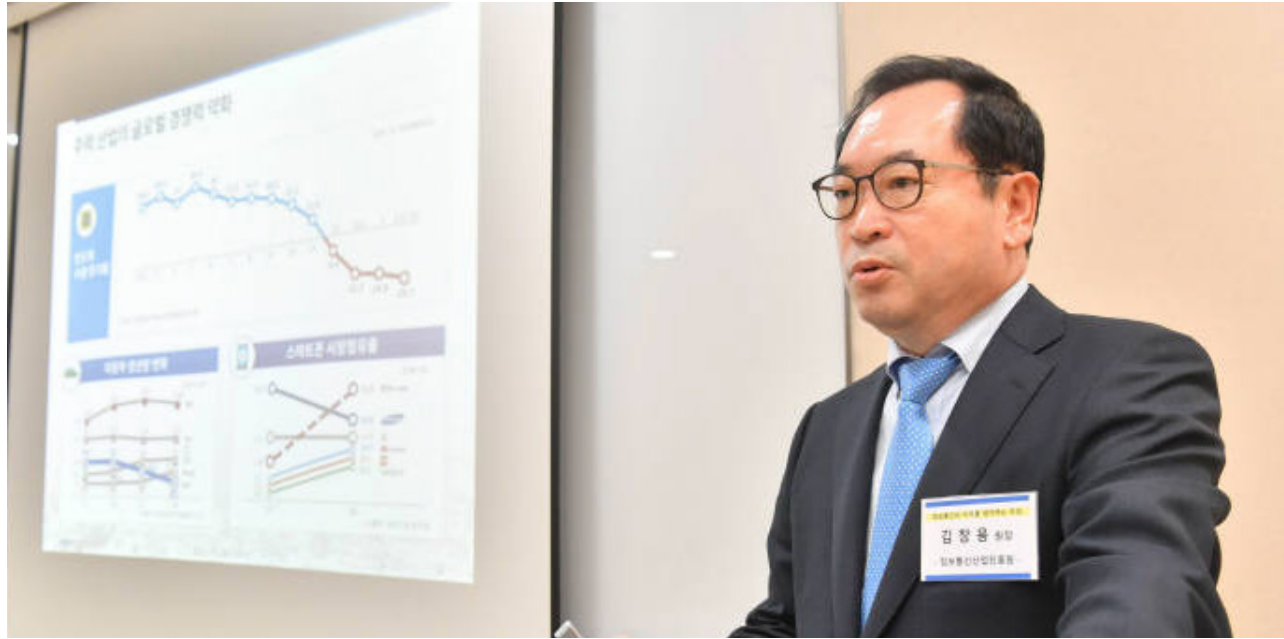
■NIPA “블록체인 전문기업 발굴 위해 기술 검증 지원”

NIPA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검증 사업과 컨설팅 지원 사업,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인력 양성 사업에 주력한다.

특히 과제당 4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 기술검증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 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서비스 가운데 기술검증이 필요할 경우 이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는 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 등에서 11개 과제에 약 43억 원을 지원했다.

방용주 팀장은 “올해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직접 발굴해서 지원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예산은 과제당 약 4억 원으로 약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 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컨설팅 기관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과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등의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 서울 마포 우체국에서 상시 진행되는 블록체인 무료 교육과정도 더 개선된다. ‘입문 과정’과 ‘개발 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뉘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는 전문 강사제도 도입 등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 미래 성장위해 新 SW산업 육성해야 할 때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기존 주력 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약화된다. 인공지능(AI), 5세대(G) 이동통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급성장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SW)와 연관된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신(新) SW 분야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고 공략할 때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미래 혁신성장 동력 新소프트웨어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1996년 발족한 정보통신 미래모임은 정보통신 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이다. 업계 이슈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거쳐 향후 방향성을 공유한다.

김 원장은 급성하는 新 SW 연관시장에 우리 경제 성장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는 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에 다양한 SW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기존 산업과 함께 성장 가능한 새로운 SW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VR·AR 기반 SW 新산업 창출 시대

김 원장은 기존 패키지 SW 외에 새로운 SW산업이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AI·블록체인·VR 등 新 SW가 등장한다. 新 SW는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AI가 대표적이다. 국가 경제와 생활 전반에 AI 적용이 확산된다. 김 원장은 AI 가속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NIPA는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체계와 AI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김 원장은 “AI 국내 주요 기업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 학습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습데이터를 취합,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하면 많은 기업이 빠르게 AI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산업과 AI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광주에 지역 기반 AI 집적 시범단지 조성을 준비한다. 최종 확정되면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등 광주 특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김 원장은 “광주 지역 산업과 연계해 AI 미래 신산업 육성을 준비한다”면서 “실제 추진되면 AI 관련 창업 기업(500개)과 일자리 창출(803명)이 동반돼 지역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VR·AR 실감형 콘텐츠 산업이 주목받는다. NIPA는 △5G 킬러 콘텐츠 상용화(디지털 동대문 VR몰, 5G 콘텐츠 제작 인프라 제공 등) △지역 거점 확대(10개)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등 타 산업 확산 사업 등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5G 시대 빠른 속도로 대용량·고화질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VR·AR 콘텐츠 몰입감이 높아진다”면서 “쇼핑, 화상회의, 여행, 디지털 트윈 장비 등 생활과 산업 곳곳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新 SW 육성, 규제개선·해외 진출 필수

새로운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이날 모임에서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원장 발표 후 주제 토론 시간에 채요근 IT서비스 산업협회 전무는 “최소한 미래 산업은 만들어놓는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분야”라면서 “법이 없는 분야라고 규제 먼저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산업 시행 후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규제를 만들어 개선하는 방향이 낫다”고 말했다.

NIPA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애로 상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사업을 한다. 김 원장은 “실증규제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 기술과 서비스 출시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ICT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SW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SW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해외 시장도 중요하다. NIPA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新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시장은 5,000만 규모이지만 신남방 지역은 19억4,000만 명 규모다.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ICT 특화 거점을 육성한다. ICT 중소 벤처 해외지사 역할을 담당한다.

김 원장은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NIPA가 현지 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협력 업체·수요 업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정부 해외 진출 지원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전현경 여성 IT 기업인협회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 올바른 정보를 취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면서 “NIPA나 정부가 해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좋은 파트너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면 해외 진출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NIPA는 AI, 블록체인 등 신 SW 분야 지원에 주력한다.

김 원장은 “SW가 이제 단순히 산업 중심 수준을 넘어 가장 핵심이 됐다”면서 “미래 시대 성장 동력을 새로운 SW산업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 군장병 공개 SW 역량강화 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군복무 중인 예비개발자 소프트웨어(SW) 역량 향상을 위한 군장병 대상 공개SW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장병 공개 SW 역량강화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공개 SW를 활용하는 핵심 SW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교육과 우수자 집체교육, 공개 SW 특강 등 오프라인 교육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참여율, SW 코딩테스트, 개발 계획서 등이 우수한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을 받은 성적우수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1점), 국방부 장관상(2점), NIPA원장상(3점), 육·해·공 참모총장상(6점) 총 12점의 상점이 주어진다. 희망하는 군장병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군장병 공개 SW 역량 강화 교육 사이트에서 7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NIPA, 공개 SW 창업지원센터 개소

20개 기업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청년 SW 인재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SW 창업지원 센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마련된 공개SW 창업지원 센터는 올해 20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공개SW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돕는다.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 △교육 및 컨설팅 △개발 검증 △상용화 △글로벌 진출 등 창업 컨설팅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지원은 예비 창업자에게 물리적 개발 공간 및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사설립과 비즈니스 및 사업화, 투자방안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1:1 기술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해 올 연말 열리는 SW주간 행사 때 쇼케이스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SW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우수 창업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개SW 현지화(Boot Camp)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공개SW 현지화 프로그램'에 선발된 5개 기업은 현지 멘토 및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한편 특정 국가에서 현지화 훈련도 받는다.

송주영 NIPA 소프트웨어산업본부장은 "유망한 창업기업 대다수가 초기 비용 절감과 신기술 도입, 결함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공개SW를 창업의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공개SW를 활용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IPA, 군장병 공개 SW 집체교육 실시

공개SW교육 우수자 172명 선발… 웹·앱·IoT 산출물 발굴 등 집체교육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함께 21일부터 5일간 ‘2019 군장병 공개SW 집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군장병 공개SW 집체교육’은 SW학습이 어려운 군장병을 대상으로 공개SW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교육을 수료한 인원 중 온라인과정 수료(60%), SW코딩테스트(20%), 개발계획서(20%)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자 172명을 선발한다.

이번 교육은 세미나, 개인별 개발 시간, 강의 및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웹 ▲앱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의 산출물을 발굴한다. 교육 수료 후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에게는 멘토링과 개발환경 지원 및 기업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련 교육 및 기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 후 선정된 우수 산출물에는 SW주간 내 ‘공개SW 데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1점), 국방부 장관상(2점), NIPA 원장상(3점), 육·해·공 참모총장상(6점) 총 12점의 상점과 총 9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송주영 NIPA SW산업본부장은 “군장병 공개SW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통해 군 장병들의 공개 SW 역량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군 장병의 공개SW 역량이 취업, 창업 등 직접적인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군장병 공개SW 온라인 수강은 지난 9월까지 44,25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개 추가된 온라인 과정 제공, 168% 증가된 인원이 집체교육에 선정됐다.

블록체인사업 공 들이는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50억 +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활용할만한 서비스를 발굴에 나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개최한 ‘오픈 블록체인 세미나,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참여한 KISA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센터장과 NIPA 방용주 블록체인산업팀장은 각각 내년 블록체인 관련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KISA “더 블록체인스러운 사업 찾기”

KISA는 지난해부터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에는 총 6개 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는 공공 분야 시범사업 12개 과제와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3개 과제까지 총 15개 과제가 예산 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올해 이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17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공공 시범사업은 10개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고 민간주도

KISA, 공공·민간 서비스 발굴
15개 시범사업에 117억 투입
NIPA, 전문기업·인력 양성 나서
11개 기술검증사업에 43억 지원

프로젝트도 3개 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범 사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다년도 지원과제’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1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투입된다.

민경식 센터장은 “내년 블록체인 사업의 특징이라면 ‘블록체인스러운 것’을 많이 발굴하려 한다”며 “문서 투명성, 정보 공유 등에만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블록체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 공공 수요기관들과 지속 소통하며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ISA는 최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 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사업과 수요기관이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IPA “블록체인 전문기업 발굴”

NIPA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검증 사업과 컨설팅 지원 사업,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인력 양성 사업에 주력한다.

특히 과제당 4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 기술검증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서비스 가운데 기술검증이 필요할 경우 이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는 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 등에서 11개 과제에 약 43억 원을 지원했다.

방용주 팀장은 “올해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예산은 과제당 약 4억 원으로 약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컨설팅 기관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과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등의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 서울 마포우체국에서 상시 진행되는 블록체인 무료 교육과정도 더 개선된다. ‘입문과정’과 ‘개발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교육과정에는 전문 강사제도 도입 등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NIPA, 동북아 공개 SW 활성화 포럼 개최

삼성전자, 알리바바, 후지쯔 등 한·중·일 IT기업의 공개SW 혁신사례 공유

국내 공개SW 생태계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점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공개SW 글로벌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2019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을 오는 21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은 한·중·일 기업·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비즈니스의 부문에서 국가 간 정보 및 경험 등을 지속 공유하며 협력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일의 글로벌 IT기업이 참여해 공개SW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공개SW 기업 컨퍼런스와 기업 박람회를 통해 공개SW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한국에서 ▲삼성전자 ▲SKT ▲그라운드X 등이 참여해 각 기업의 주력 사업과 핵심 요소인 공개SW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디디 ▲오슈 ▲화웨이 등 4개 기업이, 일본에서는 ▲사이오스 ▲히타치 ▲프레미우 등 3개 기업이 참가한다.

또한 기업 박람회에는 삼성전자의 공개SW인 ‘타이젠’을 이용해 안마의자를 개발한 코지마를 비롯해 ▲LG전자 ▲KT DS ▲래블업 ▲큐브리드 ▲인베숨 등 총 7개 기업이 주요 제품을 전시한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화웨이 ▲디디 ▲오슈 ▲인스퍼 등이, 일본에서는 ▲후지쯔 ▲NEC ▲사이오스 등이 참여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은 한중일의 공개SW 기술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공개SW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개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IPA는 공개SW창업지원센터 개소, 군장병 대상 공개SW 전문가 양성 등 국내 공개SW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저작권위원회와는 ‘공개SW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공개SW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이슈를 예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왔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SW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국내 공개SW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NIPA,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우수사례 공유

‘NIPA 블록체인 성과공유회’ 개최…특허출원 6건, 저작권 등록 9건 등 높은 성과 거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2019년 NIPA 블록체인 성과공유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NIPA에서 수행한 ‘2019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올해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메디블록 ▲샌드스퀘어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노트리 ▲유피체인 ▲세종텔레콤 ▲마크애니 ▲블록펫 ▲세이정보기술 ▲메이크스타 ▲디지털존 등 11개 국내 기업들은 특허출원 6건, 저작권 등록 9건, 투자유치 2건, 사업화 1건, MOU 체결 3건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존은 ‘구직자 선택형 원스톱 완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고신뢰 검증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과 더불어 8건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내년 4월 취업 포털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건강한 급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식재료 관리시스템 기술 검증’ 사업을 진행한 세이정보기술은 현재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미국 A사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블록체인 및 개체 신원 인증기술을 활용한 유기견 효율적 등록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블록펫은 국내 투자사의 투자유치와 함께 대기업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송주영 NIPA SW산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우리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해마다 60% 성장, 3년 뒤 3500억 시장으로

블록체인 산업 규모가 연평균 61.5%씩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통신기술(ICT)과 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국외 정책 동향에 따르면 올해 846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연평균 61.5%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성장률은 가파르지만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 다른 소프트웨어(SW) 시장 규모보다는 작다. 오는 2022년이 되는 약 3,5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자동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공유, 유통,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 융합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활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 헬스케어-식품유통 활용도 높아

해외 주요국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정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정부

NIPA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발표
타산업과 융합, 규모 계속 커져
해외 주요국, 산업 육성 박차
美-헬스케어, 日-지역사회에 적용
中·英, 응용기술 집중 연구·투자
두바이는 스마트시티 구축 나서
한국도 정부 주도 혁신 서둘러야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해 연방 및 주 정부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헬스케어 산업에 의료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일본은 유기농 채소 품질 관리, 교통 결제 시스템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미야자키현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기농 채소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도 자국 내 암호화폐 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응용기술에 대해서는 지속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항저우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개인 간 거래, 현금없는 공공금융 거래, 주민등록 관리, 스마트기계를 통한 생산공정 효율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도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반 의료 정보 솔루션 개발, 분산원장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두바이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건인 필요

보고서는 이처럼 주요국들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 기술검증 지원, 전문 인력양성 정책 확대 등을 통해 초기단계 블록체인 시장 생태계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초기시장(에너지, 전자문서 등)에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기술기준이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투명성이 소비자들의 생활 및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지 디지털 화폐 등의 거래수단이 아닌 인터넷과 같은 파괴적 혁신 동력으로 인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D프린팅 기업, 우리나라 제조혁신 선도한다

국내 3D프린팅 기업이 대규모 제조기업의 고부가·고난도 핵심부품을 제작해 납품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의 3D프린팅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0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조기업과 3D프린팅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조산업용 핵심 부품이나 설비·금형 등을 3D프린팅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정개발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항공 ▲우주 ▲자동차 ▲방산 ▲조선 ▲발전 ▲플랜트 등 총 7개 제조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총 3개 과제를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과제당 1억 원이었던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는 9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년대비 24억5,000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국내 3D프린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제조산업의 고부가·고난도 부품을 실제로 생산·납품하는 실적”이라며 “우리 3D프린팅 기업이 계속해서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IPA, ‘3D프린팅 활용·인식 확산 사업’ 본격 추진

- 3D프린팅연구조합·신소재경제·인사이트플러스 컨소시엄 선정
- 바우처·경진대회·해외 진출·CEO 교육·컨퍼런스·실태조사 실시

우리나라 제조업 디지털 혁신 및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3D프린팅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정부 출연금 9억5,000만 원을 투입해 ‘3D프린팅 활용 및 인식 확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을 수행할 위탁주관기관은 3D프린팅 연구조합(이사장 박영서)이 선정됐고 위탁 참여 기관으로 신소재경제신문과 인사이트플러스(대표 이용)가 참여한다.

정부는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은 ‘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3D프린팅 시장도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3% 성장한 3,958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까지 연평균 2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시제품 제작을 넘어 제조업에 적용돼 부품 상용화가 성공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비, 소재 등 기술력은 향상됐으나 외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관련 기업 규모도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NIPA에서는 국내 제조기업이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 3D프린팅 공급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활용·인식 확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 6개로 구성됐는데, 3D프린팅 활용 확산의 일환으로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지원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작 제품화·고도화 지원 △3D프린팅 기업 해외진출지원이, 3D프린팅 인식 확산의 일환으로 △제조기업 CEO 대상 3D프린팅 수요확산 교육 △3D프린팅 컨퍼런스 △3D프린팅산업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3D프린팅 비용 부담 등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기업과 3D프린팅 공급기업을 연계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3D프린팅 공급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6월경 기계·부품, 자동차·항공, 전자제품·소비재, 의료·바이오, 뿌리산업 등 수요기업 7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에게는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제작비용이 지원된다.

3D프린팅 경진대회는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3D프린팅 기술 아이디어를 선발해 제품화·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월까지 신청 접수하고 선정된 우수작에는 제품화 지원금과 함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조기업 CEO 대상 3D프린팅 수요확산 교육은 3D프린팅 활용 경험이 없거나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충청도를 시작으로 전라도, 서울, 경상도 등 권역별 세라믹, 에너지, 탄소,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 CEO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D프린팅 전문가를 매칭해 3D프린팅 공정개선 맞춤형 코칭도 제공된다.

3D프린팅 컨퍼런스는 3D프린팅 최신기술·시장 동향 소개, 우수 활용사례 전시·홍보 및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확산 등을 위해 개최된다. 기술 동향은 물론 3D프린팅 우수 콘텐츠와 바우처 수혜기업의 성과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3D프린팅 정책 도출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는 사업체 기초 현황, 매출 정보, 인력 정보, 안전실태조사, 장비·출력 서비스 활용 현황,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3D프린팅 활용 및 인식 확산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공고는 3D프린팅 연구조합(www.3dpro.or.kr) 및 본지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5171-5917)로 문의하면 된다.



NIPA-현대기아자동차 공개 SW 활용·관리 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공개소프트웨어(SW) 체계적 활용·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과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제조업 분야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개SW(오픈소스SW) 활용·관리·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개SW 활용·관리 체계 구축을(협력업체 포함) 위해 마련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자 양성·공개SW 활성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한다.

현대·기아차는 △차량(제품)에 포함되는 공개SW 관리 정책을 협력업체까지 확장하고 △협력업체 납품 공개SW 기준 수립·배포 △자동차 제조업 분야 최신 기술·트렌드 홍보 등 공개SW에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친다.

NIPA는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 라이선스 검증을 지원하는(협력업체 포함) 등 관련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조업 분야에 올바른 공개SW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도 공개SW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IPA-국방부, 군장병 대상으로 공개SW 실전 능력 키운다

코딩교육, 인공지능(AI) 등 기술과정 대상별 맞춤교육 강화
코드리뷰, 웹 기반 실습환경 등 비대면 통합교육환경 마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개소프트웨어(이하 공개SW) 인재양성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장병 공개SW 역량강화 교육'은 SW예비개발자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공개SW 개발 기술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군 장병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웹, 앱,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엣지컴퓨팅 등 최신 트렌드 교육을 제공하고 군장병의 코딩 역량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코드 리뷰, 코딩 실습 교육, 온라인 코딩 경진대회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웹기반 개발환경 등 언택트 통합 교육환경 제공 및 지정과제 운영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에서는 AI를 이해하고 딥러닝 모델을 간편하게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개SW 기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케라스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성과 활용을 위해 현업 요구사항과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적 문제를 지정과제로 제시하고 우수한 작품은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해 개발물의 품질 확보에 주력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점), 국방부 장관상(2점), NIPA 원장상(3점), 육·해·공군 참모총장상(6점) 등 총 12점의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송주영 NIPA SW산업본부장은 “군장병 공개SW 역량강화 교육은 AI 등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함께 개발하고 기여하며 성장하는 공개SW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방 ICT 분야에서도 개방형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군 내부인력의 공개SW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본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국방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은 공개SW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6월 15일부터 국방오픈소스아카데미에서 가능하다.



NIPA, 3D프린팅으로 중소제조기업 경영 혁신 돕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과 3D프린팅 신기술 적용을 통한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충남 천안시 오엔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 CEO 3D프린팅 경영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메디컬 분야 중소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공정 개선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강의와 3D프린팅 공정개선 맞춤형 코칭 등 현장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공급망(GVC) 재편 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30 미래차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동향 ▲메디컬·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3D프린팅 적용 사례 소개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CEO 3D프린팅 경영혁신 세미나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광주(에너지·탄소산업 기업), 서울(일반 제조기업), 울산(중공업·조선·자동차 기업)에서 지역별 특화산업군과 연계해 최종 4회 실시될 예정이다.

NIPA, 의료데이터 활용방안 웹 세미나 개최

의료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논의

최근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데이터의 활성화 방안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5일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개인정보 전문가협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와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세종 TMT팀의 박규홍 변호사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분야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신수용 교수가 '의료데이터 가명화 비식별화와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오상우 동국대학교 교수, 이득희 카이스트 헬스케어 로봇연구단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홍수희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강신욱 세종 TMT팀 변호사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한 국내 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며 "민감한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 임직원 및 일반참가자들은 세종 홈페이지에서 11월 4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NIPA, 2020 지역 SW사업 통합 성과 보고회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다음 달 2일 ‘2020년 지역SW사업 통합성과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D.N.A(Data·Network·AI-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지역 SW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보고회는 총 4개 사업, 202개 과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관, 우수 사례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수 성과 공유, 특별강연,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선해양 △지역 균형 발전 SW·ICT 융합 기술 개발 △지역SW산업진흥지원으로 각 분야별로 대표사례를 구성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별강연은 최재봉 성균관대학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뀌어야 할 9가지’ 고삼석 박사의 ‘5G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도래’이며 코로나19 시대 대응 방향 및 지역 중소SW기업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온라인 성과보고회는 통합성과보고회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카카오TV,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역SW사업을 통해 성장한 SW기업과 지자체 및 지역 SW진흥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의 혁신과 SW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IPA, 5G기반 디지털트윈 기술로 디지털 정부혁신 이끈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8일부터 이틀간 ‘2020년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완료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기관·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및 기업의 산업시설물을 대상으로 5G,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5G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지능정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완료보고회는 2020년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참여한 경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과 광주광역시청 컨소시엄 및 총 34개 기관(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마산의료원, NC파크, 김해문화의 전당 등 경상남도 소재 2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모니터링, 재난관제,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와 침단보안, 증강·가상현실(AR·VR) 등 5G 특화 서비스를 실증했다.

마산의료원은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관제, 재난 대응(디지털 SOP), 3D 건물정보 관리뿐 아니라 안내 및 보안 서비스를 위한 로봇, 다국어 지원·비접촉식 터치를 지원하는 3D 기반 정보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에 중점을 뒀다.

광주광역시청 컨소시엄은 영호남 달빛동맹과 육군사관학교가 참여하여 민·관·군 2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5G·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 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현했다. 특히, 민간기업인 ㈜고려정밀은 작업자 안전관리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공장 생산설비 모니터링 연계 등 디지털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시범 적용했다.

한편, 디지털트윈은 도시·제품·공장·건물 등을 디지털로 복제하여 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신산업으로,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5G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ICT 융합 신기술로 디지털 비대면 시장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겠다”고 말하며, “2021년은 공공시설물 안전뿐 아니라 민간 제조시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5G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IPA, 블록체인 신서비스 모델 우수 사례 공유

2020년 NIPA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2020년 NIPA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NIPA에서 수행한 2020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성과와 기술검증사업(PoC) 우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전체 대상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활용기업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컨설팅을 수행한 EY컨설팅의 진창호 상무는 “보석감정, KS 및 ISO인증서 관리, 국가 보조금 관리, 가짜 뉴스 판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사업모델, 생산성 향상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컨설팅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블록체인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9개 국내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투자유치 2건, 사업화 3건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신건강 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측정하고 보안성을 높인 '블록체인 시 멘탈케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 △제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분야 1호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독립 메인넷 기반 P2P MMO 게임 기술검증’ 사업을 진행한 △나인코퍼레이션은 국내 A사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블록체인 DID 기반 통합인증결제 플랫폼 기술검증’ 사업을 수행한 △디지털존, ‘블록체인 기반 풍력발전 운영 보안 솔루션 개발’ 사업을 수행한 △다인리더스, ‘블록체인 기반 산업 디자인 거래를 위한 Makers Market 플랫폼 기술검증’을 진행한 △아이디앤디는 2021년부터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우리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구급차 최적 이동 경로, 상황 실시간 병원 전송…응급의료 지원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17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연세의료원을 중심으로 7개 의료기관, KT,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보고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해, 환자 발생부터 최적 병원 이송까지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이 지능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을 시연하고 참석자들에게 중계했다.

행사장 외부에 전시된 119구급차에서는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응급환자 데이터 수집 장치들을 소개하고, 응급환자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80억 원을 투자해 2년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2개 지역에 보급·확산하는 계획이 짜여졌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4대 중증응급환자(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의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응급실 이송을 통해 적시 치료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음성, 영상,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5G망을 통해 통합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구급차내 장비와 응급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는 통합플랫폼에 전송된 응급데이터를 분석해 구급차 내 구급대원에게 △표준 응급처치방안 제시 △구급활동일지 작성지원 △최적이송 병원 경로 등을 제시하고, 응급실 전문의들에게는 구급차내 상황을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응급환자 도착 전에 최적의 치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현장점검 열일곱 번째 발걸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CT 역량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며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연세의료원의 장혁재 사업단장은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응급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검증 (PoC) 자원사업 9개 과제 모집

기업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창의적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은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기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의 창의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PoC)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해 11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이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총 9개 내외를 선정하고 과제당 4.5억 원 이내, 총 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검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일자리 확대 등이다. NIPA는 선정된 기업에게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시제품 설계 및 구현, 시범 시스템의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보안성 등에 대한 기술검증 비용을 제공한다.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에 선정된 11개 기업들은 사업 수행을 통해 특허출원 5건, 저작권등록 9건, MOU 3건, 투자유치 2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구직자들의 자격 증명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한 디지털존은 오는 4월 취업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세이정보 기술은 ‘건강한 급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식재료 관리시스템 기술 검증’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저작권 등록과 미국 A사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내 전문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PoC 지원 사업은 다양한 블록체인 사례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IPA는 세부 공모 일정 및 사업 신청서 양식 등 관련 자료를 NIPA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 모집

과기정통부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를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SW에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일반인 등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는 공개SW 개발 역량을 기르고 출품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 등을 받게 된다.

제출 마감은 9월 3일까지고, 이후 결선을 거쳐 12월에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대상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비롯해 총 22개 팀에 상금 5천300만 원이 주어진다. 창업을 희망하는 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회 수상작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 홈페이지(o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PA, 2021년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기존 시설물 외에 제조 실증 첫 추진... 16일 사업 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2021년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통합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50인 미만을 사전에 등록받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시설물과 기업·산업시설물에 5G·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실증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개 지역 50개 시설물에 5G·디지털트윈 기반 안전 관리시스템을 실증했다.

올해는 기존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사업' 외에 5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5G 기반 디지털트윈 제조산업 적용 실증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사업'은 국민 이용도가 높은 중·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또 '5G 기반 디지털트윈 제조산업 적용 실증사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두 사업에 총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5G 기반 디지털트윈 제조산업 적용 실증사업'은 5G,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안전관리, 기술개발 촉진 등 제조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플랫폼 및 연계 서비스 기획 개발 적용을 위한 실증을 지원받고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업한다.

한편, 디지털트윈은 도시·제품·공장·건물 등을 디지털로 복제해 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신산업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지석 NIPA ICT신산업팀장은 “안전 취약성 증가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과 코로나 19로 위축된 산업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뉴딜 사업 일환인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을 통해 5G, 디지털트윈 등 ICT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16일 오후 1시부터 3월 4일 오후 4시까지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한걸음 더 다가온다

과기부, 올해 예산 55% 늘려 기업·기관 대상 컨설팅 추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블록체인사업에 531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 2021년도 블록체인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사업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담당자들이 상세 설명을 맡는다.

정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나선다. 주요 사업 분야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블록체인 시범사업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와 파급력이 높은 사회복지, 투표, 신재생에너지, 우정고객관리, 기부 등 5개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펼친다. 올해부터는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는 선도시범사업과 사물·데이터·계약 등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DID 집중사업,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찾는 특구연계사업 등이다.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국고와 민자를 합쳐 1,1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고성능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기술,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관리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등 4대 전략 분야 9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한다. 올해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방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주치의 닥터앤서 대장암 조기 발견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기영 장관이 얼마후 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18일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방문해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 원(정부 364억 원, 민간 124억 원)을 투자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이다.

길병원은 고려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인피니티헬스케어,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피씨티 등 정보통신(CT) 기업과 협력해 ‘닥터앤서’의 8개 대상 질환 중 대장암 발생 예측 및 진단 SW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은 약 8만 명의 의료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연계·분석해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고, 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이 대장 용종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장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 대장 내시경 SW는 2020년 2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인허가를 받았으며, 길병원은 기존 대장내시경실(8실)에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SW를 설치(6실)하고, 국내 최초로 AI 기반 대장내시경 검진체계를 갖췄다.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SW는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용종도 실시간으로 발견해 알려줌으로써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단 정확도는 74~81%에서 92% 이상으로 개선됐다.

최기영 장관은 “닥터앤서는 인공지능과 의료 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D프린팅 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혁신의 미래를 비추다 ‘K-스마트등대공장 컨퍼런스’
6월 4일 온라인 개최

정부가 3D프린팅 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프린터를 활용한 양산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 공고를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3D프린팅 기업과 제품의 설계 권한을 보유한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부품을 발굴하고 3D프린터를 활용한 제조 방식에 최적화된 양산공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컨소시엄에 자동차·항공·전자·발전·조선·철도·방산·우주·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 부품과 생산설비(금형, 지그 등)에 대한 3D프린팅 공정 개발(시제품→양산)을 위해 3년간 총 28.5억 원(연간 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용 시제품 제작 위주로 활용 중인 국내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산업으로 확산하여 핵심부품 생산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20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착수한 3개 과제는 방위산업·우주·자동차 분야 핵심부품에 대한 3D프린터 생산 공정을 개발 중이며, 사업추진 첫해 임에도 강도·정밀도 등 주요 성능이 최종 목표치의 80% 이상을 달성하며 제품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부품·장비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동력”이라며, “국내 3D 프린팅 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력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이들이 글로벌 선도 제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3D프린팅센터 6년 연속 선정, 전후방 제조혁신지원

충청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3D프린팅 맞춤형 제품화 지원과 활용 교육 사업」에 한국교통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고도화와 산업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D 프린팅 기술과 활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한국교통대학교 3D프린팅센터는 2016년부터 6년 연속 3D프린팅 충북센터로 선정돼 총사업비 25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5년간 408건의 기업지원과 49건의 산업 현장 전문교육을 운영했고,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3D프린팅 전문 기술(설계, 해석, 제작, 후가공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간 추진해온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창의융합형 3D프린팅 제작지원 ▲세미나 등이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그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당면한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창업, 특허, 경진대회 참여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내 일반인, 예비창업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기술을 지원해 3D프린팅 기술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며, 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과 창업 붐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D프린팅 충북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 3D프린팅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도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불씨 살아나나... NIPA 지원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19년 추진됐다가 중단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을 공고했다.

NIPA는 제안요청서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안이 회기 종료 이후 자동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현재 계류 상태로 실제 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 제정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논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3월 25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4월 5일에는 송희경 전 의원이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두 제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 육성한다는 취지가 같았다.

이상민 의원 지난해 제정안 발의...NIPA, 법 제정 지원 추진

또 두 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두 제정안은 2019년 6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두 제정안에 대해 의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두 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2020년 9월 22일 이상민 의원이 다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을 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 블록체인 산업 창업 촉진,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 제정안은 2020년 11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영 전 과기정통부 2차관(당시 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법안 논의는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산하NIPA가 법 제정 지원에 나선다. 현재 NIPA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I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입법 추진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제정안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기된 공청회 개최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법률, 산업,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NIPA의 이런 계획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AWC 2021 in Seoul 디지털헬스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쟁 중이다. 비대면 의료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작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시 정밀의료 구축에 대한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맞춰, 시장의 국내외 현황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마련됐다. 오는 5월 12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AWC 2021 in Seoul : DIGITAL HEALTH’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The AI’, 디지털조선일보가 함께하는 ‘AWC 2021 in Seoul : DIGITAL HEALTH(이하 AWC 2021)’는 디지털 헬스 기술 선진국의 산업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각국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콘퍼런스다.

‘AWC(AI World Congres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I를 대표하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매년 핵심적인 콘텐츠와 저명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는 한국·네덜란드·덴마크·독일·미국·영국·이스라엘·프랑스·사우디 아라비아 등 세계 9개국 30명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콘퍼런스는 ‘AI for Health : 팬데믹을 위한 뉴노멀과 글로벌 협력’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제약(Biopharma), 의료기기(Medical Device),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국내외 의료 산업 현황과 서비스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이 축사와 개회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세계 각국의 연사들은 세션별 기조연설, 전문가 대담, 패널 토의 등에 배치되어 각국 디지털 헬스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영국 국제통상부의 린다 매기 의료 혁신 및 NHS 스페셜리스트, 미국의 아밋 파드니스 GE헬스케어 부사장, 이스라엘의 아사프 바네아 사나라 벤처스 대표, 남덴마크 대학 병원의 이반 브란스룬드, 백릉민 분당서울대학병원 원장, 박현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부장 등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리더들이 대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AI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정진현 연세대 교수,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영학 아산병원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향후 AI 의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AWC 2021’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행사장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원활한 세션 진행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운영된다.

NIPA,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

초·중·고등학생 3000여 명 대상, 맞춤형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퇴직전문가 대상 SW 전문 강사 양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제주 SW미래채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SW미래채움센터는 접근성이 어려운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의 초·중등학생 대상 SW·AI 교육 확산과 거점 마련을 위해 조성됐다. 예산은 3년간 총 56억 원이 투입된다.

SW·AI 교육 확산을 위해 관련 170시간 이상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초·중등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 교육과 도내 초·중등학교 및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운영한다.

고급교육으로는 제주SW미래채움 교육프로그램 수혜 학생 중 약 50명을 선발해 센터와 지역 교육기관이 공동 개발한 50차시 이상의 맞춤형 SW·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미취업청년, 경력단절 여성, 퇴직전문가 등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SW 강사를 선발하고 160시간 이상의 SW·AI 교육을 운영하는 등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SW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SW 미래채움사업은 현재 10개 지역에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SW·AI 교육 거점의 역할과 AI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사업은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찾아가는 교육과 비대면 화상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4,500여 명에 이르는 섬·산간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SW를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며 “올해 개소하는 제주 SW미래채움센터를 통해 SW·AI 체험 기회 등을 확대하고, SW·AI 교육의 허브이자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육성 속도내는 정부, 규제 풀고 신산업은 키운다

기재부 주도 TF로 신산업 지원
코인플러그·KISA 등 민관 협력
블록체인 진흥법 논의도 본격화
기업들 90% "법제도 개선 시급"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참여자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신산업으로의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여기다 블록체인 산업 기틀을 마련하는 법령 제정 움직임도 동시에 이뤄지며 국내 블록체인 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정부, 블록체인 산업정책 모색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활기를 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정책 마련 및 법률 연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신산업 전략지원 데스크포스(TF)'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신산업 지원 분야로 포함됐다.

이미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시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블록체인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코인플러그, 블로코 등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들과 유관기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으로 구성, 이달 중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이라며 "연구개발(R&D)과 시범사업, 시장수요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블록체인 산업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블록체인 진흥법 논의 가시화

블록체인 진흥법 논의도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7일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을 발주,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마련 준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 상정 전 추가적인 사전연구를 진행하고 산업계 의견을 모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게 NIPA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블록체인 규제개선과 진흥법 마련 요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진흥법 제정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참여 기업의 약 90%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을 꼽았고,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 응답자도 80%에 달했다.

NIPA는 이달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과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을 비롯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특금법 등 블록체인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를 전개하게 된다.

NIPA, 제주 SW미래채움센터 개소식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이 ‘제주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 SW미래채움센터는 접근성이 어려운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초·중등학생 대상 SW·AI 교육 확산과 거점 마련을 위해 조성됐다. 3년간 총 56억 원이 투입된다.

SW·AI 교육 확산을 위해 관련 170시간 이상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초·중등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 교육과 도내 초·중등학교,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운영한다.

고급교육으로는 제주SW미래채움 교육프로그램 수혜 학생 중 약 50명을 선발해 센터와 지역 교육기관이 공동 개발한 50차시 이상 맞춤형 SW·AI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미취업청년, 경력단절 여성, 퇴직전문가 등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SW 강사를 선발한다. 160시간 이상 SW·AI 교육을 운영하는 등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SW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SW 미래채움사업은 현재 10개 지역에 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는 SW·AI교육 거점 역할과 AI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찾아가는 교육과 비대면 영상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4,500여 명에 이르는 섬·산간 지역의 초·중등 학생에게 SW를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올해 개소하는 제주 SW미래채움센터를 통해 SW·AI 체험 기회 등을 확대하고, SW·AI 교육의 허브이자 글로벌 인재 양성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WC 2021 in Seoul 기획] 의료 혁신 이끄는 토종 AI ‘닥터앤서’, 빅데이터 통한 진단·예측·치료 고도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I)’은 2016년 성사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 세계적인 화두가 된 이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AI에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 통계(2020.09)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분야는 지난 10년간 36.7%의 폭발적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의 출원 증가율(27.4%)보다 높은 수치다. AI에 대한 연구개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진단 관련 AI 기술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통해 의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경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정밀의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의료용 AI로는 미국 IBM의 왓슨(Watson)이 가장 유명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의료용 AI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닥터앤서(Dr.Answer)’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뉴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용 AI 솔루션이다.

‘닥터앤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018년부터 3년간 총 488억 원(정부 364억 원, 민간 124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AI 기반 정밀진단 솔루션으로,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 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측·진단·치료를 지원한다.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만큼 한국인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AWC 2021 in Seoul 기획] 의료 혁신 이끄는 토종 AI ‘닥터앤서’, 빅데이터 통한 진단·예측·치료 고도화

현재 닥터앤서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3대 암과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치매, 뇌전증, 소아 희귀 유전질환 등 주요 8대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 질환을 예측하고 진찰하는 총 21개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으며, 국내 38개 의료기관에서 정확도와 유용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닥터앤서의 임상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평균 5년이 걸리던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15분으로 단축한 사례는 닥터앤서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히며, 수십 분에서 수 시간 걸리던 관상동맥 CT 판독과 치매 판독도 1~2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 1월에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장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돕는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이 문을 열었다.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소프트웨어(SW)는 약 8만 명의 의료데이터를 AI로 연계·분석해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고, 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이 대장 용종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정확도는 기존 74~81%(간과율 16~26%)에서 92% 이상(간과율 8%)으로 개선됐다.

또한, ‘대장용종 발병 위험도 예측 SW’와 ‘내시경 기반 대장암(용종) 분석 SW’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과잉 진료를 피하고,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닥터앤서는 진단 정확도를 높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진단 시간을 줄여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경영 컨설팅 기업 AT커니는 닥터앤서 적용 시 연간 6,2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만성질환자와 노령인구의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는 막대한 의료비는 전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닥터앤서가 이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국내 의료 ICT 기술의 경쟁력을 높인 닥터앤서는 글로벌 진출 기반을 위한 다양한 대·내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보건부 산하병원에서 교차검증을 추진했다. 한국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가 인종과 생활습관이 다른 해외에서도 한국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과 임상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현재 닥터앤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의를 앞두고 있다.

닥터앤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병원에서 교차검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닥터앤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병원에서 교차검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최근 정부는 닥터앤서 1.0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4년까지 4년간 280억 원 규모의 닥터앤서 2.0사업에 착수에 나섰다. 닥터앤서1.0이 암, 뇌, 심장 등 주요질환을 중심으로 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뤘다면, 닥터앤서 2.0은 폐암, 당뇨, 간질환, 피부질환 등 개인 의원 등 1~2차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12개 질환에 주목해 개발을 진행한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 국내 AI 의료 생태계의 기본 토양을 조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스마트 의료시대를 열어갈 ‘닥터앤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에 개최하는 AWC 2021 in Seo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AWC 2021 in Seoul’은 디지털 헬스케어 선진국의 산업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각국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콘퍼런스로 5월 12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며, 온라인 웨비나가 병행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C 2021 in Seoul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토종 AI의사 닥터앤서 치매 대장암 잡고 해외시장 나선다

한국토종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Dr.Answer)’가 종합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닥터앤서는 ‘Ai, network, software, er’의 합성어로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다. 지난해까지 닥터앤서 1.0 개발을 완료해 8대 질환 예측과 진단치료를 하는데 비용 절감과 진료시간 단축 효과를 거뒀다. 최근 닥터앤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능을 입증 받아 해외진출 가능성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4년간 연구개발(R&D)를 통해 동네의원에서진료하는 12대질환을예측하고진단치료하는닥터앤서2.0을개발한다.

정부, 닥터앤서 1.0 사업보고회
3년간 488억 투입 AI 의료SW개발
8대 질환 연간 진료비 8.7% 줄여
사우디 임상검증 후 수출길 오를 듯
닥터앤서 2.0 버전도 개발 착수
당뇨·고혈압 등 12개 질환 진단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닥터앤서 1.0 사업 성과보고회와 2.0 착수보고회를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로 개최했다.

닥터앤서 1.0은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AI 의료 소프트웨어(SW)다. 이를 통해 소아희귀유전질환, 심뇌혈관질환, 치매,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8대 질환의 질병 예측과 진단치료를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8대 질환의 연간 진료비 7조2,000억 원 중 8.7%인 6,27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닥터앤서 1.0은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임상 검증을 완료해 토종 AI 의료SW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투입해 닥터앤서 2.0 개발에 들어간다. 닥터앤서 2.0 사업단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과 18개 ICT 기업이 참여한다.

닥터앤서 2.0 개발이 완료되면 1차 병원 주요 질환인 폐렴, 간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해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등 12개 질환의 예측과 진단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닥터앤서 2.0 연구총괄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룡민 병원장은 “향후 모든 의료 데이터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혁신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닥터앤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보다 속도를 내고, 우리 AI 의료SW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닥터가 당뇨·간암 등 12개 질환 진단한다. 닥터앤서 2.0 개발 착수

닥터앤서 1.0 성공으로 AI 의료서비스 선도 및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닥터앤서 2.0 12개 질환 24개 AI 개발로 대국민 AI 의료 기반 마련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가운데 국민 건강수명과 직결된 8대 질환의 진단·치료용 AI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12대 질환에 대해 ‘닥터앤서 2.0’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닥터앤서(Dr.Answer; Ai, network, software, er)’는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의사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닥터앤서 1.0 사업 성과보고회 및 2.0 착수보고회를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로 개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닥터앤서 1.0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18~20년) 총 488억 원(정부 364억 원, 민간 124억 원)을 투자하고,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진료데이터,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이다.

닥터앤서 1.0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수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8대 질환(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21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터앤서’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의료기기 인허가(6건), 비의료기기(6건), 인허가 진행(9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38개 의료기관 141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임상검증 과정에서 질병의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거두면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의료진과 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과기정통부-NIPA의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우디 임상검증(20.7월~21.3월)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토종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 환자(심혈관 200명, 뇌출혈 24명, 대장암 114명, 치매 205명)에 적용해 한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 2.0 사업(21~24년, 국비 280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닥터앤서 2.0 사업단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개발참여 12개, 임상검증 18개)과 18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참여해 본격적인 의료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과기부는 닥터앤서 1.0의 성과가 닥터앤서 2.0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닥터앤서 2.0 기획 단계부터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닥터앤서 2.0은 질병의 ‘예측·분석’, ‘진단보조’, ‘치료지원’,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병원 임상검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닥터앤서 2.0은 1차 병원 주요 질환인 폐렴, 간 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해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등 12개 질환, 24개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앤서 2.0 연구총괄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룡민 병원장은 “향후 모든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혁신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임상 검증과 의료기기 인허가를 통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기업이 만나 일구어낸 훌륭한 성과로서 닥터앤서 2.0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느 병원에서도 국민들이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보다 속도를 내고, 우리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닥터앤서 2.0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끈다... 자문기업으로 루닛, 뷰노 선정

분당서울대병원, AI 정밀의료 사업 닥터앤서 2.0 연구개발 주관
지원 그룹은 의료 AI 기업 루닛·뷰노, 인허가 자문기관 KTC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LAIF가 공통 플랫폼 개발

국비 280억 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사업 ‘닥터앤서 2.0’
청사진이 공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총괄주관병원으로 나서 30개 참여병원, 18개 ICT 기업, 총 280명
인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진행된 ‘닥터앤서 1.0’
사업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26개 의료기관, 22개 ICT 기업, 총 1,962명이
참여한 바 있다.

기술 개발 자문 기업으로는 의료 AI 기업인 루닛과 뷰노, 자문 기관으로는 국제공인
시험인증 및 인허가 자문기관인 KTC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9일 ‘닥터앤서 1.0 사업 성과보고회와
2.0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닥터앤서 1기 사업 성과와 함께 올해
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2기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사업 성과는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이, 새롭게 시작할 2기 사업 계획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룡민 원장이 발표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닥터앤서 사업 중 의료 AI 소프트웨어(SW) 개발에는 총 42만 건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예측·분석 9개, 진단 8개, 치료 3개, 예후 관리 4개 총 24개
솔루션을 개발한다.

AI 솔루션 대상 질환은 12개 중점질환(▲위암 ▲우울증 ▲피부질환 ▲당뇨 ▲폐암
▲폐렴 ▲전립선증식증 ▲간암 ▲뇌경색 ▲간 질환 ▲고혈압 ▲갑상선암)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인 피부질환, 폐렴, 간 질환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질환별 AI 솔루션 개발 담당 병원은 ▲위암-가천대 길병원 ▲우울증-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피부질환-경북대병원 ▲당뇨병-고려대 안산병원 ▲폐암-부산대병원
▲폐렴-분당서울대병원 ▲전립선증식증-삼성서울병원 ▲간암-서울대병원 ▲뇌
경색-서울아산병원 ▲간 질환-아주대병원 ▲고혈압-전남대병원 ▲갑상선암-충북대
병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닥터앤서 사업을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AI 솔루션 개발 후 임상시험을 통한 실증작업을 30개
병원과 함께 진행한다.

연도별 계획을 살펴보면 1차년도인 올해는 학습데이터 구성에 집중한다. 2차년도인
2022년까지는 의료 AI SW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3차년도부터는 실증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식약처
AI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을 거친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서비스 안정화,
사업·성과관리를 진행한다.

의료 AI 기업 엘에이아이에프(LAIF)는 클라우드 기반 공통 플랫폼 개발을 맡는다.
기반이 될 플랫폼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제공한다.

백룡민 원장은 “의료 SW 개발과 서비스 제공 위한 플랫폼은 이미 1.0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면서 고도화할 것이다. 신규 SW를 위한 최적 AI 개발 및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BP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플랫폼에서는 의료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 SW를
개발하는 도구를 지원하고, 개발된 SW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외 다양한 의료기관과 EMR, AI 솔루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개방형
생태계도 구축한다.

백 원장은 “공통 플랫폼 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분리 형태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
할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 닥터앤서 1기서 인허가받은 SW 절반 못 미쳐... 사우디 수출 확정

한편, 지난 닥터앤서 1.0 사업에서 개발한 의료 AI SW 중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것은
21개 중 절반이 안 되는 10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7개 SW는 비의료기기로 결정돼
병원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통상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가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산 의료 AI 솔루션이지만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에서는 5개 질환 닥터앤서 AI SW를 도입하기로 결정, 우리 정부와 계약 협의 과정에
있다. 5개 질환은 알츠하이머, 뇌졸중, 대장내시경, CAC, 뇌전증이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우디 환자
663명을 대상으로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닥터앤서가 한국 환자에 적용한
것과 같이 사우디 환자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5월 중 닥터앤서 해외 교차검증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NIPA, 중소기업에 블록체인 사업화 컨설팅 제공한다

정부가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NIPA, 중소기업에 블록체인 사업화 컨설팅 제공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내달 4일까지 ‘2021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중견기업과 지자체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컨설팅 대상 분야는 △중견 기업·지자체 등 수요 중심의 블록체인 도입 컨설팅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심의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신남방(인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의 시장 진출 컨설팅 등 3개 분야로 NIPA는 총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금번 사업 수행은 컨설팅기업 커니코리아가 맡는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기술 수요기관 컨설팅 사업
NFT, DID, 디파이, CBDC 등 다양한 분야 사업화 논의

NIPA의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20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초기 투자 유치와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사업엔 총 12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되며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대상 기업에게 최적의 블록체인 도입 방향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반 디지털 자산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분산 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 확대,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등 블록체인 분야의 최신 흐름에 맞춰 사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진행된다.

NIPA는 올해부터 거대 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진출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추가해 신남방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 제도 대응,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에게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제공한다.

변상익 NIPA 정보통신산업본부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매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 및 사업모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도입 기업들이 초기 시장인 블록체인 분야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엿보다! 글로벌 콘퍼런스 ‘AWC 2021 in Seoul’ 성황리 종료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는 미래를 조망하는 글로벌 콘퍼런스 ‘AWC 2021 in Seoul’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디지털조선일보, 더에이아이(The AI)의 공동 개최로 글로벌 콘퍼런스 ‘AWC 2021 in Seoul : DIGITAL HEALTH(이하 AWC 2021 in Seoul)’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DIGITAL HEALTH’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선진국의 산업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각국의 교류와 미래 시장을 전망했다. 행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김영식 국민의 힘 위원, 서정숙 국민의 힘 위원,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아이너 H.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대사 등 주요 인사와 연사들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참관객을 위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진행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이고, 미래는 개인별 맞춤 의료 서비스가 주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AWC가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영식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및 해외 각국 대사가 ‘AWC 2021 in Seoul’의 개최를 축하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산업의 발전을 응원했다.

AI 아나운서의 소개로 문을 연 ‘AWC 2021 in Seoul’은 대한민국 AI 의료의 집약체인 ‘닥터앤서 2.0’ 소개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축하 시연 등 많은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어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콘퍼런스는 백용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예스퍼 케이 에르 덴마크 의학청 부청장, 하즈메 래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총괄 최고 경영자, 이준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이 스페셜 세션으로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의 앞선 기술과 시장 현황을 소개했으며,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AWC 2021 in Seoul’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사전 등록과 실시간 접속자가 참여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 공동주최사인 ‘The AI’ 황민수 대표는 “제5회 AWC(AI World congres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돈에 빠진 전 세계를 회복시키고 생존을 위한 뉴노멀과 디지털 헬스케어 선진국의 산업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글로벌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었다”라며, “국제사회는 백신 이기주의,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협력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The AI’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NIPA, 2021년 블록체인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2021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대상기업’을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정부는 총 10억 원을 투입, 국내 중견기업·지자체 등의 블록체인 도입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블록체인 컨설팅 대상 분야는 △중견 기업·지자체 등 수요 중심의 블록체인 도입 컨설팅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심의 기술과 사업화 컨설팅 △신남방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의 시장 진출 컨설팅 등 3개 분야로 NIPA는 총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NIPA는 이번 사업을 위해 최근 조달청 평가를 통해 컨설팅 기업인 커니코리아(Kearney)를 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에는 총 12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되며 DID(분산 신원증명), 플랫폼, 전자 지갑, CBDC(디지털 화폐), 법 제도 대응 분야의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대상 기업에게 최적의 도입 방향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NFT(대체불가 토큰) 기반 디지털 자산화, CBDC(디지털 화폐), 개인정보보호/주권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확대, DeFi(탈중앙화 금융) 등 블록체인 분야의 최신 흐름에 맞춰 사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진행된다.

NIPA는 이번 사업부터 거대 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진출 컨설팅 사업을 추가했다. 신남방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 제도 대응,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에게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총 2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기업들 가운데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기사 콘텐츠 관리시스템(CMS)기업인 퍼블리시는 컨설팅을 바탕으로 20억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으며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 19년 블록체인 기반의 효과 음원 구축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은 지난해 NIPA의 기술검증 사업에 선정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문체부와 전주시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변상익 NIPA 정보통신산업본부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매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과 사업모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도입 기업들이 초기시장인 블록체인 분야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응급의료시스템, 골든타임 확보를 향한 선포식 개최

지난 5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홀에서 연세의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서비스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월 유일한 홀에서 진행된 중간 성과 발표회 후 5개월 만에 한정적 서비스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정밀 의료 산업기반 구축 사업단’의 일환으로 연세의료원이 주관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시스템은 병원, 구급 현장, 관제 기관 간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별 정보 전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AI(인공지능)와 5G 기술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순간부터 환자에 따른 맞춤형 진단, 최적이송병원 등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응급실 이송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와 고양시가 시범 서비스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제 응급상황에 본 시스템이 적용되어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포식은 사업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던 터라 앞으로 제공될 AI 응급의료시스템 서비스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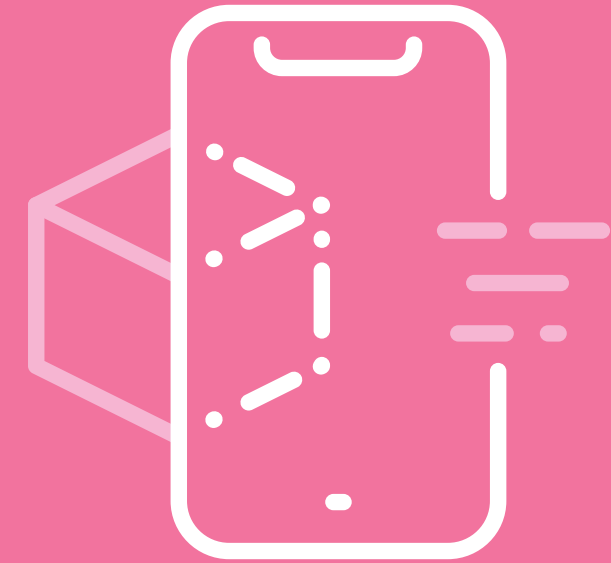
이번 선포식에서는 연계되어 있는 사업단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소방청장,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선포식을 시발점으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시스템 고도화를 이루고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PART 03.

VR·AR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실현



한국 전자 IT산업 융합전시회 개최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공개된 한국 기업의 핵심 제품과 기술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판 CES’가 열린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오는 29~31일 서울 동대문 디지털플라자(DDP)에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CES는 매년 세계 160개국 4천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는 한국 기업 317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CES에서 공개된 한국 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 공개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네이버랩스 등 CES에서 주목받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40여 개사가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증강·가상현실(AR·VR), 스포츠엔터, 헬스케어, 스마트홈·시티, 로봇 등 5가지 분야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마이크로 LED TV’, 스마트가전과 연동해 음성으로 제어 가능한 인공지능 ‘홈 로봇’,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등이 있다.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솔루션인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내비게이션 정보와 위험 경고 등을 제공하는 ‘3D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홀로그램으로 만든 3D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는 ‘홀로박스’도 선보인다.

세계 최초로 다각도 3D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 얼굴을 촬영하는 VR 제품, 헬멧 크기로 뇌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촬영 가능한 휴대용 뇌영상 촬영장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결제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의 헬스케어 제품도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KOTRA, KE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창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관람 시간은 29일 오후 12시~6시, 30~31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국내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5G 킬러콘텐츠 MWC에서 공개

25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5G 킬러콘텐츠로 꼽히는 국내 유망 스마트 콘텐츠가 공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살린, 스트라티오코리아, 이즈커뮤니케이션즈, 앱포스터, 엠플레어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스마트콘텐츠와 함께 한국공동관을 구성하고 5G 기반 콘텐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공동관은 VR, AR, AI, 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5G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과 동영상 스트리밍, 웹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전시되어 관람객의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공동관에 참여한 기업들은 VR 소셜미디어, AI 플랫폼, 근적외선 이미지센서, 위치정보 플랫폼, 콘텐츠 제작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치페이스 등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마트콘텐츠로 유럽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살린(대표 김재현)은 장소 제한이 없는 가상 공간에서 VR, 3D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VOD와 영화, 공연, 스포츠 중계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함을 즐길 수 있는 VR 소셜미디어 플랫폼 ‘에픽라이브(EpicLive)’를, 오퍼스원(대표 김기영)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인 ‘다브(DAW 360 Smart Cradle)’를, 마인즈랩(대표 유태준)은 언어·시각·사고지능 통합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마음AI(Maumai)’를 내세우고 있으며, 살린은 이번 MWC2019 기간에 AI회사인 ObEN과 MOU를 체결한다.

한편, NIPA는 국내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및 우수 스마트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MWC 전시장 8.1홀에서 한국 스마트콘텐츠 공동관을 운영 하고 있으며 전시회 참가 전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 홍보 에이전시, 통신사 등 타겟 시장에 맞는 현지 바이어 및 파트너사 등을 선별하여 국내 기업과 사전 비즈니스 매칭을 지속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과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간 1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계약, 파트너십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참가기업의 전시성고를 높이기 위해 IR 피칭 행사, 1:1 전문 통역원, 네트워크 리셉션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NIPA 김창용 원장은 “5G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쇼핑, 교육, 스포츠, 의료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의 킬러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서비스 인프라(CDN) 등 단계 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MWC2019 한국 스마트콘텐츠 공동관, 수출상담액 5천 9백만불 달성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정보통신 산업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국내 스마트콘텐츠가 세계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5G 킬러콘텐츠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MWC 2019’에서 한국 스마트콘텐츠 공동관을 운영, 비즈니스 상담 294건, 수출 상담액 5천9백만 불, 계약체결 1건, MoU(양해각서) 1건 등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 스마트콘텐츠 공동관은 국내 우수 스마트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지원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시 기간 중 VR과 AR, AI, 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5G 기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구성했다.

참여기업은 살린, 스트라티오코리아, 이즈커뮤니케이션즈, 앱포스터, 스파코사, 오퍼스원, 엠플레어, 정감, 마인즈랩, 모바일닥터 등이다.

VR 소셜미디어 플랫폼 ‘에픽라이브(EpicLive)’를 서비스하는 살린은 미국의 오벤(ObEN)과 MoU를 체결하고, VR/AR 기술 협력 도모를 약속했다.

IoT기반 스마트 힐링 조명 오니아(Onia)를 개발한 정감은 독일 주요 유통사인(Bramer & Partner UG)사와 저작권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혹은 1년간 약 5억 원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창용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VR·AR,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5G 핵심콘텐츠를 선보이는데 집중했다”며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5G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홍보·마케팅, 서비스 플랫폼 등 기능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 받을 70개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사업’에서 유망 중소기업 70개사를 선정했다.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춰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테스트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테스트 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능성, 호환성, 사용성 등 콘텐츠 분야별로 희망하는 테스트 및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개발 테스트 지원 분야와 개발 환경 구축, 성능 부하 테스트, 웹 스토리지 및 애로 기술지원 등 온라인서비스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 인프라 지원 분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5G 콘텐츠 테스트는 VR·AR 등의 실감콘텐츠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개발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과기정통부·NIPA, 개발 테스트 지원 분야 40개-개발 인프라 지원 분야 30개 기업 선발
5G 콘텐츠 테스트 지원 통해 실감콘텐츠 품질 실증 본격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본 사업에 신청한 콘텐츠 개발사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선정평가가 진행됐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개발 테스트 지원 분야 40개, 개발 인프라 지원 분야 30개 기업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는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앱 다운로드 3,000만, 유튜브 누적 조회 수 5억을 달성하며 ‘보로로콘’, ‘보로로TV’, ‘로보카 폴리 구조본부’ 등 인터랙션 플레이 앱을 개발한 키글, 누적 다운로드 500만을 돌파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매일 2만여 건 방송을 기록 중인 실시간 방송 앱 ‘카메라파이 라이브’를 서비스하고 있는 볼트마이크로, 구글플레이가 진행한 국내 앱·게임 개발사 오디션 프로그램 ‘100인의 선택, 턴업 2019’에서 1위를 차지한 모바일 댄스클럽 키우기 게임 ‘매드 포 댄스’ 개발사 버드레터 등이 본 사업에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개발 테스트 지원 분야의 5G 콘텐츠 테스트 지원 신설,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 내 이동통신 3사의 5G망 구축 및 최신 국내외 5G폰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 실감콘텐츠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VR·AR 콘텐츠 개발사들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선정된 70개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4개 기업이 실감콘텐츠인 VR·AR 개발사며, 이는 6개 기업이 VR·AR 분야에서 지원받은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까지 5G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할 실감콘텐츠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본 사업은 실감콘텐츠 품질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IPA ICT 문화융합팀 범원택 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한 유망 기업”이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다져 나가고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NIPA, 커넥테크 아시아 2019 한국관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18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린 ‘커넥테크아시아(ConneTech Asia)2019’에 한국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커넥테크아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5G, 통신 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는 ‘커뮤닉아시아(CommunicAsia)’, 신기술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선보이는 ‘넥스타시아(NXTAsia)’,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방송 산업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는 ‘브로드캐스트아시아(BroadcastAsia)’와 동시 개최했다.

NIPA는 커뮤닉아시아에 30개사, 넥스타시아에 8개사 등 기술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참가사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커넥테크아시아는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교류 활성화와 제3국으로 공동 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NIPA 해외거점 싱가포르 IT지원센터와 싱가포르 무역관(KOTRA) 협력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등 다양한 기관과 국내 기업 참여로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 현황과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대상인 세종시와 KT, 스파코사 등 국내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7개사)과 싱가포르 국영컨설팅기업 서바나 주롱(Surbana Jurong) 등이 각각 참가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기술개발청(GovTech) 등 현지 주요 정부기관에서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NIPA, 국내 5G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NIPA, 국내 5G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VR게임, 실감교육, 스트리밍 등 5G특화 콘텐츠 30개사 선정
최대 6,700만 원(홍보마케팅), 9,000만 원(글로벌 인프라)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가 ‘스마트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유망 콘텐츠 기업 30개사를 선정했다.

‘스마트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VR, AR,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콘텐츠 해외 홍보·마케팅’과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기업 20개사 선정

최대 6700만 원 규모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가 지원되는 ‘스마트콘텐츠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는 게임, 교육 관련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듀코젠(VR/AR 체험형 스마트교육콘텐츠)▲(주)랭스터(애니메이션 한국어 학습 콘텐츠) ▲(주)아티스츠크드(VUI기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주)컨시더씨(4K 몰입 콘텐츠를 활용한 실내 사이클링 강의 솔루션)▲(주)페이크 아이즈(다중접속 실시간 대전 VR FPS게임)▲㈜피닉스(모바일 골프 게임)▲बी알 카버(주)(무빙사이클 시뮬레이터 연동 VR 경륜게임)▲㈜서커스컴퍼니(클라우드형 실감형콘텐츠 플랫폼)▲주식회사 미라지소프트(독립형 VR기기 기반 낚시 게임) ▲주식회사 비온드리밋(증강현실 유아 교육용 스마트 퍼즐)등이다.

또 ▲주식회사 스튜디오बी알(4k 고화질 VR로 만나는 K클래식)▲주식회사 에이아이엑스랩(VR 공포 체험 게임)▲주식회사 큐리어슬리(동영상 강의 통합 교육 플랫폼) ▲주식회사 플랫폼(네온사인 이미지 구현을 위한 동영상 디자인 편집 앱 ‘찰라네온’)▲㈜그로비스인포텍(누구나 별도의 코딩없이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연필과 지우개(말이 없는 슬랩스틱 코믹 장르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주식회사 마블러스(영어 말하기 학습 및 스피치 연습이 가능한 어학 어플리케이션) ▲주식회사 큐브로이드

(코딩교육용 소프트웨어인 ‘큐브로이드’와 인공지능 로봇 ‘아티보’를 활용한 STEAM 교육 플랫폼)▲주식회사 헬로앱스(VR 콘텐츠 제작 및 교육용 솔루션 ‘VR코딩’)도 선정됐다.

NIPA는 선정된 기업에 △해외 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사전컨설팅 △마케팅 로드맵 수립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미, 유럽 등 5G상용화 선도국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VR기반 게임콘텐츠, 증강현실 유아교육용 퍼즐, 어학 등 다양한 실감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사업에 10개 기업 선정

최대 9,000만 원 규모를 지원하는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지원’ 사업에는 VR기반의 게임, AR기반의 솔루션 등 신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피닉스의 아처리킹(캐주얼 양궁게임, 타겟국가는 북미, 유럽) ▲팝조이의 카툰네트워크 아레나(글로벌 원빌드 서비스 PVP게임, 타겟국가는 북미, 유럽) ▲㈜슈퍼어썸의 헬로키티 프렌즈(헬로키티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퍼즐게임, 타겟국가는 동남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유틸플러스인터랙티브의 토키도키 프렌즈(스마트폰 게임, 타겟국가는 북미, 중국) 등이다.

또 ▲맥스온소프트(주)의 알라게임즈(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플랫폼, 타겟국가는 아랍권) ▲주식회사 마이뮤직테이스트의 머신러닝을 기반 K-POP 온라인 커머스(온라인 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타겟국가는 미국, 유럽) ▲㈜폴리아트의 큐브랜드 VR(가상현실기반 멀티플레이 캐주얼 게임, 타겟국가는 북미) ▲㈜아이디어콘서트의 문라이트(Moonlight)(종이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서비스하는 종이만화 영상 저작물, 타겟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에프엑스 기어의 FXMirror, FIT'N SHOP(온라인/모바일 가상피팅 솔루션, 타겟국가는 중국) ▲네오코믹스 주식회사의 웹툰 글로벌 AI 번역 및 영상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번역 및 자동화 시스템, 타겟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도 포함됐다.

NIPA는 10개 기업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운영 전반 기술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및 관련 운영기술을 제공한다.

VR기반 멀티플레이 게임, AI기반 연구개발 특허를 보유한 전략게임 등 다양한 5G 관련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준수 VR AR콘텐츠사업본부장은 “5G이동통신에 특화된 다양한 국산 콘텐츠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킬러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IPA, 2만명 운집한 한류 콘서트에서 VR 콘텐츠 체험 부스 성료

한류 콘텐츠 연계한 5G 기반 VR, AR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지난 7월 6일(토)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Asia world Expo)에서 개최된 ‘2019 SBS 슈퍼콘서트 in 홍콩(이하 SBS 슈퍼콘서트 HK)’ 행사에서 5G 기반 K-POP 가상현실(이하 VR) 콘텐츠 제작 및 한류 VR 체험 부스를 운영, 성공적으로 마쳤다.

과기정통부와 NIPA에서 지원하는 5G 플래그십 과제 중 ‘한류-VR AR 동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VR 기술로 제작된 다양한 K-POP 아티스트들의 우수한 VR 콘텐츠를 홍콩 현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현지 공연을 VR 영상으로 촬영해 한류 인식 확산과 앞선 VR 콘텐츠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다.

SBS 슈퍼콘서트 HK 출연진은 글로벌 한류 중심에 있는 EXO를 비롯해 태연, 위너, 세븐틴, 마마무, AB6IX 등 총 6팀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체험 부스에 설치된 VR 노래방 ‘웨이브(W.A.V)’로 출연 가수들의 노래를 직접 불러 볼 수 있는 자리가 관람객들에게 마련되어 공연 시작 전부터 홍콩과 아시아 전역의 팬덤 층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 밖에도 VR 게임 ‘블레이드 라인’과 SBS가 제작한 K-POP VR 콘서트,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VR 전문 제작기업 ㈜포더비전은 엑스포 아레나홀에서 개최된 SBS 슈퍼콘서트 HK에서 한류 5G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티스트들의 공연 실황을 VR로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5G 기반 VR 킬러서비스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포더비전은 SBS와 함께 한류 K-POP VR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해시태그 이벤트 및 K-POP을 VR로 체험한 경험을 인터뷰하는 등 한류 ICT 확대 및 VR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NIPA 김창용 원장은 “본격적인 5G 시대를 대비하여 한류와 함께 VR·AR 콘텐츠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행사와 연계한 한국의 VR·AR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신남방 국가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IPA, 2019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 참가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다음 달 27일부터 1박 2일간 시흥 대교HRD센터에서 진행 되는 '2019년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는 컴퓨터그래픽 분야의 창의인재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과의 매칭을 통해 국내 CG/VFX/애니메이션 기업 등 컴퓨터그래픽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는 캠프기간동안 CG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지원받아 참가기업 채용 직무의 대한 과제를 수행하며 기획 능력은 물론 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는 CG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2D(Nuke, Match-Move, Matte-Paint), 3D(Maya/Max, Sculpting), FX(Houdini, Maya/Max), New Media(Unreal, Unity) 총 4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60명이다.

캠프 참가 기업은 국내 흥행 순위 1위 '명량' CG제작기업 스튜디오매크로그래프, '신과함께' CG 제작기업인 텍스터 스튜디오, 2019년 최고 흥행작 '극한직업' CG 제작기업 코코아비전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참가기업 : 스튜디오 매크로그래프, 텍스터 스튜디오, 코코아비전, 인스터, 모팩, 위지웍스튜디오, 사이드9, 클럭트, 매드맨포스트, 88브릭스

NIPA 김창용 원장은 "본격적인 5G 시대에 맞춰 VR/AR/홀로그램 등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활용 범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컴퓨터그래픽 리크루팅 캠프 세부 일정과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8월 14일까지 비즈씨(BIZ-C) 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출 하면 된다.

NIPA, 컴퓨터그래픽 분야 리크루팅 캠프 성황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시흥시 대교 HRD센터에서 '2019년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캠프 참가자 56명 중 약 30명이 추후 최종 면접을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류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된 CG기업 구직자 56명과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대표 CG 기업 10곳이 참가했다.

캠프에 참가한 CG기업들은 1박 2일간 구직자의 과제수행 과정을 직접 보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인재상에 부합한 구직자 35명을 선발했다. 기업별로는 매드맨 포스트 6명, 텍스터 스튜디오 6명, 코코아비전 5명, 위지웍스튜디오 5명, 88브릭스 3명, 인스터 2명 등이 최종 면접을 통해 취업을 할 예정이다.

NIPA 김민석 VR·AR산업팀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CG분야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이력서, 포트폴리오 심사에서 벗어나 구직자의 과제 수행 과정을 직접 보고 채용할 수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CG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IPA, ICT 융합 콘텐츠 분야 이끌어 갈 리더 키운다

ICT융합 콘텐츠 제작 리더 양성 교육생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ICT 융합 콘텐츠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리더 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리더 양성 교육'은 9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개월 간 진행된다. 콘텐츠 기획, 가상(VR)·증강(AR)·혼합(MR)현실 분야의 현업인, 프리랜서, 앱·모바일 기반 개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터디 중심의 인텐시브 코스와 실습 중심의 어드밴스드 코스로 진행된다.

인텐시브 코스는 타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VR 드로잉 창작과정 ▲스넥콘텐츠 과정 ▲AR 개발자 킷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분야별 우수 사례 분석 및 활용 방법 강의로 구성됐다.

어드밴스드 코스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신 글로벌 융합 콘텐츠에 적용된 사례분석 ▲볼륨메트릭 비디오 데이터 획득방법 ▲가상공간과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UI/UX 사례분석과 디자인 ▲언리얼 엔진 과정 등을 실습한다. 독일의 MS 홀로렌즈 개발에 참여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르네솔트의 강연과 미디어 아트 시연도 진행된다.

교육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강의 당 수강인원은 12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ICT 문화 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철 NIPA VR·AR 산업본부장은 "5G 상용화로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타 산업 분야와의 차별화된 융합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IPA, KVRF2019 글로벌컨퍼런스 성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원장 김창용)은 2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9(이하 KVRF 2019) 글로벌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KVRF 2019 글로벌 컨퍼런스'는 5G 상용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감콘텐츠에 대한 최근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과 기술 활용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기조 연사인 마이크로소프트 MRCS 총괄책임자 스티브 설리반은 5G 시대의 킬러 콘텐츠로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언급했다. "이 기술이 일상의 동영상 기록 패러다임을 바꾸고 풍부한 몰입 경험을 가져다줄 5G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이동3사도 5G는 단순한 네트워크 속도의 발전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VRF 2019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VR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VR 기술을 적용해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 사례 및 가상 체험을 통해 산업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VR·AR 기술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앞으로 5G와 실감콘텐츠는 산업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1996년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판으로 ICT 강국으로 도약했던 것처럼,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밑거름으로 VR·AR 산업도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실감콘텐츠는 ▲쇼핑 ▲교육 ▲의료 ▲안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NIPA, 구글과 8i의 증강현실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4일 코엑스에서 개최...구글 알렉스 마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국내 실감콘텐츠 산업인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전문가를 초청, 해외 선진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A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완 춘 알렉스 마(Wan-Chun Alex Ma)가 ‘구글 AR Core’를, AR 스타트업 8i의 엔지니어 패트릭 카빌(Patrick Cavill)이 8i의 4D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구글에서 ‘AR Core’를 개발한 알렉스 마는 “구글이 제시하는 현실감 있는 증강현실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도, 사진, 영상 안에서 3D 오브젝트들을 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향후 증강현실이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생활 환경 등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i에서 4D스캐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패트릭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우리가 가진 4D스캐닝 기술이 한국의 선진화한 5G 기술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국방,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점차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크숍은 실사 기반의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360도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볼륨 메트릭 캡처’ 기술과 구글의 증강현실 플랫폼 ‘AR Core’의 특징, 포토리얼리스트(Photorealistic) 기반의 디지털 휴먼 요소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최연철 NIPA VR 및 AR 콘텐츠산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소개한 AR Core와 볼륨 메트릭 캡처 기술은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가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이해하고 국내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NIPA, ICT와 문화예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 엿본다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ICT-문화예술 융합콘텐츠 전시 ‘보더리스 액세스 (Borderless access)’를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이달 21일부터 내달 15일 까지 25일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 없는 만남’이라는 의미로 ICT 문화융합센터와 성남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작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세미나 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ICT, 예술 융합 교육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시에는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션 맵핑 등 ICT기술과 예술간 융합을 시도한 뉴미디어 아티스트 9명의 작품 11점을 만나볼 수 있다.

AI 딥 러닝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속 감정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부터 관람객 스스로 작품을 연출해 보는 실시간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ICT를 접목해 인간과 식물, 미래 사회를 연결한 작품 등도 전시된다.

최연철 NIPA VR 및 AR콘텐츠산업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의 세계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접목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ICT 문화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NIPA,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으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국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5G 기반 디지털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NIPA는 기존 LTE 환경뿐만 아니라 5G 전용망에서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기기별 호환성 테스트가 가능한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이하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콘텐츠 업계는 LTE망을 통해 5G 전용 단말기의 콘텐츠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제조사별로 고가의 5G 단말기를 구매하여 테스트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디지털콘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 내 구축된 테스트랩은 이동통신 3사의 5G통신망 및 5G 전용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에게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품질테스트 및 컨설팅 등 테스트 실증 기술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5G 콘텐츠와 최신 VR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G VR 콘텐츠 체험존'과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전시존'도 운영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언택트(Untact)시대에 적합한 디지털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 및 투자 교육·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5G 기반의 실감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G 콘텐츠 테스트랩 장비 및 시설 이용은 디지털콘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사용할 수 있다.

NIPA, 2020 CG 리크루팅 채용 온라인 캠프 개최

7개 CG 기업 참가... 구인-구직자 매칭과 토크콘서트 등 진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충남 아산 교원연수원에서 컴퓨터그래픽(CG)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 캠프를 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컴퓨터그래픽(CG) 채용(리크루팅) 캠프'는 CG 기업의 신규인력 발굴을 지원하고 구직자와 구인자간 일자리를 매칭, 국내 CG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열렸다.

당초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하루 일정으로 줄여 9월 1일 시행했다.

행사에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최종 선발된 50명 구직자와 채용을 원하는 국내 7개 CG기업이 참가했다. 7개 참여 기업은 위지윅스튜디오, 모팩, 매드맨포스트, 비브스튜디오스, 엔진비주얼웨이브, 뉴토, 클럭트 등이다.

참여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2D, 3D, FX, 게임 엔진 등 4개 분야에서 채용 리쿠르팅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분야별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CG기업은 참가자들의 과업 수행에 대한 멘토링 및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평가, 자사에 맞는 인재들을 직접 채용 했다.

이날 과제 수행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FX분야 정승재 참가자가 대상인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게임엔진 분야 과제를 수행한 옥주엽 참가자가 최우수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지난해 캠프 참가자 59명 중 31명이 CG 전문기업에 취업 성공한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NIPA는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취업 리쿠르팅 외에 4차산업혁명 인재상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최연철 NIPA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신규 채용이 위축돼 안타깝다"며 "이번 캠프와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PA-인천광역시 교육청 실감형 교육 콘텐츠 개발 맞손

초·중·고별 교육 현장에 활용할 진로체험 실감형 콘텐츠 개발도 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6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진로 교육을 위한 실감형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실감형 교육콘텐츠 교육 공동 기획 및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 유망 분야 진로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실감형 교육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초·중·고별 교육 현장에 활용할 진로체험 실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실감형 콘텐츠 체험 디바이스 확산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 전문기관과 교육 전문기관 간 국내 첫 협력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 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진로 체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미래 직업 및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 교육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IPA는 2019년부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진로체험 실감 교육 콘텐츠 모델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VR 트럭·버스 현장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NIPA, 2020년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시 비즈니스 로드쇼 개최

우수 디지털콘텐츠 11기업 참가해 판로 모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해외 전시회의 잇단 취소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2020년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전시·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국인 북미, 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에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가상현실·증강현실(VR·AR)기술 기반의 교육·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한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 11개사가 참여한다.

참가 회사는 △렛시 △인에이블와우 △비즈아이앤에프 △프론티스 △비상교육 △력스로보 △스튜디오코인 △주식회사 플랫폼 △웅진씽크빅 △플레이큐리오 △누비랩 등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기업별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및 콘텐츠 체험을 위한 VR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발굴 및 상시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일대일 화상 회의가 진행된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멘토링, IR 피칭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3개 우수 실감콘텐츠를 선정해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온라인 글로벌 한류 행사인 ‘케이콘(KCON:TACT 시즌 2)’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이용자 확보 등 글로벌 홍보·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산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디지털콘텐츠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PA, 고 버추얼 K솔루션페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우수 ICT 기업 참가... 테크 웨비나·홍보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5일부터 이틀간 ‘고 버추얼(Go, Virtual!) K-솔루션 페어’를 열고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고 버추얼(Go, Virtual!) K-솔루션 페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CT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기업용 솔루션, 디지털콘텐츠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국내 우수 ICT 기업 19개사가 참가해 가상전시관은 물론 테크 웨비나,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19개 참여기업은 △지니언스 △제니퍼소프트 △스패로우 △워닝아이 △모니터 코퍼레이션 △딥픽셀 △안랩 △엔피코어 △홍복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우경 정보기술 △스튜디오코인 △클라우드브릭 △포시에스 △아토즈소프트 △인피닉 △원투씨엠 △코코넛사일로 △한컴인텔리전스 등이다.

기술 및 서비스 분야는 분야는 △AI 기반 스마트 헬스 △디지털콘텐츠 및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스마트 인증기반 O2O 서비스 △스마트 물류 플랫폼 △스마트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약 6,000여 개사의 현지 파트너,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내 ICT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싱가포르 지재권중재소(IP)·사물인터넷협회(SIAA), 말레이시아 ICT협회(PIKOM), 태국 소프트웨어무역협회(TSEP) 등 현지의 유관기관과도 협력한다.

김태열 NIPA 글로벌 ICT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진출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역량있는 국내 ICT 기업의 신남방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IPA, 코로나 시대 생활문제 해결하는 ICT 솔루션 온라인 투표 시작

ICT 솔루션 국민이 직접 뽑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2020년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 챌린지 (이하 ‘솔·직 챌린지)’ 최종 수상작 선정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솔·직 챌린지’는 VR·AR,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이후 생활’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①교육·육아, ②돌봄, ③생활·문화 등이 도전 분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다.

접수된 총 355건 솔루션 중 서면평가(9.4.)를 거쳐 총 33건이 선정되었으며, 시연·발표평가(10.27.~30.),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고, 수상작에는 과기정통부장관상, 국민권익위원회장상 및 총상금 2억 3,000만 원이 부여된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4개 분야에서 (①교육·육아, ②돌봄, ③생활·문화, ④자유) 선호 솔루션을 각 1건씩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시민투표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솔루션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ICT 솔루션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생활문제, 우리가 직접 해결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ICT 솔루션을 활용해 국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 국민 생활 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이하 솔·직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솔·직’은 ICT 솔루션(Solution)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다.

‘솔·직 챌린지’는 모바일 앱, 가상·증강 현실(VR·AR),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기반의 독창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불편 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불편 해소에 기여한바 있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서비스’의 사례를 국민 생활 분야로 확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솔·직 챌린지’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불편 사항이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민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ICT 솔루션 활용해 국민 생활 불편 해결하는 ‘2020년 솔·직 챌린지’ 개최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소비자·행정개혁 관련 시민단체 및 ICT 전문가·개발자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과 같이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생활’이 주제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총 10만3,117건(2020.1.20.~5.5.)으로, 발생 초기(1·2월)에는 방역대책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나(56.1%) 3월 이후에는 ‘생활 불편 및 피해 구제’ 관련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3~4월, 56.7%).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①교육·육아 ②돌봄 ③생활·문화 등 3개 주요 분야에 대한 문제가 챌린지 지정과제로 각각 제시됐으며,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자유과제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챌린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인 솔루션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성·아이디어의 창의성·기술적 완성도 등에 따라 심사해 최종 10점을 선정하며, 수상작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등 상장 10점에 총상금 2억3,000만 원과 이후 사업화 지원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우리의 사회구조와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야말로 국민들이 생활 불편과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솔·직 챌린지”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발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입체 실감콘텐츠의 산실, ‘K-실감스튜디오’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KoVAC)에 아시아 최대수준의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인 ‘K-실감스튜디오(Korea Immersive Studio)’를 5월 13일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환경에서 360° 입체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텔 스튜디오와 같은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K-실감스튜디오’를구축하였다.

5G 상용화로 기존의 2차원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물처럼 입체감이 있는 실사 기반의 3차원 대용량 실감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실감콘텐츠 서비스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다.

‘K-실감스튜디오’는 개별적으로 제작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벤처 실감콘텐츠 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이다.

총 100평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4K 고화질 카메라 60대로 객체(인물 등)를 모든 방향에서 촬영하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300대의 GPU 렌더팜을 통해 빠르게 병합 처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입체콘텐츠로 구현하게 된다.

국내 중소·벤처 실감콘텐츠 기업은 ‘K-실감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입체 실감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제작하여 AR(증강현실) 콘텐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소식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이통3사, EBS 간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도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실감콘텐츠는 5G 핵심서비스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을 이끌 핵심서비스 분야”라며, “‘K실감스튜디오’라는 실감콘텐츠 민관협력의 새로운 장을 통해 창의·혁신적인 실감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어 일상에서 실감콘텐츠 이용이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년 컴퓨터 그래픽CG 리쿠르팅 캠프

컴퓨터그래픽 채용설명 캠프 참가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컴퓨터그래픽(CG)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와 CG 전문기업 간 인력 매칭을 위한 ‘2020년 CG 리쿠르팅 캠프’ 참가 희망자를 3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CG 리쿠르팅 캠프’는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교원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CG 리쿠르팅 캠프’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분야별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CG 전문 기업은 참가자들의 과업수행에 대해 지도 및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자사에 맞는 인재들을 직접 채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녀’의 CG 제작을 담당했던 ‘위지웍스튜디오’, ‘킹덤’ 및 ‘더널’의 CG를 맡았던 ‘매드맨포스트’ 등 국내 대표적인 CG 기업 7개사가 참여해 희망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참여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2D, 3D, FX, 게임엔진 등 4개를 선정 하였으며, 신청자의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최종 캠프 참가자로 50명을 선발한다.

또한, 캠프 진행 시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 분야에 대한 멘토링, 기업과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취업특강 등도 진행되며, 분야별 우수 과제에 대한 선정 및 상상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후에도 참가자 전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번 캠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참가자 59명 중 31명이 멘토 기업을 비롯한 CG 분야 기업으로 취업이 성사되었고, 구직자들과 국내 CG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취업 난 속에서 이번 CG 채용설명(리쿠르팅) 캠프가 CG 분야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과 전문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실감콘텐츠의 핵심 기반인 CG 산업의 선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CG 콘텐츠 개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CG 리쿠르팅 캠프’ 참가 희망자는 18일까지 캠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NIPA, 21년도 컴퓨터그래픽(CG) 리쿠르팅 캠프 참가 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 2021년도 ‘컴퓨터그래픽(CG) 리쿠르팅 캠프’의 참가기업을 오는 4월23일까지 모집한다.

CG 리쿠르팅 캠프는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국내 CG기업 10개사를 선발하고 각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 전문 CG인력을 발굴·매칭하는 채용사업으로 양질의 CG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내 CG기업의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참가기업은 캠프 개최기간 동안 참가 구직자들에게 멘토링을 지원하고 직무 과제를 함께 하며 개발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다.

또 채용 분야와 직무과제는 2D, 3D, VFX(특수시각효과), 게임엔진 등 ICT 분야의 최신 CG기술 전반에 걸쳐 참가기업의 수요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올해 CG 리쿠르팅 캠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 하는 등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이메일(ejh@nipa.kr)로 참가신청서와 기업소개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창용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X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와 CG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리쿠르팅 캠프를 통해 국내 CG 전문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CG 리쿠르팅 캠프는 △위지웍 스튜디오 △모팩 △매드팩 포스트 등 국내 경쟁력 있는 CG기업 8사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명의 참가자 중 2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K-실감스튜디오, 360도 입체콘텐츠 제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입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체 콘텐츠는 360도 모든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병합해 만든다.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콘텐츠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6개 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상암동 한국 VR·AR 콤플렉스에 있는 K-실감스튜디오를 최대 4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후보정 작업에 필요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입체 콘텐츠 특성상 K-실감스튜디오를 1회 이용할 경우 약 20분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K-실감스튜디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기술(XR) 등 신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공고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콘텐츠와 서비스를 출시하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핵심 성장산업인 XR 콘텐츠 등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5G 상용국 현지기업과의 XR 콘텐츠 공동제작 △디지털, 온라인 방식의 해외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자금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 기업설명회(IR) 컨설팅 등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전시회(MWC) 해외 비즈니스 매칭 △신북방·신남방·중동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전시 참가 지원은 물론 △미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 해외거점센터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투자자 발굴, 법률·회계자문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해외 신시장 선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융합기술(XR)로 경제사회 혁신가속화

가상융합기술로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XR(가상융합기술)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는 2021년도 ‘XR 확산 프로젝트’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XR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을 통칭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과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2020년 12월)’의 일환이다. 올해는 총 450억 원 규모를 지원하며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두 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산업·공공현장에 VR·AR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해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과제 4개, 지난해 선정된 계속과제 5개를 포함해 총 9개 과제가 대상이다.

올해 신규로 △소방 안전관리자용 화재 대응 향상 시스템(소방) △XR 기반 공군 통합 교육 훈련 시스템(국방) △XR 기반 건설·설계 혁신 시스템(건설) △XR 기반 조선·해양 공정 시스템(조선)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향후 3년간 과제별로 약 60억 원을 지원한다.

5G 연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선도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총 25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신규과제 23개, 20년 선정된 계속과제 12개 포함 총 35개 과제가 대상이다.

올해는 △AR 기반 내비게이션, 도시정보 시각화 등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XR로 완화하는 ‘디지털 치료제’ 등 지정공모 과제를 각각 2년간 160억 원, 1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XR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유공모 과제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에 XR 활용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시작한 과제는 현재 일부 산업 현장에서 원격협업, 교육·훈련 등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코엑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AR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XR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XR의 사회 전 분야 확산과 함께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관련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IPA, 컴퓨터그래픽 리크루팅 캠프 참가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 2021년도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의 참가기업을 오는 4월23일까지 모집한다.

CG 리크루팅 캠프는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국내 CG기업 10개사를 선발하고 각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 전문 CG인력을 발굴·매칭하는 채용사업으로 양질의 CG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내 CG기업의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참가기업은 캠프 개최 기간 동안 참가 구직자들에게 멘토링을 지원하고 직무 과제를 함께 하며 개발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다.

또 채용 분야와 직무과제는 2D, 3D, VFX(특수시각효과), 게임엔진 등 ICT 분야의 최신 CG기술 전반에 걸쳐 참가기업의 수요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올해 CG 리크루팅 캠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이메일(ejh@nipa.kr)로 참가신청서와 기업소개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창용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X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와 CG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리크루팅 캠프를 통해 국내 CG 전문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CG 리크루팅 캠프는 △위지윅 스튜디오 △모팩 △매드팜 포스트 등 국내 경쟁력 있는 CG기업 8사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명의 참가자 중 2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NIPA,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5월 10일까지... 초·중·고교 35개교 내외 선정해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학교 현장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XR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실감 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을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감 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는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XR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해 학생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 함양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체험학교는 전국 초·중·고교(대안학교 및 특성화 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총 35개교 내외를 선정해 실감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진로체험·교과연계 콘텐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체험을 위한 HMD·태블릿 PC·이동형 트럭 등이 지원된다.

NIP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2019년부터 실감 교육 강화 사업(19~21년도, 약 58억 원 투입)을 통해 진로체험 45종과 교과연계 17종을 포함한 총 62종의 실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

총 62종의 콘텐츠는 △스마트팜 매니저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 △홀로그램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진로에 대한 미래직업 세계 진로 체험 콘텐츠와 △과학 △사회 △미술 △기술·가정 등 ICT 기술이 접목된 교과 연계 콘텐츠로 구성됐다.

최연철 NIPA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은 "XR 실감교육은 교육의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실감 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체험 중심의 XR 실감교육 콘텐츠 적용이 활성화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IPA,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2021년 실감 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실감 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은 미래 유망형 진로체험 콘텐츠 관련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유망 진로에 대한 커리큘럼, 기술개발요구서를 제공하는 등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총 62종의 콘텐츠를 개발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아이스크림미디어(초등학교), 그렉션(중학교), 듀코젠(고등학교) 등 국내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 기업이 참여해 총 30종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체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62종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은 3개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별 1개 기업(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최대 2억 8,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과제별 7개 콘텐츠를 도출한다.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커리큘럼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커리큘럼·기술개발 요구서를 토대로 초·중·고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감 교육 콘텐츠를 21종을 개발한다. 2022년 실감교육 체험학교에서 시연·활용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실감 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XR기술을 활용한 초·중·고교의 비대면 교육 콘텐츠 시장이 확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국내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이 디지털 교육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산업 이끌 민간 주도 협의체 시동 건다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이달 출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 중심으로 수요·공급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달 메타버스 발전 전략을 논의할 범부처 ‘메타버스 작업반’ 가동에 이어 민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메타버스 확산 가속이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이달 중순 출범한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이동통신 3사와 메타버스 관련 전문 기업,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 AR 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등 20여 참여사 중심으로 출범하고 방송사와 수요기관 등 참여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일 “메타버스 확산에 따라 기업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참여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는 공급기업(개발사)과 수요기업·기관이 고르게 참여한다. 제품과 서비스, 산업동향 정보 교류와 함께 실제 공급 논의까지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이달 출범
이통 3사 등 20여 참여사 뭉쳐
공급·수요기업·기관 정보 교류
공동 프로젝트로 사업 기회 발굴

개발사 간 공동프로젝트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제품·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구성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가운데 ‘민간 참여 확산 기반 마련’ 과제의 일환이다. XR은 메타버스 핵심인 가상융합기술(XR)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간협력 촉진의 구심점으로 ‘K-XR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VRXR 확장현실화를 밝혔다.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K-XR 얼라이언스’가 아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공공 수요기관, 정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내 디바이스·솔루션 기업과 수요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 기획, 사업화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민간투자 확대 유도가 목적이다.

정부 사업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 수립 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도 명시했다. 참여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사례에는 내년부터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연계 지원한다.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XR 활용 확산을 위해 범부처가 제조, 의료, 건설 등 6대 산업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사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신산업으로 떠오르려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CPND 협력 체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이를 위한 협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범부처 메타버스 작업반을 가동했다. 작업반이 업계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산업 발전 정책을 논의한다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 협력과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생태계 확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초현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인간의 경험을 가상세계로 확대해서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을 혁신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대면 서비스·기술 발전을 앞당기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콘텐츠·서비스에서 제조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계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민관 뭉쳐 K메타버스 띄운다

과기부 ‘메타버스 동맹’ 결성
현대차·네이버·이통3사 등
국내 선두주자들 대거 참여
“디지털 뉴딜 구심점 될 것”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가상융합(XR) 기술은 오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약 520조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구현해 낼 메타버스 시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판교 ICT-문화융합센터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간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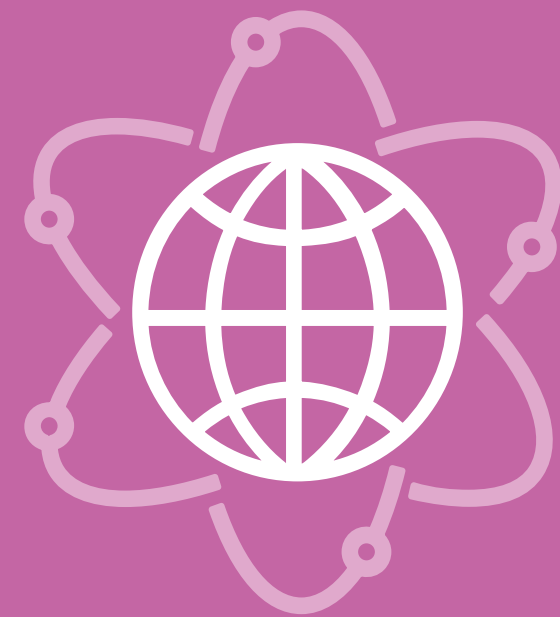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하나의 큰 기업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기업과 주체가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이 의미가 크며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라이언스에는 민간에서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운텍 △이동통신 3사 △지상파 3사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 참여했다. 유관기관과 협회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이 함께 한다.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 위한 법제도 자문그룹 △기업간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PART 04.

글로벌 진출
ICT·SW 생태계 구축



19년 상반기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의 2019년 하반기 지원자를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13일에 밝혔다.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해외파견 사업’은 국내 퇴직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시행 첫해 18개국 38명 파견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19개국 59명을 파견해 총 45개국 868명의 자문단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자문단 모집 분야는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 투자, 지역발전 등 총 5개 분야의 62개 직위로, 선발된 전문가는 라오스, 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등 22개국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파견직위 유관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으로 개도국 봉사 정신이 투철한 퇴직(예정)자로서, 영어 또는 현지어로 강의,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파견자에게는 주거비를 포함한 현지 생활비, 활동 지원비, 출·귀국 준비금, 항공료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면접심사-신체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자문단원은 사전교육 수료 후 올해 12월부터 수원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46개 직위에 총 108명이 지원하여 평균 2.3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무역 투자 분야의 경우 10 :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 방법은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설명회는 19일(월) 15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NIPA 글로벌 ICT 사업본부 김태열 본부장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퇴직 이후 해외 봉사 등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 퇴직 인력이 자아실현과 개도국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IPA,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진출 본격지원

‘호치민 IT지원센터’ 개소 및 파트너십 행사 개최…
한국형 SW 인재 양성도 추진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 현지에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호치민 IT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베트남 호치민에 호치민 IT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한-베트남 ICT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호치민 IT지원센터는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를 위해 ▲시장조사, 시장진입, 현지화 등 단계별 지원 ▲기업·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커뮤니티 구축 ▲제품 현지화 ▲스타트업 교류 등을 지원한다.

NIPA와 호치민시 BSSC(Business Start up Support Center)는 IT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ICT기업·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지원 ▲ICT정책 실현 ▲스타트업 양성 등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SSC는 호치민시 공산당청년연(Communist Youth Union)의 산하기관으로, 호치민시의 MSMEs(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중소 스마트 ICT 솔루션, 방송콘텐츠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베트남 ICT 파트너십’ 행사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5G 기반 스마트 시티·융복합 ICT 기술 시연 ▲방송콘텐츠 스크리닝 ▲기업별 제품 전시 및 네트워킹 등 600~1,000만 불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베트남 기업 간 콘텐츠 공동제작과 포맷 수출 등 2건의 MOU가 체결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신남방 지역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세계”라며, “앞으로 국내 ICT기업이 베트남에서 성공 루트를 만들어 양국 간 상생발전의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을 계기로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국내 SW생태계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해 국내 ICT·SW 기업의 현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IT 스쿨(Korea IT School, KITS)’ 개소식도 열렸다. 우리나라의 ICT·SW, 문화 등을 교육해 연내 50명 수준의 한국형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수강인력이 국내 기업에서 실무 SW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SW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김창용)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국민 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손목 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 실생활 관련 혁신적 과제 11건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토론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 혁신성, 시장 창출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열린다.

가상현실 VR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성수 의원, 이상민 의원,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최종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모 과기정통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계에서 통하는 SW 개발을 위한 SW국제화·현지화 교육

글로벌 수준 개발 역량 확보 위해 프로세스별 맞춤 교육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국내 SW·ICT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통하는 SW개발을 위한 SW 국제화·현지화 교육’을 개최했다.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SW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국내 중소 SW기업은 인력·자금 등의 제약으로 제품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교육은 NIPA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구현·테스팅·완제품화 등 SW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SW 글로벌화 개요 ▲SW글로벌화 설계 및 구현 ▲SW글로벌화 테스팅 ▲글로벌 완제품화 및 사업화 등을 주제로 NIPA 및 국내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SW·ICT 기업의 글로벌화 인식이 정착되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해외 진출기업의 수준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SW국제화·현지화 역량강화 교육은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참가 접수 및 공지는 NIPA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NIPA, 베트남 현지 IT인력난 해소 나선다 (KITS 추진)

베트남 IT 인력 양성 교육 '코리아 IT 스쿨' 사업 추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IT 인력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베트남 IT 인력 양성사업 '코리아 IT 스쿨'(KITS)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ICT 수출 상대국 2위로 부상했지만 IT 인력 부족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KITS 사업은 올해 처음 NIPA 호치민 IT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50명의 IT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3개월의 자바·C/C++ 등 SW 개발교육, 호치민 지역 국내 IT기업 실무 인턴십 2개월로 구성했다. NIPA는 이와 관련해 27일 세종학당과 MOU를 맺고 한국어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열 NIPA 글로벌 ICT 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SW 개발 소양을 갖춘 양질의 현지 인력 양성은 물론, 제품 현지화·마케팅 등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한 인력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주요국에서도 사업 추진을 검토해 신남방 진출 기업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모집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하 NIPA)은 내달 6일까지 국내 퇴직자 해외 파견 프로그램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의 2019년 하반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해외파견 사업’은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사업 ‘월드프렌즈 코리아(WFK)’의 일환으로, 국내 퇴직 전문가를 개발도상국(개도국) 정부 및 공공 기관에 파견해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0년 18개국 38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19개국 59명까지 총 45개국 868명의 자문단원이 파견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모집 분야는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 투자, 지역발전 등 총 5개 분야 62개 직위로, 선발된 전문가는 라오스, 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등 22개국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개도국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파견 직위 유관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예정)자로서, 영어 또는 현지어로 강의,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파견자에게는 주거비를 포함한 현지 생활비, 활동 지원비, 출·귀국 준비금, 항공료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선발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자문단원은 사전 교육 수료 후 12월부터 수원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46개 직위에 총 108명이 지원해 평균 2.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무역 투자 분야의 경우 10: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 방법은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에 앞서 19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남) 300호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NIPA 글로벌 ICT 사업본부 김태열 본부장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퇴직 이후 해외 봉사 등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 퇴직 인력이 자아실현과 개도국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PA, SW기업 글로벌 진출 밀착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현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정보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NIPA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 매칭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NIPA는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기술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수요처의 매칭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NIPA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외 진출 이후 행사 진행 등 ‘사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제공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매칭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시작한 기업에게 전반적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해외사무소는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위치해 있으며,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총 798개 기업, 1,054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실리콘밸리 92명, 싱가포르 490명, 인도 313명, 베트남 159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린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디자인 테크, △에듀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관련 기술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 운영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 분야도 지원한다. 주재국별 산·학·연 주요 인사로 구성된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를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 관련 분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NIPA는 “해외사무소와 해외바이어 및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기업에 제품 기획, 개발, 수출 마케팅(세미나, 전시·상담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IPA 측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 인도, 아세안 지역의 현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등 정보 제공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글로벌 소프트웨어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 인력 부족을 꼽았다”며 “다양한 현지 정보제공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NIPA가 우리 기업과 현지 파트너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IPA, 재한 베트남 유학생과 국내 SW 기업에 다리 놓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서울 마포 ICT 콤플렉스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과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SW기업들이 SW개발, 현지 마케팅 등 베트남 인력을 채용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 학생에 국내 SW기업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한국·베트남 ICT 분야 협력 가능성 및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SW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국내 SW기업인 플레이오토 현지 법인에 취업한 베트남 유학생의 생생한 경험담을 비롯해 참여한 SW기업과 베트남 유학생 간의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ICT 수출 2위 국가인 만큼 스마트시티, 디지털콘텐츠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특히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유학생과 국내 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IPA, 베트남에 우리 디지털교육 씨앗 심는다

베트남 하노이서 ‘2019 신남방 에듀테크 로드쇼’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KOTRA,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18일부터 3일간 ‘2019 신남방 에듀테크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유망 에듀테크 기업과 현지 바이어 및 파트너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ICT와 교육이 접목된 정부주도의 교육 개혁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에듀테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수능, 직업훈련, 미래 교육 분야의 국내 유망 에듀테크 ▲아이스크림미디어 ▲비상교육 ▲YBM넷 ▲타임교육 ▲렉스로보 ▲글로벌포인트 ▲유비온 ▲휴넷 등 15개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 교육기관, 투자자 등 3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18일에는 사전 간담회와 베트남 교육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참가 기업 간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일에는 우리 기업과 현지 투자바이어 및 파트너와 160여 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비롯해 국내 우수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20일에는 하노이 내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네트워크 교류와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연철 NIPA VR·AR산업본부장은 “전통적인 교육 서비스업이 에듀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남방 국가의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내 우수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IPA는 국내 SW·ICT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통하는 SW개발을 위한 SW 국제화·현지화 교육’을 개최하거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해 ‘베트남 IT 인력 양성 사업 코리아 IT 스쿨(KITS, Korea IT School)’을 추진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커넥테크아시아(ConneTech Asia) 2019’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맞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로드쇼 역시 향후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NIPA, ICT 기업 엔택트 비즈니스 수출 지원 방안 마련

신남방, 신북방 중심 수출국 다변화 등 추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NIPA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ICT 산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중심 수출국 다변화 추진 △온라인R 및 로드쇼, 온라인 마케팅 등 ICT 기업의 '비대면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ICT 수출 엔택트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제품 소개, 시연, 솔루션 교육, 수출 상담 및 컨설팅 등 수출 전반적인 것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원장이 11일 본원 집무실에서 해외 거점과 영상회의를 열고 엔택트 비즈니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NIPA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해외거점 안전지킴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NIPA 해외거점 입주기업 임차료 면제와 해외 거래처와 대면 미팅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에 영상회의 시스템 무료 제공, 현지 수요처 및 파트너의 기술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통한 기업별 매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NIPA가 해외에 운영하는 5곳 사무소는 미국(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하노이/호치민) 등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엔택트 기술 및 서비스를 산업화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IPA,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선정기업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기업 매스프레소, 산업 설비 고장 위험성과 잔여 수명을 예측·분석하는 원프레딕트, AI 기반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오픈엠티테크놀로지 등 1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에 과기정통부와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으로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 진출 액셀러레이팅, 이행보증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보는 3년간 최대 100억 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KTOA가 조성하는 한국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투자 유치 기회를 준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지원, ICT 법률자문단 법률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본투글로벌센터(B2G)가 제공하는 8주간 B2G 부트캠프와 제품 현지화(PMF) 컨설팅 등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 등 NIPA 해외 거점에서 제공하는 현지 전문가 보육·멘토링 등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역량 있는 ICT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조달, 해외 진출 등에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공모에는 총 138개 기업이 신청해 9.2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글로벌 역량,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NIPA, 베트남 ‘Korea IT School’ 하노이 교육장 오픈

국내 IT기업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 연계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2위 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IT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멀티캠퍼스와 함께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Korea IT School(이하 KITS)’ 교육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복합단지장(부사장), 정삼용 삼성 SDSV 베트남 법인장 및 데이터스트림즈 김영균 법인장, 에이키비나 변범준 법인장, 신상열 주 베트남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관을 비롯해 KITS 선발 교육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KITS는 삼성 멀티캠퍼스의 우수한 IT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IT기업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IT 기업은 현지 제품과 SW 개발에 필요한 베트남 우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베트남 청년은 한국 IT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KITS에 선발된 교육생 30명은 3개월간 코드리뷰, 페어코딩 등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이어 영어, 한국어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NIPA는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첫 KITS 교육장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서성민 하노이 IT 지원센터장(직무대행)은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ICT 분야에서 최근 SW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IT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IT 기술 능력뿐 아니라 한국어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택트를 기회로, ICT 언택트 수출 메카 꿈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은 올해 하반기 'ICT 언택트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고는 ▲국내 실감콘텐츠, 언택트 콘텐츠 관련 기업의 5G 상용화국 등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전시·비즈니스 로드쇼' ▲자율주행 차량통신기술(V2X) 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정보보호·물리보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보안솔루션 온라인 홍보관' 등 약 150개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 공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지원 협력 조치다.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이던 언택트 전시회·상담회·IR 행사를 연계 통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와 NIPA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각 기관의 해외 전시회, 상담회, IR 등의 해외 진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포털을 구축했다. 오는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코리아 ICT 엑스포트 포털’이라는 명칭으로 구축될 통합 포털은 선정된 기업을 하나의 포털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전시, 상담회, IR 등을 통합 운영한다. 메인 페이지에는 검색창, 행사 유형별 유입, 전시 도메인 분야별 유입 경로를 뒤 접속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국가 간 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 전시회·상담회가 필요하다”며 “국내 ICT 제품·서비스 언택트 비즈니스 채널 단일화로 K-ICT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IPA, 빅토리 언택트 투자라운드 개최

NIPA, IT투자협의회와 협약
빅토리 언택트 투자라운드 개최
22~25일 19개 스타트업 발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사단법인 IT투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빅토리 언택트 투자라운드'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ICT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업설명회(IR) 개최, ICT 투자플랫폼 구축,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빅토리 언택트 투자라운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19개 스타트업이 29개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는 행사다. NIPA의 '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친 50개 기업 중 VC가 1차 선별한 기업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신진호 IT투자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회원사의 ICT 투자 규모는 5,700억 원이었지만 올해 유망 기업을 발굴해 1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투자라운드를 개최해 ICT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IPA, 2020 신남방 에듀테크 온라인 개최

‘2020 에듀테크 신남방 비대면 로드쇼’ 이틀간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진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이틀간 ‘2020 에듀테크 신남방 비대면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신남방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내 유망 에듀테크 기업과 현지 바이어 및 파트너를 연계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로드쇼에는 △㈜엠엔지이엔티 △㈜와이즈업 △㈜웅진씽크빅 △㈜원즈 △㈜로보라이즌 등 18개 기업과 신남방국 바이어 40여개 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선 국내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베트남, 태국 등 현지 교육기관, 교육기자재 유통사와 관련된 바이어들과 사전 매칭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 교육용 로봇 등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공개된다.

NIPA는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비롯해 참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비대면 마케팅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감형·체험형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로봇틱스 등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IPA, 2020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온라인 계약식 개최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성과 공유... 알체라 등 8곳은 양해각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국내 ICT 중소기업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2020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온라인 계약식 및 성과 공유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지난 8월부터 해외 수출 역량 및 진출 수요가 있는 국내 ICT 기업 48곳을 발굴해 홍보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신규서비스 개발 및 비대면 상담장 운영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4개국과 러시아, 우주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 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기원테크 △아이도트 △웅진컴퍼스 △알체라 △링크플로우 △테크하임 등 ICT기업 6곳이 참여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총 1,080만 달러, 7건의 공급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링크플로우 △알체라 △ESE △웅진컴퍼스 △기원테크 △호두랩스 △테크하임 △아이도트 8개사는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관제, 원격교육, AI의료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해 ‘해외 수요 맞춤형 ICT 서비스 개발 및 해외 공동 진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맺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ICT 기업들이 파트너 발굴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및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우리 ICT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IPA, 해외 선진기술교육 워크숍 개최

8i, 픽스토프(Pixotope) 등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대면 워크숍 및 현장 실습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디지털콘텐츠 현업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암 K-실감스튜디오와 판교 가상스튜디오에서 ‘해외선진기술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암 K-실감스튜디오와 판교 가상스튜디오에서 번갈아 진행되는 본 워크숍은 상암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실감콘텐츠 제작소인 ‘K-실감스튜디오’와 판교에 위치한 ‘가상스튜디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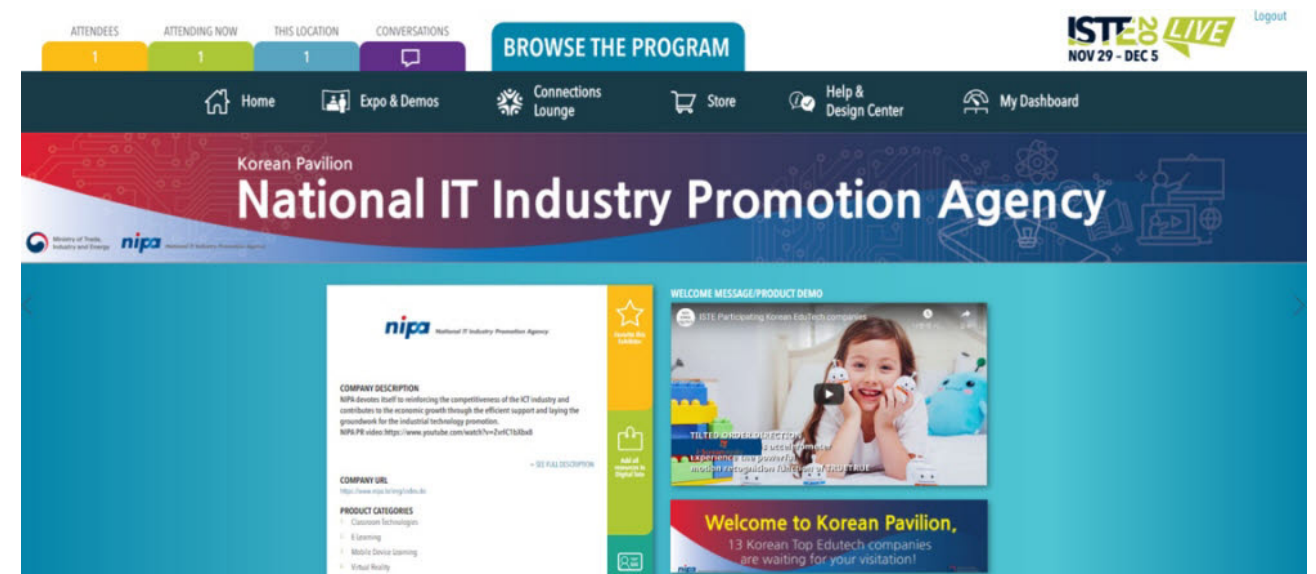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페이스북(오콜러스), 엔비디아, 에픽게임즈, USC-ICT 등 실감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대면 워크숍 및 현장 실습을 통해 현업인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쇼핑△유통△커머스와 △교육△이러닝 등 실감 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두 분야로 각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K-실감스튜디오에서 볼류메트릭 객체 제작·입체 영상을 생성하고 이틀날 가상스튜디오에서 가상 배경 합성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 교육일 첫 번째 세션은 ‘기초기술 워크숍’으로 해외 전문가와 수강생 간 실시간 연결을 통해 각 스튜디오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구동 원리와 기능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응용기술 워크숍’으로 선도기업의 서비스 모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응용기술 교육이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은 앞서 진행된 ‘기초기술’과 ‘응용기술’ 워크숍을 바탕으로 각 스튜디오를 활용한 개별 ‘프로젝트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실감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협력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K-실감스튜디오와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26일까지 온·오프믹스와 XR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1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NIPA, 국내 에듀테크 기업 해외진출 나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NIPA)은 국내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미국 최대 교육·기술 콘퍼런스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2020’에 참가한다.

전시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미국·캐나다·유럽 등 16개 국가에서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NIPA는 기업 간 일대일 채팅과 영상 회의가 가능한 가상부스를 마련하고 △지니로봇 △로보라이즌 △케이넘버스 △렉스로보 △아이스크림미디어 △타임교육 C&P △비상교육 등 13개 유망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상부스 구축 외에도 ISTE 공식 뉴스레터 발송과 현지 언론 보도 지원 등 참여기업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NIPA는 ISTE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에듀테크 기업 해외 진출 판로를 확장하고 내년도 ‘에듀테크 코리아페어’ 행사와 연계하는 등 지속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경쟁력 있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미래 유니콘 기업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CT GROWTH 사업)에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50개사를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중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최근 3개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지원요건으로 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ICT 유망 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138개 기업이 신청하여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기술 수준과 시장성, 글로벌 역량,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최대 100억원 신용 보증… 글로벌 현지 진출 등 패키지 지원

인공지능 기반 수학 문제풀이 에듀테크 기업 ‘매스프레소’, 산업설비의 고장 위험성과 잔여 수명을 예측분석하는 ‘원프레딕트’,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오픈엠티테크놀로지’ 등 ICT 분야 혁신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이행보증 지원, 법률자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조성하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투글로벌센터가 제공하는 8주간의 ‘B2G 부트캠프’와 제품 현지화(PMF, Product-Market Fit)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 강화 지원도 받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거점(미국 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해외 IT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현지 전문가의 보육멘토링 등 3개월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SGI 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원, ICT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서비스 등 다방면의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역량 있는 ICT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자금 조달, 해외 진출 등에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 선도할 인공지능융합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2021년도 산업 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사업으로 2025년까지 AI 융합인재 1만 9,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1,800여 명의 AI 융합인재를 기른다.

공모는 건설·기계, 교육, 금융, 농수축산, 생활·문화, 스마트시티, 의료·바이오, 에너지 등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산업 분야와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수행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와 밀접한 협회·단체 등과 AI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산업 분야별 현황·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AI 융합인재를 양성해 산업계의 AI 도입, 융합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ICT 벤처·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정기 개최… “제2벤처 붐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 벤처투자사,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이번 달부터 ‘비대면 기업설명회(IR)’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비대면 기업설명회(IR)가 이제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주요 만남의 장이 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정보통신기술(CT)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온라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비대면 기업설명회(IR)’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상 총 4개 투자자 그룹별로 진행되는 상반기 기업설명회(IR)를 통합 안내해 정보통신기술(CT) 기업들에게 기업설명회(IR) 일정 공유를 통해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투자자 그룹별 운영기관의 주관 하에 각 기업설명회(IR)에 참여하는 벤처·새싹기업(스타트업)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나눠 ‘비대면 기업설명회’ 통합 안내
상반기 총 12회 개최 예정
투자유치·보증·판로개척까지 통합 지원

◆ 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주관으로 이동 3사(SKT, KT, LG U+) 및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 등)가 참여해 업무협력을 통해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기업설명회(IR) 일정은 4.29(목), 5.27(목), 7.1(목)이다.

◆ 대기업·기금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 대기업(삼성전자, LG CNS, 포스코, 롯데 등)·기금사(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가 참여해 협력사업 발굴 분야(대기업) 및 투자유치·보증 분야(기금사)로 나누어 개최한다. 기업설명회(IR) 일정은 4.30(금), 5.28(금), 6.23(수)이다.

◆ 국내 벤처투자사

벤처기업협회(KOVA)의 주관으로 유관 벤처기업자본(VC)(약 140개)가 참여해 투자유치를 위한 비대면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IR 일정은 4.22(목), 5.27(목), 6.24(목)이다.

◆ 해외 벤처기업자본(VC)·글로벌기업

본투글로벌센터(B2G)의 주관으로 해외 벤처기업자본(VC)·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벤처·새싹기업(스타트업)과 1:1 매칭 기업설명회(IR)를 추진한다.

이승원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대기업·투자사와 함께하는 ‘비대면 기업설명회(IR)’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업무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 일상(비대면·비접촉)이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부도 비대면 기업설명회(IR)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기반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IR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과기부, 과기정통부

8일부터 사업 운영 기관 모집 공고
1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
일반 운영기관 2곳, 총괄 운영기관 1곳 등 총 3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1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ICT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에서 일반 운영기관(2곳), 총괄 운영기관(1곳) 등 총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운영기관은 전문 강사 모집 및 양성, 수요처 모집·관리, 수요처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의 역할에 더해 디지털 전환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콘텐츠 및 사업 홈페이지 개발 등 디지털 전환 교육 구성·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은 오는 8월경 제공될 전망이다.

모집 공고는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IT 교육 분야의 급격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고용 증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27일까지 공고 진행

1등 상금 1억원, 총상금 2억원의 기회

ICT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를 위한 공모전인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의 공고가 진행 중이다.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최대 ICT 분야 창업 공모전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5월 27일(목) 15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심사를 거쳐 총 33팀의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약 5개월간의 다양한 지원을 거쳐, 12월 최종 피칭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해당 공모전은 ICT일반 및 ICT비대면, 특화 분야(AI·빅데이터, AI 반도체 등)의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과 창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이다.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ICT 기반 아이디어로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ICT 분야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는 익숙해진 ICT비대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ICT비대면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33팀 중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33팀에는 6월부터 약 5개월간 창업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전문가 멘토링,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무공간 제공(Hi-Tech Campus,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소재), 피칭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종 피칭 대회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각 상격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상 및 총 2억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 접수는 202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한 공고문과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참여 접수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마감일은 5월 27일 15시까지이다.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운영사무국인 스마트기술진흥협회 컨소시엄에 따르면, ICT기술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어, ICT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들을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스마트기술산업분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새로운 ICT 융합 분야 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지원에 대한 세부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ICT 분야 미래 유니콘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발표했다.

ICT GROWTH 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 15개의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정·지원해 투자유치 1,095억 원(해외 474억 원, 국내 621억 원), 매출액 1,532억 원(해외 76억 원, 국내 1,456억 원), 고용 창출 278명(국내 278명), 법인 설립 4건(해외 4건), 사업 제휴 35건(해외 14건, 국내 21건), 특허 출원·등록 226건(해외 37건, 국내 189건)의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는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중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최근 3개년 매출

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지원요건으로 해 탄탄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보유한 ICT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자 했다.

올해 공모에는 총 57개 기업이 신청해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 수준 및 시장성, 국제적 역량,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현지특화프로그램, 이행보증보험 지원, 법률자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조성하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투글로벌센터(B2G)가 제공하는 제품 현지화(PMF, Product-Market Fit)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거점(미국 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해외 IT지원센터 등) 현지 전문가의 보육·상담(멘토링) 등 특별 프로그램(4개월)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SGI 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원, ICT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서비스 등 다방면의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우리부의 ICT 창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5년간 지원한 스타트업이 올해 4월 유니콘 기업이 되는 등 ICT 분야에서 유니콘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ICT 유망 기업들이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IPA

본부장 팀장 인사



NIPA, 본부장 팀장 인사

정보통신산업본부 신설·조직개편
1실 7본부 36팀 체계로 새 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사진)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산업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4월 1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NIPA는 기존 1실 3단 5본부 35팀 조직에서 1실 7본부 36팀 체계로 바뀌었다.

NIPA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통신산업본부와 사업전략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정보통신산업본부는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진출 등 ICT산업 전반의 육성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 규제혁신, 대형 신사업 발굴, ICT산업 일자리 정책 지원 등 ICT 산업 진흥 업무도 총괄한다. 변상익 전 전략기획단장이 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사업전략지원본부는 기존 전략기획단과 사업지원단을 통합한 조직이다. 사업 수행 경험이 많은 인력을 보강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본부장은 홍상균 전 사업지원단장이 맡는다.

AI산업본부는 기존 산업과 AI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동력 분야를 지원한다. AI 분야 전문기업 육성, AI 산업인력 양성 등에 집중한다. SW산업본부는 SW 산업 진흥과 생태계 조성 기능을 통합해 SW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는 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 콘텐츠를 통한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하고 5G 킬러콘텐츠를 육성한다. 3D 프린팅 등 디지털제조 분야 혁신 업무도 맡는다. 글로벌ICT산업본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4개 본부는 전임 본부장이 유임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AI, 디지털헬스, 스마트 조션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신사업 발굴 및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ICT산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T 05.

신뢰받는
ICT 전문기관 실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산업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NIPA)은 AI융합산업본부와 ICT생태계본부, 싱크탱크인 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인사를 1일 단행했다. 기존 1실 2단 4본부 35팀은 1실 3단 5본부 36팀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김창용 NIPA 원장 취임 이후 수립한 새 비전 후속조치다. NIPA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지원한다. 신산업전문기업 해외진출도 돕는다. NIPA는 ICT산업 진흥 기관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5G 서비스와 정부 8대 선도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산업 체질 강화를 지원한다. 세계 신SW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새 산업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AI융합산업본부는 AI 전문기업이 가속 성장하는 최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SW산업 본부는 조선해양·정밀의료 등 신SW융합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분야 전문기업을 키우고 산업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는 5G 시대 디지털 쇼핑 등 디지털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하고 킬러 콘텐츠를 발굴한다.

ICT생태계본부는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신산업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 되도록 규제 개혁과 서비스 과정 제반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신설된 전략기획단은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 추진 국정과제 등을 점검해 보정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ICT본부는 국내기업이 국내 시장 세네 배인 신남방지역 등에 동시 진출할 수 있는 환경과 해외 가상지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AI·블록체인 등 신SW가 신성장동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전문기업이 가속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NIPA는 기업이 고속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역할에 충실하고 신성장 성과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국민 편익 증진 등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NIPA는 조직개편과 함께 AI, 블록체인, VR·AR 등 신SW분야에 전체 예산의 30% 수준인 약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 진흥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NIPA, 설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설을 앞두고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음성 향애원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NIPA는 2013년부터 매월 1회 충북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보수와 환경 미화, 기부 등을 했다. 김창용 NIPA원장은 “이번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ICT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ICT 신기술 체험 및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ICT선도 기관 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IPA, SW정책연구소장으로 박헌제 서강대학교 교수 임명

24일 임명식...임기는 3년

박헌제 서강대학교 교수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으로 취임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박헌제 교수를 임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SW 국가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 전문기관이다.

박 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솔빛미디어 대표, 두루넷 최고기술책임자(CTO), 온넷시스템즈 코리아 대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DTV 방송PD,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융합 서비스·총괄 프로그램 매니저(PM)을 역임한 SW 전문가로 평가된다.

임명식은 오는 24일 충북 진천 NIPA 본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NIPA, ICT산업 미래 10년을 위해 새출발 다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건강한 조직문화 및 지역사회 나눔 강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굿(Good) NIPA’ 캠페인 서약식을 2일 개최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굿 NIPA’ 캠페인은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업무생산성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근무문화 혁신을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시퇴근·퇴근 후 연락자제 등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한 근무관행 개선 ▲명확한 업무지시·효율적인 회의 및 보고 등 일하는 방식 변화 ▲건강한 회식, 인사·칭찬하는 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기 위한 13대 과제로 구성됐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굿 NIPA’ 캠페인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소통·공감 중심의 근무문화를 조성해 ICT·SW 산업을 육성하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조직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는 충북 진천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약 150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와 복지관 시설보수·환경미화 등의 봉사가 진행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추석 앞두고 7년째 이어온 ‘이웃 사랑’ 실천

명절음식 전달 및 안전위해요소 점검 등 이웃 사랑 실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추석을 맞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음성 향애원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명절음식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생필품과 명절음식을 구입해 전달하고, NIPA의 시설·안전 전문가와 동행해 전기·가스 설비 및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단장은 “이번 나눔으로 향애원 가족들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 하길 바란다”며, “ICT 선도 기관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ICT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ICT 신기술 체험 및 전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IPA는 2013년부터 IT나눔미 봉사단을 구성해 7년간 충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례화 된 봉사활동과 기부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왔다.

NIPA,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족초청 ICT 체험 축제 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25일 ‘충북혁신 도시 가족초청 ICT체험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 지역 주민대상 민관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진행된다. 충북 지역 어린이부터 초·중·고·대학생,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 등 일반인까지 약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3D펜으로 3D형상 만들기 ▲코딩으로 로봇 탈출하기 ▲나도 앱개발자 ▲드론 항공 촬영 ▲VR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ICT 신기술 및 DIY 메이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총 9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아동심리검사 및 부모양육자 태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부스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ICT역량으로 이전지역 주민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어린 시절 고무 동력기를 만들었던 아버지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 함께 ‘전통 글라이더’를 조립하면서 옛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PA, 2019 윤리인권의 날 선포식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이 인천 본원에서 전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윤리·인권의 날’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창용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부패척결과 함께 불공정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했다.

1부 행사에서 노사 대표는 국내외 인권규범 준수와 인권 경영 정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강제노동 금지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 △협력업체와 투명한 거래 △인권침해 사전 예방 △정보통신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등 9가지 ‘인권 경영 헌장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인권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2부 행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퀴즈시간을 마련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요규범에 대한 사례를 함께 풀어가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청렴 중요성을 새겨보는 ‘청렴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 시상식’을 열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NIPA는 조직 내 권위주의적, 폐쇄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명확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수하기 등 내용이 담긴 ‘Good NIPA캠페인’, ‘상호존중의 날’, ‘제안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윤리경영은 우리 기관 최우선 과제로 국민과 기업에 한층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NIPA, 중·고생 초청 ICT 진로 탐색 교육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NIPA)은 30일 서울 마포구 ICT콤플렉스에서 중·고등학생을 초청해 ‘ICT콤플렉스와 기술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하다’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ICT콤플렉스 공간과 기능을 활용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ICT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으로 학생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여 학생은 작가(타코 작가)와 유튜버(김성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웹툰 드로잉·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으로 직업을 체험했다.

웹툰타코 작가는 ‘웹툰작가 직업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웹툰작가로 직업을 갖게 된 배경 등을 전했다. 김성희 크리에이터는 ‘게임개바자에서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과 직업별 좋은 점과 힘든 점 등을 공유했다.

코딩과 레고 디자인 활동을 결합한 로봇 퍼레이드로 ICT 미래 기술 간접 경험과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직업 분야 진로 탐색 시간을 가졌다. 레고 마인드스톰 EV3를 이용해 기초 코딩 교육을 받았다. 레고 디자인과 퍼레이드 경연을 펼쳐 팀별 우수 작품을 평가했다. 디자인한 로봇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직접 코딩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인 1팀으로 구성해 팀원 상호간 업무를 분장하는 등 진행하는 등 팀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쌓았다.

김창용 NIPA 원장은 “미래 대한민국 중요 자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ICT·SW 기술 체험장을 마련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이해를 도와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CT콤플렉스(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14층)는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SW분야 개발자 제품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위한 각종 시설, 장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개발공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매주 네트워킹 밋업, 정기 세미나(매월 4주차), 멘토링(분기별), 해커톤(8월, 12월) 등을 개최한다. 3월 개소 이후 월 2000명 이상 개발자가 방문해 SW개발, 협업·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점 시설로 성장했다.

NIPA ICT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울랄라랩, 오투오, 에프에이솔루션 등 7개 기업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NIPA)은 ‘제2회 ICT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NIPA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낸 기업을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한 자리다. 고용의 양과 질 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 채용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이 선정됐다. 이날 NIPA는 표창장 시상에 이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상 기업은 ▲오투오 ▲버프스튜디오 ▲울랄라랩 ▲하이테크 ▲뉴스젤리 ▲아이디어콘서트 ▲에프에이솔루션 등 7개 기업으로, 모두 NIPA 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울랄라랩(대표 강학주)은 NIPA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산업IoT개발 ▲빅데이터 분석 분야 ▲머신러닝 개발 ▲산업AI 등 ICT 분야 전문 인력 7명을 신규 채용했다. 주 3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IT업계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직원 스톡옵션 계약·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투오(대표 안성민)는 NIPA ICT-문화융합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미디어 솔루션 사업 확대에 따라 최근 3년간 임직원수를 두 배 이상 늘렸다. 특히 한신대, 강원대 등의 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실무 중심의 인턴십을 진행해 청년 신입 정규직 3명을 채용하는 등, 신규 직원의 30% 이상을 청년 인력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에프에이솔루션(대표 장정열)은 NIPA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금융권 채널시스템 구축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구축 등, 비즈니스 영역이 지속적 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32명을 신규 채용했다. 명지대 직업훈련을 통해 3명의 학생을 신규 채용했으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AR·VR 등 핵심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ICT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충북광역자활센터 지역사랑 김장나눔 봉사 실천

따뜻한 온정 나눔...지역상생

엄동설한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김장김치를 마련하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국책기관들이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새빨간 김치속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정성스레 담근 김치포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행합니다. 충북혁신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6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신혜 한국소비자원 홍보팀원
“평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서툴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올해로 2번째입니다. 임직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자선기금으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 지역상생의 의미도 보탬 습니다.

이세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프린팅 산업팀원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정말 큰 보람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의 소망이 담긴 1004(천사)포기의 김치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겨우내 김치가 필요한 15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재국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장
“남보다 덜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비자원은 연말까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NIPA,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로 인정받아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가 지역·계층 간 소통으로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IPA는 11일 전주혁신도시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IPA는 VR, 코딩·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ICT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을 구축해, 진천·음성군 소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ICT체험·교육을 연 70회 이상 진행했다. ‘무한상상실’ 방문이 어려운 학교와 단체를 위해 ICT장비와 교보재를 준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NIPA는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16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신 ICT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기관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복지단체 및 임직원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ICT 신기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 단장은 “우리 기관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ICT역량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IPA는 지난 3일 개최된 ‘제1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충북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돼 인정패를 수여 받은 바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지역사회 스스로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NIPA,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활동 실시



음성향애원 명절음식 전달 및 안전위해요소 점검…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 활동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음성향애원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NIPA는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85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시설·안전 전문가와 함께 향애원의 전기·가스 설비 및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단장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나눔 활동뿐 아니라 ICT 신기술 체험 및 전문 교육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NIPA는 2013년부터 ‘IT나눔미 봉사단’을 구성하고 충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례화된 봉사활동과 기부 등을 통해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NIPA, 코로나19 극복 위해 이웃과 온정 나눈다

관내 취약계층에 원격 수업 장비 20대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NIPA는 아동양육시설인 음성향애원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개학 대비를 위한 원격 수업 장비 20대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NIPA는 사업 종료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PC 20대를 무상 기증했다. 초·중고 학생 20명이 온라인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NIPA는 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마스크 1840매와 손소독제 170개를 지원한바 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상권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회공헌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본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IPA, 진천군에 백미 2400kg 기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진천군에 백미 2,400kg(총 8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 급식 중단에 따라 판로를 잃은 지역 농업인으로 부터 구매해 진행했다.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승 NIPA 경영전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 농촌과 이웃주민에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NIPA 지역 취약계층에 마스크 1,840장과 손소독제 170개를 지원한바 있다. 지역 상권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회공헌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다. 지역 취약계층 학생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향애원’에 초·중 등생 원격수업장비(태블릿PC) 20대를 기증했다.



NIPA-진천군-진천교육지원청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8일 충북 진천군, 진천교육지원청과 8일 NIPA 본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자체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ICT 기반의 언택트(Untact) 교육 특화전략 추진 및 스마트 교육 환경 고도화 △차세대 글로벌 창의·융합 혁신 인재 양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참여 △지역민의 미래사회 대응 학습역량 제고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NIPA는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ICT 체험관, 가상현실(VR) 이동 트럭을 활용한 진로체험 활동과 교과연계 실감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맞춤형 ICT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IPA 김창용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ICT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NIPA, 충청지역 5개 공공기관 지역문제 해결위해 공동시민참여 혁신단과 맞손

‘다함께소통단’ 결성해 기관 특성 맞는 지역 사업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 등 충청 지역 5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NIPA는 충청지역 5개 공공기관 혁신 협의체인 ‘다함께소통단’이 13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공동시민참여혁신단’과 소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함께소통단’은 NIPA,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현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한국 중부발전이 참여하면서 충청지역 5개 공공기관 혁신 협의체로 확대 됐다.

이날 소통 회의를 한 ‘공동시민참여혁신단’은 지역 공무원,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위원 11명과 5개 공공기관 혁신위원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다함께소통단과 함께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생활품질 개선 ▲업무역량 공유 ▲혁신성과 공유·확산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5대 분야에서 발굴한 10개 협업 과제 및 기관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NIPA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ICT교육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생활 속 가스안전 방문·체험교육(한국 가스안전공사), 청소년 대상 진로 강의 및 신직업 체험교육(한국고용정보원), 소비자 피해예방·대응교육(한국소비자원) 등이다. 각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센터도 총괄, 운영한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화폐 사용과 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우수기업과 청년인재 매칭데이를 마련해 지역 인재 확보에 나선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실시간 무인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지역사회 악취 해소에 나서며 한국중부발전은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가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5개 공공기관과 지역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고유의 전문성과 연계한 활동을 펼쳐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5개 공공기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다함께 소통단 출범

혁신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대면 공동서명식 개최

충청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 협의체 ‘다함께 소통단’이 지역 사회와 국민의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7일 ‘다함께소통단’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비대면 기관장 공동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함께소통단은 NIPA,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중부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현안 개선을 위해 구성한 혁신 네트워크다.

이번 공동서명식을 통해 다함께소통단은 지역사회 ▲경제활력 제고 ▲생활품질 개선 ▲업무역량 공유 ▲혁신성과 공유·확산 ▲지역 혁신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0개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6월부터 다함께 소통단은 공동시민참여혁신단 소통회의(8월)등 11차례 거친 소통회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반영한 10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공동서명식에 참여한 5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상호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다함께소통단’을 운영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IPA, 제7회 윤리인권의 날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지난 27일 제7회 ‘2020년 윤리·인권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부패·비리의 사전예방 강화 △소통·신뢰·책임있는 조직문화 조성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등 부패척결과 함께 불공정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과 인권에 대한 주제로 비대면 참여 프로그램인 ‘도전! 청렴 골든벨’을 실시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즐거운 청렴생활 슬로건 공모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또한 대규모의 용역·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ICT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 직원에 배포하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NIPA는 청렴소식과 사업규정 등이 담긴 청렴소식지 ‘e-청렴정보’를 발간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해왔다.

또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가이드와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창용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윤리경영은 NIPA기관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과 기업에 한층 더 신뢰받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PA, 이전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투어링 개최

충북 지역 4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및 청사시설 투어 진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11월 1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충북 지역의 대학생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이해도 제고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충북지역대학생 공공기관 투어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투어링'은 충북일자리이음센터, 충청지역 공공기관 네트워크인 '다 함께 소통단'이 뜻을 모아 진행하였으며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통대, 서원대학교 및 충북대학교 재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4개 기관을 방문해 청사시설을 둘러보고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링에 참여한 충북지역 대학생들은 "충북지역 대학교 출신 선배와의 소통의 시간에 취업 경험담 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충북지역 공공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창용 NIPA원장은 "이번 투어링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IPA,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 희망 나눔 펼쳐

지역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IT나눔기금' 300만원 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진천군에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NIPA 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마련한 'IT나눔기금'으로 올해까지 모두 72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NIPA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활 생산 제품 서비스 구매 시 사회공헌 실적을 부여하고 우수 참여 부서에 연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충북광역자활센터와 자활생산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감염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원격수업장비(태블릿PC), 진천농산물(쌀 2,400kg) 기탁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비롯해 진천군의 'K-스마트 교육 국가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승 NIPA 경영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IPA,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우수등급 달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하 NIPA)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11월까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 공직자(내부청렴도)의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건수를 감안해 청렴도 측정 평가를 실시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는 10점 만점 점수로 산출하며 1등급~5등급까지 분류된다.

NIPA는 전국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83점(외부 청렴도 9.07점, 내부청렴도 8.05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0.04점 상승해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김창용 원장은 취임 후 ‘깨끗하고 정의로운 조직 구현’이라는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부패 방지시책과 함께 △갑질 근절 △청렴 학습 △예방중심의 청렴활동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홍상균 사업전략지원본부장은 “수년간 중위그룹에 머물던 NIPA의 청렴도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부패 사전예방과 청렴 시책을 통해 최우수 공공기관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PA,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 표창

환경부 장관 표창...중앙제어식 LED 조명 등 도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2020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감축률 우수기관 △전년대비 순감축률 상승 우수기관 △유형별 감축률 우수기관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했다. NIPA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의 50%를 감축해 목표율 대비 22%를 초과 감축하는 등 에너지 사용 효율화 노력을 인정받아 ‘감축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NIPA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원 수축열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해 심야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했고, 중앙제어식 LED 조명기기를 도입해 에너지 관리와 비용 절감을 도모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절감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IPA, 충북지역 인재양성과 정보 격차 해소 총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하 NIPA)은 이천지역 주민을 위해 진행한 'NIPA IT SCHOOL(이하 NIS)'의 ICT체험·교육활동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한다.

NIS는 NIPA 임직원의 재능기부와 ICT 강연과 주요 기술체험 제공 등 ICT·SW 인프라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 'ICT 신기술체험관'을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3D프린팅 △드론 등 4개 분야의 체험·교육을 진행했으며 모두 1,800여 명의 지역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NIPA는 'ICT 신기술체험관' 등 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대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했다.

AI, 3D프린팅분야의 온라인 학습 동영상 제작·배포하고 'ICT로 THE 스마트한 우리 동네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NIPA는 다양한 ICT교육과 체험 지원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올해 진로교육 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7월 NIPA가 기획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충북혁신도시 브랜드 과제로 선정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돼 지역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될 예정이다.

전현철 경영지원본부장은 "NIPA기관이 보유한 ICT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내년도 추진되는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PA ICT체험·교육 성과보고서는 NIPA 홈페이지 (www.nipa.kr) 지식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NIPA, 설맞이 지역상생 나눔 봉사 주간 펼쳐

지역 자활생산물 공동구매 행사 및 소외이웃에 대한 온정 나눔 활동 추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구매 및 나눔·봉사 주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NIPA는 지난 2일 지역 아동 양육 시설인 음성 향애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IT 나눔미 기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구매하여 전달했다.

또한 8일 한국고용정보원·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합동으로 '언택트로 자활기업 가자! 설맞이 기념 공동구매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가 축소된 지역 자활기업 생산품의 공동구매를 지원했다.

이어 9일 설을 맞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이천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 주변과 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혁신도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이전 지역 이웃들과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전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IPA, 장애인의 날 맞아 코로나19 취약 계층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에 보건용 마스크(KF94) 3천 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PA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2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충북혁신도시 기관 합동 봄철 환경정화 활동 전개

충북도는 20일 봄철을 맞아 충북혁신도시 각 기관과 주민이 함께 도시 내 구석구석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이천공공기관(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직원과 진천·음성군 직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도시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기관별로 동시에 정화 활동했고, 50L 쓰레기봉투 8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재수 충북도 혁신도시발전과장은 “환경정화활동은 혁신도시 이천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다.”라며 “장마철과 추석 명절에도 정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152개 공공기관, 2021년 지역발전 사업 3,353건 추진

2021년 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52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주민 지원 사업 등 총 3,353건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2021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2021년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 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3,353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43.1%)과 지역경제 기여(36.6%,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혁신도시는 금융·해양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구 동남통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양·영상·게임 등 부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 장비 지원 등을 통해 클린에너지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인 첨단 해양산업 오픈 랩을 지속 운영, 해양 신산업 발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혁신도시시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벌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역대학생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운영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유휴공간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해 대구지역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시는 전력분야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밸리 기업 기술이전·연구개발(R&D) 지원, 판로개척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전KPS는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계측설비 검교정 지원, 품질교육 지원 등 중소 기업 기술 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내식당 계약 시 로컬푸드 사용 비율 의무화, 전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용 등 로컬푸드 구매·공급 활성화에 참여한다.

울산혁신도시시는 에너지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부각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재활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은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랑의 햇빛에너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규모 300병상, 18개 진료과목, 인력 585명이 근무할 수 있는 울산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혁신도시시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구축,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 운영, 인력양성 등 실버 의료기기 메카를 조성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도내 광산업체 대상으로 국내자원산업 융자지원·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에 생태 체험·교육 인프라를 조성해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고 치악산의 유휴시설을 재생해 체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충북혁신도시시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언택트 교육특화, 5G 실감 교육콘텐츠를 개발,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대학교 등 6개 지역대학과 합동으로 수소에너지·안전실무 특론 교육과정을 개설해 오픈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북지역 내 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코칭·교육을 실시한다.

전북혁신도시시는 이전공공기관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벌인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금융 빅데이터 수집·가공, 금융 인력 양성을 지원해 금융산업 데이터 기반을 통한 금융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 규명이 가능한 전기재해분석센터(ESS 실험동)를 신축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지역 식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상담, 우수 중소기업 패밀리기업 지정·지원을 통해 상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경북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물류기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제공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해 김천혁신도시를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공개·기술이전, 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경남혁신도시는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지원공간 제공을 통해 창업과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협업형 기업지원공간(가칭 스테이션-K)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역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지진 안전 기술설명회를 운영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기획 연구를 추진, UAM 분야 신규 진입, 항공 시험인증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혁신도시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양 사업을 전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지역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세법에 대한 신고 실무 강의를 진행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인문학, 건강관리 등 서귀포 시민대학을 수탁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도서실·전시실을 운영해 미술품 전시, 홍보 공간 운영, 영화상영 등 복합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 내용의 충실성·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발전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말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와 공공기관 중점 확산 우수과제(3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 추진결과를 2021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PA, 음성향애원에 ‘사랑의 의자’ 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이하 NIPA)은 어린이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향애원의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사랑의 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아동의 건강한 독서 문화함양과 책 읽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되는 작은 도서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랑의 의자 구입비 모금은 NIPA 직원이 매달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IT 나누미 기금’으로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전현철 NIPA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린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RT 06.

기|고



5G 최초 상용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절호의 기회다.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을 ‘5G 실험장’으로 열어젖혀야

‘AI 등 SW와 5G융합 기반 다져
선도자로서 혁신 경쟁력 높여야’

‘세계 최초’에 안주하기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경쟁국도 많은 ‘디지털 정글 시대’다. 5G 시대에는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 선도자’가 돼야 한다. 추격자가 될 것인가, 선도자가 될 것인가는 AI를 비롯한 SW 융합에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쇠는 바로 SW 융합이다.

작업장이 넓고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조선소에 5G 기반으로 통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IoT, 학습 데이터와 융합시키면 지능형 안전관리·선박건조·운항관리가 가능하다. 조선·해양 같은 우리의 강점 산업에 5G, SW가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한국인·동양인에 맞는 AI 기반 정밀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응급 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국경제

2019년 06월 29일 토요일 A27면 오피니언

기고

전국을 ‘5G 실험장’으로 열어젖혀야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 5G의 무선 통신망 LTE 4G, 오늘 새벽 열었다. 8년 전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를 개척을 앞섰던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4G의 등장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모바일 서비스 기업을 탄생시켰다. 통신 인프라는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 5G 최초 상용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절호의 기회다.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지금은 ICT 제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과 농생명, 헬스케어, 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이른바 ‘DNA(Data-Network-AI)’를 접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역경제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기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산업을 단순히 ICT·SW를 융합시키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조선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으로, 충남의 융·복합 디스플레이는 소재-부품-모듈-완제품-서비스로 이어지는 완성형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경남의 기계 산업은 지식 진화형 기계 설비산업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한 없는 기술 개발 프로세스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화 지원 산업이 제공되면 해당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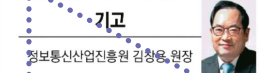
지역특화산업에 ‘DNA’를 입히자

東亞日報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B04면 경제 금융

지역특화산업에 ‘DNA’를 입히자

(Data-Network-AI)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5G를 기회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5G를 기반으로 AI, IoT, VR·AR 등 SW를 제조, 조선 등 강점 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 등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이라는 슬로건 대로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CES에서는 AI가 점령했다. 삼성전자 ‘볼리’ 등 현식 제품은 물론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스마트 팜 등 모든 산업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경쟁하듯 선보였다. 컨설팅 기관 매킨지는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0.6%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AI는 최대 1.4%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AI 학습용 데이터’, 체계를 갖춰 양성된 ‘산업 도메인별 AI 개발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중소 벤처기업이 개별로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매우 크고, 국가 차원으로도 중복 투자와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AI 가속 성장 생태계’다. AI 가속 성장 생태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정제된 AI 학습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AI 일등국가 지름길 “AI 가속성장 생태계”

반도체, ICT, 제조,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에 경쟁국보다 먼저 AI를 적용해 경쟁력을 괄목할 정도로 끌어올려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 가속 성장생태계를 통해 우리 중소 벤처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질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전자신문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002면 종합

AI 일등국가 지름길 ‘AI 가속성장 생태계’

월요논단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이라는 슬로건대로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CES에서는 AI가 점령했다. 삼성전자 ‘볼리’ 등 현식 제품은 물론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스마트팜 등 모든 산업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경쟁하듯 선보였다. 컨설팅 기관 매킨지는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0.6%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AI는 최대 1.4%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하며, 비 ICT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AI 학습용 데이터’, 체계를 갖춰 양성된 ‘산업 도메인별 AI 개발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개별로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매우 크고, 국가 차원으로도 중복 투자와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AI 가속 성장 생태계’다.

AI 가속 성장 생태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정제된 AI 학습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AI 가속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800개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반도체, ICT, 제조, 의료, 에너지 등 산업별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AI를 효율 높게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집-가공-활용-보완 과정에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물론 산업발우 인력을 AI 인재로 전환(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이 시급하다.

NIPA가 지난해부터 산업 도메인별 행진을 주도하기 위한 AI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소 10년 동안 시는 모든 산업에 기업·개인·지역 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 ICT, 제조,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에 경쟁국보다 먼저 AI를 적용해 경쟁력을 괄목할 정도로 끌어올려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I 가속 성장 생태계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질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법제도를 하루빨리 혁신해 선진화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글로벌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등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ICT, 스마트 제조, 스마트조선, 미래자동차, 디지털헬스 등 연관 산업 성패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인프라다.

우리나라 국정지표인 ‘소프트웨어 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산업으로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촉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와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터닝포인트, SW산업진흥법 개정

[특별기고] 대한민국 경제 터닝포인트, SW산업진흥법 개정

구시대적 법제도 고쳐 선진 생태계 구축해야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입력 : 2020/03/11 04:00 -- 수정: 2020/03/11 10:17 | 전문가 칼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해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 인공지능(AI)과 타 산업간 융합으로 파생되는 연관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3조9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프트웨어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동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는 기존산업 고도화는 물론 제품 지능화와 다기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장엔진(Invisible Engine)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5세대통신(5G),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본연의 영역을 넘어 제조, 의료,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스마트제조, 디지털헬스, 미래자동차를 구현하며 신산업을 창출, 국가경쟁력을 도약시키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 저하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우수 인재 수급 어려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제안 요구사항 작성, 과업 변경 시 적정대가 미지급 등의 부적절한 관행과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 부진,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법제도를 하루빨리 혁신해 선진화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글로벌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등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을 위해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초·중·고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및 국가 기반시설 등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과 소프트웨어 지적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확대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세화와 적정한 사업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 혁신에 관한 내용도 강화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ICT, 스마트제조, 스마트조선, 미래자동차, 디지털헬스 등 연관 산업 성패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인프라다.

정부도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1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ICT 규제 샌드 박스는 임시허가 18건, 실증 특례 22건, 신속처리 62건 과제를 처리해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기존 규제로 장기간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해묵은 과제 중 일부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 초 시행 2년 차를 맞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힘을 얻는 소식이 있었다. 산업계 규제혁신의 숙원인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신성장 분야 서비스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데이터의 수집-저장-결합-분석 등 실증 사업과 연관된 각종 규제를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신성장 서비스 창출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례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혁신성장 발판 '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018면 정보통신

지고

혁신성장 발판 'ICT 규제 샌드박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세계대 강대국 2대단' 상층부에 그쳤다. '국제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에 대한 평가 결과는 87위로 2018년 79위 아래 8단계에서 하락했다.

국제 샌드박스도 도입되지 적었던 지난해 2018년 10월 한미중견기업실용화협회가 44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예년 응답기업의 37.7%가 '국제개발'을 정부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1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ICT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신속처리 62건 과제를 처리해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기존 규제로 장기간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해목은 과제 중 일부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중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 법
칙금, 국제 납입고지서 등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
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로 고지하는 '모
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65억7000만원
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심야시간 귀가길에 하차지역이 유사한 택시 승객의 동승을 증가하는 '반반택시'는 2019년 서비스 도입 이후 한 해 동안 호출 건수 2500% 증가라는 성

과와 더불어 탑승객당 평균 1만2093원의 택시 이용 요금 할인 효과도 발생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 첫 해 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업모델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움으로 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올초 시행 2년 차를 맞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힘을 얻는 소식이 있었다. 산업계 규제혁신의 숙원인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신성장 분야 서비스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데이터의 수집·저장·결합·분석 등 실용 사업과 연관된 각종 규제를 규제샌드박스

아울러 특례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자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발굴되고 혁신을 대한민국 경제가 '퀵템점프' 하는 시간을 기대해본다. 봄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제조,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중심으로 시를 빠르게 융합시키는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언택트' 기조가 모든 산업에 확산하고 있어 AI, 5G,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비접촉 의료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디지털 헬스는 우리 경제에 메모리 반도체를 능가하는 새로운 신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매킨지를 비롯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술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우수한 인력 등 시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강점 산업에 시를 속도감 있게 융합시켜 제2, 제3의 반도체·스마트폰·조선·철강 신화를 써 나가야 한다. 모바일 시대에는 추격자였다면 시 시대에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과감한 투자, 시 가속 성장 생태계 구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AI 연관산업 육성해 제2의 반도체 신화쓰자

이처럼 각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ai 집적단지
 조성해 반도체, ICT, 제조업 등과 시 융합을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AI 연관산업 육성해 제2의 반도체 신화 쓰자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
cykim@nipa.kr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 한국 인공지능(AI) 도입 수준이 54%에 이르고 경제 가치는 약 540조원 추진된다면 조선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조선 시장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것보다도 전망했다. 도입 수준을 10% 더 높일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6% 추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 추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AI를 모든 산업에 융합해 지능화하는 AI 연산산업 육성이 경제성장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

AI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제조,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중심으로 AI를 빠르게 융합시키는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어159**로 '인텔의' 기조가 되는 산업에 확산하고 있어 AI, 5G, 가상현실(VR)·증강

현실(AI)과 가상 세계 ICT 융합을 통해 미래-비즈니스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제에 대모모 반도체를 공급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에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조신산 AI 융합을 통해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 산업에는 "ICT 융합 Industry 4.0" 프로젝트 투자를 보편화 하고 ICT를 생산·제조·유통, 서비스 등 모든 단계에 도입해 시간·가치·품질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2025년 물동량 100만톤 절감, 2차원(2D)으로 정보 저장 90%** 같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AI 기반 자율운행선박, 항공정비 소프트웨어, 미래 친환경산업 개발 등 프로젝트가

AI 산업, 한국판 뉴딜 성공열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오는 7월 발표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우 시의 적절하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기본 구조를 디지털 기반 위에 새롭게 구축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전 산업에 융합해 지능화 하는 AI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AI+X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도 우리 강점 산업에 AI를 빠르게 융합, AI 연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제조, 의료, 에너지 등 7개 분야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SW정책연구소에서는 2023년까지 약 1만 8,000명 AI연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AI 연관산업과 비대면 산업에 필요한 개발 인력은 연구 인력 대비 최소 10배 이상은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AI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부산·경북·충북 등지에 추가로 마련 할 예정이다. 그러나 AI 연관산업의 급성장에 대비 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확대해야 한다.

AI 산업, 한국판 뉴딜 성공열쇠

ET단상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cykim@nipa.kr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오는 7월 발표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기본 구조를 디지털 기반 위에 새롭게 구축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전 산업에 융합해 지능화하는 AI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시장조사가간 가트너에 따르면 AI 연관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2년 기준 3조9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AI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약 40배 큰 시장으로,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AI+X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우리 강점 산업에 AI를 빠르게 융합, AI 연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제조, 의료, 에너지 등 7개 분야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금융, 기업용 소프트웨어(SW) 등 강점 산업에도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언택트' 기조가 모든 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교육, 원격근무 등 비대면 산업도 AI와 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별 AI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앞에서 언급한 AI 연관시장의 성장 전망을 놓고 보면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 AI 인력 양성이 사·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만큼 중요하다. 1970~1980년대 산업화가 역동할 때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기술 인력을 양성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로 AI를 통한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AI 인력 양성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SW정책연구소에서는 2023년까지 약 1만 8000명의 AI 연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AI 연관산업과 비대면 산업에 필요한 개발 인력은 연구 인력 대비 최소 10배 이상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AI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부산·경북·충북 등지에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AI 연관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확대해야 한다.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대학생,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개발 인력을 공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AI 인력 양성과 더불어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분야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기업 인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AI 연관 산업은 빠르게 AI를 적용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AI는 전 산업에 녹아들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가능하기 어려운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ICT, 반도체, 제조, 의료, 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에 AI를 적용해서 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물론 우리나라의 명운이 AI 연관산업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경제 선도할 AI 집적단지

경쟁국이 AI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AI 연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첫째 지역별로 활성화된 특화 산업과 연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별로 숙련도 높은 인력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AI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만큼 산업 인력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AI 연관 산업은 기존 산업 프로세스, 서비스, 솔루션 등을 지능화해 생산성·사용성 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 AI 집적단지와 같은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반도체, 바이오, 제조, 조선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융합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이를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동반 성장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융합하고 산업 혁신과 계발을 담당할 AI 산업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AI 집적단지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집적단지다. 국가 차원에서 AI 집적단지 확대에 투자를 집중하길 제언한다.

국가 경제 선도할 AI 집적단지

필요논단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엑센츄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하나가 아니라 노동·자본·토지와 함께 생산의 4대 요소로서 노동생산성 저하, 경제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CT,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발해서 오는 2035년까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2배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AI가 경제와 산업구조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전 산업 지능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학습데이터 활용, AI 산업 인력 양성, 응용기술 개발 등 AI 연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집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이 AI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AI 연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첫째 지역별로 활성화된 특화산업과 연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별로 숙련도 높은 인력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AI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만큼 산업 인력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AI 연관 산업은 기존 산업 프로세스, 서비스, 솔루션 등을 지능화해 생산성·사용성 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광주 AI 집적단지'로 AI 연관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 광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헬스케어에 AI를 융합하는 집적단지를 조성해 향후 5~10년 후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헬스 등 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및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광주 AI 집적단지와 같은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반도체, 바이오, 제조, 조선 등 지역특화 산업에 AI를 융합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이를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동반 성장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과 AI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SW)기업 간 협력이 필수다.

둘째 지역특화산업에 AI를 융합하고 산업 혁신과 계발을 담당할 AI 산업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을 AI 연관 산업으로 전환하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몇 년 안에 100만명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과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해 AI 산업 인력 양성 거점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도 바로 AI 산업 인력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AI 집적단지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집적단지다. 국가 차원에서 AI 집적단지 확대에 투자를 집중하길 제언한다.

AI 반도체가 인지, 추론, 학습에 특화돼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여러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의 핵심부품이 될 것이다. 가트너 등 컨설팅 기관은 AI 반도체 시장을 2020년 약 184억 달러에서 2030년 1,179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면서 AI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와 또 한 번의 신화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최강국 자리를 지키면서 AI 반도체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응용 분야별로 AI 반도체 전문 설계 역량, IP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AI 반도체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개발-생산이 연계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응용 분야별로 특화된 AI 반도체 설계 및 SW 개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3%, GDP의 7.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경쟁력 있는 팹리스 전문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하고 분야별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요와 연계하는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AI 반도체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해 또 한 번의 '반도체 신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02면 종합

AI 반도체와 또 한 번의 신화

월요논단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대결한 구글 '알파고'는 CPU 1920개, GPU 176개를 사용했다. 이듬해 구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반도체 'TPU' 4개로 학습시간을 3분의 1로, 소비 전력은 10분의 1로 단축시켰다. AI반도체가 인지, 추론, 학습에 특화돼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여러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의 핵심부품이 될 것이다. 가트너 등 컨설팅 기관은 AI 반도체 시장을 2020년 약 184억 달러에서 2030년 1179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면서 AI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은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AI네트' 캠페인을 통해 AI와 이종점의 통합, 뉴로모픽 칩 개발을 지원하고 대만은 '반도체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통해 파운드리 부문의 강자 TSMC와 공동으로 1억3000만 달러를 AI 반도체 R&D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9월 착수했고, 10월에는 'AI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AI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혁신기업 20개와 고급인재 3000명을 양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최강국 자리를 지

키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응용 분야별로 AI 반도체 전문 설계 역량, IP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는 '하비나텔스' '훈비아어' '암테라'와 같은 혁신기업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AI 반도체 분야 전문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응용 분야별로 특화된 기술 개발, 성능 검증, 상용화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AI반도체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개발-생산이 연계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간 유기적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면 수요와 생산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중소팹리스 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응용 분야별로 특화된 AI반도체 설계 및 SW 개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AI 반도체 파급력이 높은 분야별 기업과 대학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AI 반도체 전문기업의 역량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해 분야를 마련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3%, GDP의 7.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경쟁력 있는 팹리스 전문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하고 분야별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요와 연계하는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AI 반도체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해 또 한 번의 '반도체 신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특화산업과 SW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연계하여 SW 융합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반도체, 에너지, 기계, 물류 등 지역특화산업을 D·N·A 기술과 융합시켜 SW 중심으로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를 디지털 전환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SW 융합클러스터를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적, 산업적 특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역량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SW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11개 지역에 구축된 SW 융합클러스터는 디지털 대전환의 전진기지나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듯, 지역특화산업이 SW융합클러스터로 글로벌 시장에서 질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으로 지역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한다.

SW 융합클러스터, 디지털 경제 전진기지

東亞日報

2021년 01월 05일 화요일 B04면 경제 금융

경제 이슈 & 뷰

SW융합클러스터, 디지털 경제 전진기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통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SW) 융합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경제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를 기회로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비대면 솔루션 등 SW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하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면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SW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한 노력은 '한국판 뉴딜' 아젠다도 201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특화산업과 SW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연계하여 SW융합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반도체, 에너지, 기계, 물류 등 지역특화산업을 D·N·A기술과 융합시켜 SW 중심으로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를 디지털 전환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SW융합클러스터를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적, 산업적 특색이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역량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SW융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3800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전문 인력 1만3800명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신제품·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양질의 장기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이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제조, 자동차, 의료, 조선 등 기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D·N·A 기술과 같은 SW융합이 핵심이다.

현재 11개 지역에 구축된 SW융합클러스터는 디지털 대전환의 전진기지나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듯, 지역특화산업이 SW융합클러스터로 글로벌 시장에서 질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으로 지역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한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코로나 19와 같은 신규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의 반복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측 및 관리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의 가능성을 인공지능(AI)이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 AI 스타트업 블루닷이 세계보건기구(WHO)보다 일주일 먼저 팬데믹을 예측한 사례가 지난해 주목받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AI는 종래의 전통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1~5년 동안 진행해야 하는 화학 물질 분석을 AI는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다. 코로나 19백신을 불과 10개월 만에 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AI를 활용한 결과다. AI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체계는 국민 생존권 보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요소가 됐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전문가들은 신규 감염병 발생 주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이 일상화될 수 있고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 활동도 자주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 전쟁과 AI

블루닷, AI 알고리즘으로 코로나 예측
감염병 데이터 수집·활용 생태계 구축
정부, 의료기관 협업 AI 기업 육성을

전자신문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030면 오피니언



김창용의
디지털

〈1〉감염병 전쟁과 AI

올해 초 월드뱅크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3%로 추정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의 성장률 -9.8% 이후 최저 기록이라고 한다. 지난 해 여러 차례 분쇄령을 내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을 보면 감염병 관리 성과 여부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의 반복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측 및 관리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의 가능성을 인공지능(AI)이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 AI 스타트업 블루닷이 세계보건기구(WHO)보다 일주일 먼저 팬데믹을 예측한 사례가 지난해 주목받았다. WHO가 감염병이 발생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현지 모니터링을 토대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는 반면에 블루닷은 팬데믹 발생 여부에 영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 지방자치단체의 역학 조사 데이터, 병실 상황과 같은 의료자원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집·관리하고 이를 AI 헬스케어 기업이 학습데이터로 가공해서 감염병 관리에 효과 높은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92%,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 감염병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염병 예측·관리 분야의 AI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 영상 자동판독, 데이터 기반 예측·예측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이 분야는 기업 자체로 데이터 수집·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사업과 같이 의료기관과 AI 솔루션 기업이 협업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문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전문가들은 신규 감염병 발생 주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이 일상화될 수 있고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 활동도 자주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관리·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저자소개: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어공학 박사 학위 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해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재직 당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기술상, 삼성 펠로우, 대한민국 기술대전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2018년 NIPA 원장으로 취임한 후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전 산업에 걸쳐 AI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AI를 도입하도록 'AI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 전문 기업이 수요 기업과 함께 AI 도입 효과가 큰 문제를 사전에 정의해서 AI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정부는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조·유통·의료 등 분야 총 225개 과제 지원에 810개 과제가 응모, 디지털 AI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I 바우처 사업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방아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공공은 산업계와 협력해 AI 도입 목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선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둘째 AI 전문 기업과 수요 기업은 문제 정의, AI 도입 효과 분석, 학습데이터 수집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디지털 AI 전환에 국가 경제 명운이 달려있다. AI 바우처 사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AI를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방아쇠, AI 바우처

중소기업 AI 도입 비중 8%에 그쳐
제조·에너지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AI 효과 분석·학습데이터 수집 필요

전자신문 2021년 02월 24일 수요일 030면 오피니언



김창용의
디지털

〈2〉디지털 전환 방아쇠, AI 바우처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다보스 어젠다 위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비대면화, 친환경화 등의 가속화가 전망됐다. 제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대폭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1990년대 9.0%에서 2010년대 3.5%로 중장기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내 기업에서 AI를 도입한 기업은 3.6%이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4%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매출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AI로의 전환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중소기업 AI 도입 비중 8%에 그쳐
제조·에너지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AI 효과 분석·학습데이터 수집 필요

해외 주요 국가 역시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위해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AI 실현 스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 대학과 AI 전문 기업이 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전 산업에 걸쳐 AI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AI를 도입하도록 'AI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 전문 기업이 수요 기업과 함께 AI 도입 효과가 큰 문제를 사전에 정의해서 AI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정부는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다. 지난해의 경우 제조·유통·의료 등 분야 총 225개 과제 지원에 810개 과제가 응모, 디지털 AI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사업임에도 수요 기

업은 AI 적용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았다. AI 전문 기업은 AI 솔루션 확보 사업 레퍼런스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AI 도입 효과가 높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사전에 발굴해서 사업 역뿐만 아니라 AI 전문 기업 역량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보였다.

AI 바우처 사업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 성공을 위한 방아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공공은 산업계와 협력해 AI 도입 목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선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와 융합해 미래 시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에너지·의료와 같은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과가 큰 문제를 사전에 선별, 평가해야 한다.

둘째 AI 전문 기업과 수요 기업은 문제 정의, AI 도입 효과 분석, 학습데이터 수집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AI 전문 기업은 AI 도입 목적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 기업은 목적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 기업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AI 전문 기업은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의 AI 전환 시기는 더욱 앞당겨졌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디지털 AI 전환 결과가 곧 국가 경쟁력 성취표로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보스 어젠다 위크' 특별연설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 성장을 강조했다. 글로벌 리더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끌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디지털 AI 전환에 국가 경제 명운이 달려 있다. AI 바우처 사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AI를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 사업은 감시 대상 목적물의 인식·분석·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폐쇄회로(CC) TV,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학습시켜서 지능화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육안 감시 체계를 AI 융합 시스템으로 전환한 다면 세계 각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 국경에도 적용이 가능,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국가중요시설 등 물리적 보안·안전·감시가 필요한 시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람의 시각 집중도는 20분이 지나면 5%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숙련된 인력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하면 피로도가 쌓여 집중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를 실용화한다면 우리 군은 정확하고 지속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가적으로 감시 인력도 절감 할 수 있다.

우리가 국방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전문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처럼 국가와 전문기업이 협업하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의 산업적 가치

데이터 세트 5만개... 인식을 향상
지능형 감시체계 시장 확대 추세
지역산단·주요시설 등 활용 기대

전자신문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030면 오피니언

김창웅의

디지털

트렌드

〈3〉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의 가치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지구 둘레의 37%인 1만4963km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길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매년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 경비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구절벽 및 병역기간 단축에 따라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육안 감시의 한계 등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감시체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 사업은 감시 대상 목적물의 인식·분석·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폐쇄회로(CC)TV,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학습시켜서 지능화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AI 사업은 목표에 맞는 학습데이터를 정

데이터 세트 5만개...인식을 향상
지능형 감시체계 시장 확대 추세
지역산단·주요시설 등 활용 기대

의하고 이를 수집하는 체계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부와 사업에 참여한 AI 전문기업은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진행해 사업 목적에 맞는 데이터 세트 5만여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통해 주야간 통합 인식률 80%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향후 사업에서는 감시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인식을 더 향상하는 것은 물론 목적물 이상 징후를 해석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획득과 해무·태풍 같은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 경제의 과학화라는 목표를 넘어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감시 대상 목적물, 이상 징후와 관련된 군(Ⅲ)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접근하거나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획득과 기술 개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전체 해안에 확산해서 적용한다면 기존 감시체계를 AI 기반의 지능형 감시체계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감사·해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기업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해안경비 시장은 2021년 29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육안 감시 체계를 AI 융합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세계 각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 국경에도 적용이 가능,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산업단지, 국가중요시설 등 물리적 보안·안전·감시가 필요한 시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람의 시각 집중도는 20분이 지나면 5%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숙련된 인력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피로도가 쌓여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를 실용화한다면 우리 군은 정확하고 지속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가적으로 감시 인력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 해안경비시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감시체계가 중요한 주요 시설 및 지역에도 활용돼 현재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새로운 AI 연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국방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처럼 국가와 전문기업이 협업하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cykim@nipa.kr

2021년 04월 27일 화요일 전자신문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년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전문인력 양성

최근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시작된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물론 제조, 물류·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판교 대란'으로까지 불린 개발자 대규모 연쇄 이동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 때문이다. 스마트 제조,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 산업에 걸린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개발자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공지능(AI)분야 인력 수급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가 제시한 '혁신 확산 이론'을 적용하면 국내 전체 기업의 50%가 AI를 도입하는 성장 시점에서 필요한 AI 인력은 사업장 수, 사업장별 소요 인력 등 산술적 계산으로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 중심으로 산업 도메인별 전문적 지식과 AI 역량을 보유한 AI 산업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전 산업에 걸쳐 가속되고 있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서 AI 산업 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에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AI 인력 수요 예측 및 육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인력양성 지원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김창웅의 디지털 창(昌)] <4>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전문인력 양성

발행일 : 2021.04.27

[울소TV] SKK, "공동 디지털 문서 작업을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6/2 생방송

최근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시작된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물론 제조, 물류·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판교 대란'으로까지 불린 개발자 대규모 연쇄 이동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 때문이다. 스마트 제조,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 산업에 걸린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개발자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공지능(AI) 분야 인력 수급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약 4만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SW와의 연관이 적은 산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력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20년 기준 국내 10인 이상 기업체 22만개 가운데 2.5% 수준인 약 5000개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가 제시한 '혁신 확산 이론'을 적용하면 국내 전체 기업의 50%가 AI를 도입하는 성장 시점에서 필요한 AI 인력은 사업장 수, 사업장별 소요 인력 등 산술적 계산으로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 중심으로 산업 도메인별 전문적 지식과 AI 역량을 보유한 AI 산업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각 산업에서 AI 개발을 주도할 AI 전문 개발자 육성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SW 인력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며, SW나 수학에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 가운데 상당수에게 AI를 무장시킨다면 인력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9년 서울 마포를 시작으로 2020년 전국 4대 권역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구축했다.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각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커리큘럼을 마련해 AI 개발자를 육성하고 있다. 산업분야별 혁신을 주도할 AI 인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시급한 지역에 거점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산업계의 중간관리자급 인력이 AI를 융합해서 산업 혁신을 리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AI 역량을 갖춘다면 공정프로세스·신서비스 개발에 혁신 포인트를 잘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전체 프로세스 리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도체, 제조, 물류·유통 등 6대 전략산업 분야 대상으로 추진한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을 올해는 에너지·금융·마케팅 등 6개 분야를 추가해서 12대 분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은 인력자원은 우리나라 전략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 AI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SW·ICT 대기업들은 자체 AI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인력 양성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SW 전문 교육기관과 AI 인력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AI 교육 바우처'와 같은 사업도 AI 산업전문인력 양성에 좋은 방법론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전 산업에 걸쳐 가속되고 있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서 AI 산업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에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AI 인력 수요 예측 및 육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인력양성 지원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기고

198

199

보도기사자료집

디지털 헬스케어는 AI 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 효과는 물론 국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AI 융합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0% 이상 성장, 오는 2025년에는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최대 5,0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가트너는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의료비용 절감, 질병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성 향상 등 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중요산업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 및 의료 기술, 정보통신기술(CT) 인프라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는 6조 4,000억 건에 이르며,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은 92%로 세계 1위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규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세계적으로 의료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반도체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의료비용,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실시간 예후 관리 등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산업계·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전문기업 육성하자

[김창용의 디지털 창(昌)]<5>디지털 헬스케어 AI 전문기업 육성하자

발행일 : 2021.05.25

f t e s g 가 가

OPC UA 기본부터 적용까지, 풍부한 적용 경험 공유 (6/29, 메디치교육센터)

미국 정보기술(IT) 건설링 회사 가트너는 최근 펠턴 '인공지능(AI) 하 이프 사이클' 보고서 2020에서 AI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5대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사이언스, 제조업, 금융업, 공공관 리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AI 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물론 국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AI 융합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0% 이상 성장, 오는 2025년에는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최대 5,040억달러가 될 것으로 가트너는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의료비용 절감, 질병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성 향상 등 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중요 산업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 및 의료 기술, 정보통신기술(CT) 인프라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는 6조4000억건에 이르며,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은 92%로 세계 1위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이에 특화된 AI 전문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AI 전문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작아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닥터앤서'가 좋은 사례다. 닥터앤서는 진료데이터,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질병을 개인 특성에 맞춰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AI 기반 지능형 의료 소프트웨어(SW)다. 부노, 이지케어 등 22개 AI 전문기업과 26개 대형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8대 질환 대상으로 21개 솔루션을 개발했다. 평균 5년이 소요되던 소아희소질환 진단을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80% 수준이던 대장암 종 판독 정확도를 92%로 높이는 등 질병 진단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에서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추진하는 '닥터앤서2.0' 사업은 12대 질환 솔루션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AI 전문기업이 정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는다면 기술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가는 '사용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사용합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사용합 의료시스템' 같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07.

기획기사



국내 강소기업, MWC에서 콘텐츠 우수성 과시



살린은 소셜 TV 플랫폼 '에픽 라이브(Epic Live)'로 관람객 눈길을 끌었다. 가상현실(VR) 기기, 실시간TV, 스포츠·공연 중계,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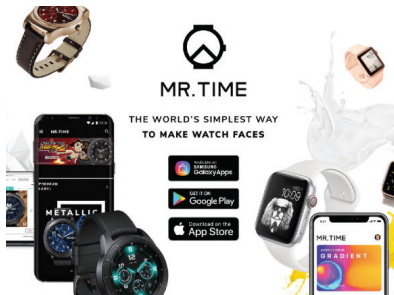
스트라티오코리아는 세계 최초 보급형 근적외선 카메라 '비온센스(Beyon Sense)'를 선보였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형태로 밀봉된 내용물, 식품 신선도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강소기업이 'MWC19 바르셀로나'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전시장 제8홀에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이하 공동관)'을 꾸렸다. NIPA는 제품 홍보를 비롯 국내외 콘텐츠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크 리셉션 운영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다. 스페인 갈탈루니아 투자청,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스페인 정보통신기술(CT) 기관 등과 업무 협력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 공동관 전시참가 기업과 현장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했고 해외 통신사, 제조사, 투자사와 현장 미팅도 주선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전시장 제 8홀에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이하 공동관)을 꾸렸다. 공동관은 제품 홍보를 비롯해 국내외 콘텐츠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크 리셉션 운영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해외 판로 개척등이 목적이다.>

공동관에는 살린, 스트라티오코리아, 이즈커뮤니케이션즈, 앱포스터, 스파코사, 오퍼스원, 엠플레이어, 정감, 마인즈랩, 모바일닥터 등 10개 기업에 참여했다.



앱포스터는 '미스터 타임(Mr.Time)'을 내놓았다.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워치 시계 디자인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세계 45만명 사용자가 이용 중으로, 50만여 개 디자인을 제공한다.



이즈커뮤니케이션즈가 전시한 '아이-프로 5(i-Pro 5)'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콘텐츠 제작 과정이 이벤트 단위로 녹화되며 웹에서 곧바로 재생 가능하다.



스파코사는 3G 기반 위치추적기 '지퍼(Gper)' 주목받았다. 지퍼를 부착한 물체나 사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 보호, 물류와 차량 위치 관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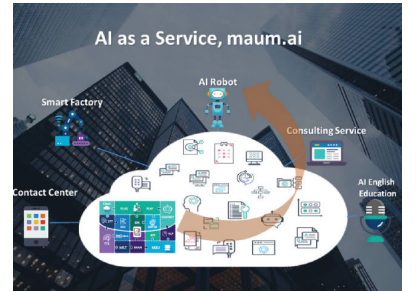
오퍼스원 '다브(DAV)'는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 다브 앱을 설치하고 다브 스마트 크래들(거치대)에 거치하는 것만으로 홈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엠플레이어는 그림동화 기반 스트리밍북 앱 '아이윙'을 공개했다. 카테고리 및 추천 스트리밍 보기, 친구에게 공유하기 등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감의 스마트 힐링조명 '오니아(Onia)' 모바일 앱을 통해 감정 체크리스트, 바이오리듬, 알람, 편기능 등 다양한 모드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개인 감정 분석 결과를 분석, 적합한 컬러를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마인즈랩의 언어·시각·사고지능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Maum.ai)'도 관심을 끌었다. AI 고객센터 서비스와 영어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개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모바일 닥터 '열나요 앱'은 한국에서만 6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히트작이다. 아이 상태에 맞게 행동요령 가이드를 제공하는 소아 열·건강관리 서비스다.

공동관을 찾은 관람객은 앱을 구동하고 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NIPA 공동관은 중소 콘텐츠 기업 개발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지원사업' 일환이다. NIPA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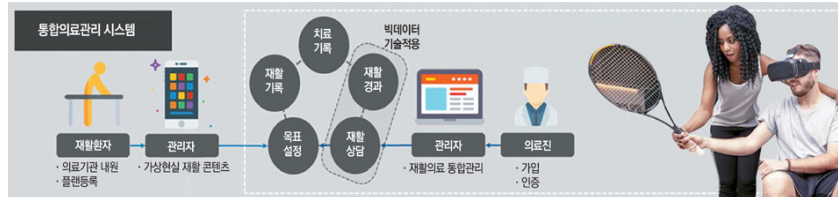
<NIPA 한국공동관 참가 기업 및 콘텐츠>		
기업	콘텐츠	설명
살린	에픽 라이브(Epic Live)	VR 기기 기반 소셜 TV 플랫폼
스트라티오코리아	비온센스(Beyon Sense)	보급형 근적외선 카메라
이즈커뮤니케이션즈	아이-프로 5(i-Pro 5)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유 앱
앱포스터	미스터 타임(Mr. Time)	스마트워치 시계 디자인 플랫폼
스파코사	지퍼(Gper)	3G 기반 위치추적기
오퍼스원	다브(DAVV)	스마트홈 보안시스템
엠플레이어	아이윙	그림동화 기반 스트리밍북
정감	오니아(Onia)	스마트 힐링 조명
마인즈랩	마음에이아이(Maum.ai)	언어·시각·사고지능 통합 인공지능(AI)플랫폼
모바일닥터	열나요 앱	소아 열·건강관리 서비스

약 먹지 않고 치매예방·재활 까지...‘디지털 신약 VR’ 뜬다

예방에 치중했던 치매 맞춤 인지재활 가능한 가상현실 서비스 개발

스트레스 심한 스포츠인 긴장감 완화시켜 주기도

관련기술 보유 국내기업들 의료기기 인증 근거 만들어



#미국 국방부는 '버추얼 이라크'라는 가상현실(VR) 솔루션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 환자들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연구진에 의해 통제된 상황에서 해당 기억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를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한다. 치료 결과 환자들의 PTSD 수치 및 불안과 우울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글로벌 기술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이 VR을 다양한 치료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작년 9월 피어테라퓨틱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디지털 신약'으로 허가해 해제가 됐다. 이 앱은 대마, 알코올, 코카인 등의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VR와 스마트폰 앱 같은 디지털 신약들이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다. 디지털 신약이란 앱이나 웨어러블, 챗봇, 게임, VR 등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기 등을 말한다. 흔히 'VR 체험'이라고 하면 게임이나 오락을 먼저 떠올리지만, 앞으로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예로 든 트라우마 극복은 물론 치매 예방과 인지 재활, 스포츠재활 등까지 급속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지재활이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마비가 발생한 환자나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VR로 특정 상황을 체험하면서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스포츠재활이란 신체 마비 환자들이 VR로 노 젓기 운동, 사이클 등을 하면서 운동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디지털 치료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임상 검증과 판매 허가, 출시 이후 판로 확보다. '디지털 신약'이라는 이름처럼 의료기관과 연계가 필수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인지·전정·심리 재활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재활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의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치매 예방 VR 콘텐츠의 경우 전남도 일부 치매예방센터에 납품할 길도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치료제가 없는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다. 발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병세 악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 초기 치매 증상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은 5년 이내에 치매 판정을 받는다.



사진설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맞춤형 가상현실 인지재활 서비스 '티온플러스'. [사진 제공 = 휴먼아이티솔루션]

휴먼아이티솔루션은 이런 환자들에게 맞춤형 가상현실 인지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온플러스(Tion Plus)'를 개발했다. 티온플러스는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지기능 향상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 일반 노인과 뇌졸중, 편측 무시 뇌졸중을 겪고 있는 환자 총 22명을 대상으로 몰입감을 조사한 결과 약 85%('매우 그렇다' 45.5%, '그렇다' 4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재활 목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7.3%가 '매우 그렇다', 5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봉두 휴먼아이티솔루션 대표는 "임상 등으로 검증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치매예방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돌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R을 활용하는 재활 관련 기업 모두가 비슷한 처지"라며 "이번 컨소시엄 덕분에 반복 학습을 통한 치료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티온플러스는 전자부품연구원서 품질평가 인증을 받았고,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는 스포츠선수들의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VR 심리재활 서비스도 있다. 경기 전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헤드셋(HMD)과 스마트밴드를 착용하고, VR 심리 콘텐츠 체험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원리다. 토즈가 개발한 '액티브 앤드 힐링 VR' 앱은 스포츠 콘텐츠 외에도 선수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이완 반응을 유도한다.

위즈너는 어지럼증 환자의 재활을 돕는 VR 전정재활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정신경염, 노인성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재활훈련 과정을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흥미롭고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어지럼증을 극복할 수 있는 '벨라비스타(BELLA VISTA)'를 개발했다. 중앙대 이비인후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및 재활의학과 교수진과 협업해 기존 전정재활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치료요법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케어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VR 인지재활 서비스 'UIN-VR'를 내놓았다. 뇌졸중 환자 단계별로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래동화 기반 역할놀이를 제공한다.

이 기업들은 14~17일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5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9)'에 참가하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의 '가상현실 헬스케어관'에서 만날 수 있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총괄 주관한 의료ICT융합컨소시엄에는 중앙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청담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등이 참여했다. 컨소시엄 총괄을 맡은 김돈규 중앙대 교수는 "VR 콘텐츠가 최근 각광받는 재활치료뿐 아니라 다른 의료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료ICT융합컨소시엄 사업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도 가상 현실 재활 분야에서 중심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디지털 신약(digital therapeutics) :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약이 아닌 앱, VR, 웨어러블, 챗봇,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활용해 치료하는 수단.

AI 생태계 키우려면 인력·데이터 확보가 우선

스타트업 요람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지난 해 인공지능(AI) 관련 벤처캐피탈이 800여 개에 달하며 의료, 제조, 금융 등 주요 분야별 다양한 기업이 존재한다. AI 성지로 불리는 캐나다는 토론토, 워트로, 에드먼튼, 몬트리올 등 5개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소, 스타트업이 밀집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 이후 AI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AI 스타트업이 다 수 등장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정보통신기술(ICT) 최고경영자(CEO) 포럼' 첫 주제로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선택했다. 주요 분야별 AI 시장을 이끄는 업계 CEO가 참석해 국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와 인재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업계는 AI 성능을 높이는 '학습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답노이드 대표는 "AI는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싸움이 자누가 빨리 양질 데이터를 확보 하느냐 시간 싸움이다"면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IPA, 1차 ICT CEO 포럼 개최 / 정부 차원 프로젝트 지원 늘리고 입사 혜택 등 제도 개선해야
분야별 데이터 표준 필요성도 제기



제 1차 ICT CEO 포럼이 경기도 성남시 글로벌R&D센터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AI 업계 대표들이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정희석 파워보이스 대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면서 "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은 데이터 수집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단위 프로젝트 등이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스타트업 데이터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표준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민우 클라우드웍스 대표는 "분야별로 데이터를 확보해도 추후에 호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의료, 교통 등 분야별로 카테고리별 데이터셋이나 표준을 만들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은 AI 관련 인력 확보가 어렵다.

신승영 에이텍 대표는 "AI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처우조건이나 인지도가 낮아 채용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AI 석박사과정을 일부 지원하고 졸업한 인력이 일정기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제도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용정 코노랩스 대표는 "프랑스 파리는 자연어 처리 기술 등 AI 관련 특정 전공자, 연구실적을 보유한 자가 프랑스 소재 스타트업에 근무하면 2년 6개월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새로운 도전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근무하길 원하는 학생도 있는만큼 이들이 스타트업을 선택하도록 프랑스처럼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개발자뿐 아니라 업무 이해도가 높은 현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

답노이드는 최근 대학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AI 관련 기술을 교육했다. 최 대표는 "AI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결국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AI를 적용하는 현장에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AI 관련 기술을 일부 습득하고 AI 개발자와 소통 하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NIPA가 주요 ICT 분야별 CEO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NIPA는 AI를 시작으로 공개 SW,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SW 안전, SW 융합 등 다양한 분야 CEO와 매달 두세 차례, 연말까지 머리를 맞댄다.

5G용 킬러 콘텐츠 발굴, 정부 전방위 지원 필요

"5세대(G) 이동통신 시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가 킬러콘텐츠로 주목받지만 시장은 아직 무르익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마련 등 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5G 환경의 킬러콘텐츠 발굴' 주제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CT)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는 인력 양성과 프로젝트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AR 기반 콘텐츠 제작과 커머스 사업을 하는 김양미 와우온 대표는 "LTE 시대에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했듯이 5G 네트워크 출현은 VR·AR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시장 성장 기대감은 크지만 여전히 업계는 인력 부족과 미스매칭, 대기업 인력 유출 불안 등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가 현장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인력난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VR·AR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까지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IPA 'ICT CEO 포럼'

5G 출현으로 전환점 맞았지만 인력 부족·미스매칭 등 불안 여전
중장기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만들고 기술-콘텐츠 기업 간 협업 늘려야



NIPA가 주최한 ICT CEO 포럼이 지난 25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렸다. '5G 환경의 킬러콘텐츠 발굴'을 주제로 토론했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용 한성대 교수는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까지 VR·AR 초·중·고급 전 수준에서 1만 8000여명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인재양성은 단기간 호흡으로 어렵고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시대 VR·AR 콘텐츠 제작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이용자환경(U),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정분야 풀림 없이 여러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R·AR 관련 기술과 콘텐츠 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호 KT 팀장은 "VR·AR 관련 300여개 기업과 협업하면 느낀 부분이 기술이 강한 기업은 콘텐츠 고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강한 기업은 기술 이해도가 낮았다"면서 "한 쪽에 치우치지 보다 서로 강점을 가진 기업 간 협업해 더 나은 서비스,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NIPA는 이달 초 ICT CEO 포럼을 발족, 분야별 기업과 업계 전문가를 만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일부 CEO뿐 아니라 VR·AR 관련 업계 관계자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100여명 이상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VR·AR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NIPA는 토론 내용을 토대로 VR·AR 관련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 한다.

전주 NIPA 본부장은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디오, 중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토론 내용을 참고해 학부생 대상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등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하고 규제 개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정책 지원 가능한 부분도 찾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등 新남방국가 SW 수출, 전략적 지원 필수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지역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수출 싹시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중소 SW·ICT 기업이 신남방 지역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현재 파트너 연결, 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신남방 ICT·SW 시장현황 및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ICT CEO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십 연결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에 위치한 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교육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를 판매한다. 3년 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지사를 설립했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백재성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제품만 준비됐다고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과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면서 “현지서 인맥 좋은 한국인이냐 사정에 밝은 사람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수출도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IPA 'ICT CEO 포럼' 현지 시장·네트워크 정보만 있어도 역량있는 파트너 찾아 수출 쉬워
협력 공동진출도 모색해야 단기 목표 아닌 중장기 정책 절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신남방 ICT·SW 시장현황 및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ICT CEO 포럼'에 참석한 업계와 NIPA 관계자가 포럼이 끝난 후 기념촬영했다.

중소기업이 현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가 어렵다.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기업이 파트너로 적합한지 찾기가 쉽지 않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는 “개별 기업이 해당 국가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현지 에이전시 정보에 의존하는데 이 역시도 허위정보가 많다”면서 “현지 파트너를 찾기 위해 왕래하는 비용 만도 적지 않다. 정부가 현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파트너십 체결 가능한 타트너를 연결해주면 초기비용도 절약해 현지 마케팅 등에 투자할 이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식 유비는 센터장은 “그동안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만 목표로 추진했고 파트너십 지원은 거의 없었다”면서 “현지 역량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지원하면 수출도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경식 ESE 대표는 “이제 단일 SW가 아니라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분야별로 필요한 SW 기업 10여개가 함께 공동수출을 추진하면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정책 추진도 중요하다. 웹케시그룹은 2013년부터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

지난해부터 일본, 캄보디아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지 IT 인력 양성 지원 기관을 설립해 현지에 600여명 핵심 인력을 배출했다. 대부분 인력이 캄보디아 주요 기업과 기관 IT 담당자로 입사하면서 한국 IT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김영채 웹케시글로벌 대표는 “해외 시장은 단기간 투자나 지원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웹케시 그룹도 4~5년간 꾸준한 투자를 진행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면서 “정부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단기간이 아닌 적어도 3~5년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NIPA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 정책을 마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남방 ICT 시장에서 업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마련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의료 데이터 수집· 활용 넓히는데 국내는 되레 역행

세계가 의료 데이터 패권 전쟁이 한창이지만 국내는 오히려 '데이터 장벽'을 쌓고 있다.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산으로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세계 추세에 역행, 스스로 장벽을 쌓는 국내 현실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제8차 ICT CEO 포럼'에서는 병원, 기업이 국내 의료 데이터 활용 현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정책·제도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의료는 임상, 유전체, 생활습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구현하는 정밀의학을 지향한다. 각종 건강 정보로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가 탄생해 보건 의료 산업 '원유'로 데이터 가치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사실상 개인 동의 없이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연구 목적으로 병원과 기업은 비식별 정보 활용이 확대되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김현준 뷰노 이사는 “4년 전 창업 초기에는 오히려 병원과 데이터 공유도 활발하고 협력을 많이 했다”면서 “최근 병원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지하면서 협력 채널을 줄이며, 시민사회단체도 기업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NIPA 'ICT CEO 포럼'
임상·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는 맞춤형 치료 '정밀의학' 구현 핵심

국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 잡혀 활용·공유 명확한 기준 확립 어려워 스스로 장벽 쌓는
규제 개선 시급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에서 열린 '제8차 ICT CEO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정택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사이언스ICT센터 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간건인데, 아직까지 국내 병원 중 위반 사례가 없어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면서 “의료정보를 활용해 산업화가 됐더라도 만약 정보를 제공한 환자가 소유권 혹은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면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은 자국 내 의료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계 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주장까지 한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IT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세계 데이터 패권을 노린다. 우리나라도 패권 경쟁에 동참할 무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데이터를 품고만 있는 상황이다.

항히 이지케어텍 부사장은 “병원은 개인정보가 가진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이득에 대한 주도권은 놓치고 싶지 않아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미국 주도로 논의 중인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올해나 내년 중에는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는데, 국내에서 사용조차 어려웠던 데이터를 애플 등 글로벌기업이 사용하도록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과 제한 등을 명확히 명시한 제도,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병원이 데이터 장벽을치고 내부 전투만 준비하다가는 데이터 주권 자체가 위협 받는다.

이상헌 고대의료원 P-HIS사업단장은 “현재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업이 다르게 사용했을 때 병원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여서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면서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건강정보기본법 등을 신설해 합당하게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용 NIPA원장은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한 영역”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유망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AI 접목 사례 초산업 확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전(全)산업에 지능정보화사례를 확산해 인공 지능(AI) 연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AI 생태계 관점에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AI 기반 인프라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전상현 마인즈엔컴퍼니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AI 기반 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 12차 정보통신기술(ICT) CEO 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이 국가 차원에서 AI 대책을 추진한다. 독일은 AI 정책 지원을 위해 △연구 △자금지원 △산업 활성화 등 12대 분야로 나눠서 전략을 마련했다. 정치, 비즈니스, 과학, 시민 사회 등 포괄적 자문과정을 거쳐 AI 전략을 개발한다. 일본은 AI 사회 구현을 위해 △복지(건강, 의료, 돌봄) △농업 △국가 안전·재난 방지 △교통 인프라·물류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 AI를 활용한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전 대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도국은 AI 높은 잠재력에 앞서 주목하고 국가 차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산업 분야가 AI 적용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경쟁력 있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AI 접목 사례 초산업 확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NIPA, 12차 ICT CEO 포럼 美·日 등 국가 차원 대책 추진 활발

韓, 초기 단계... 경쟁력 강화 숙제

수요·개발 기업 컨소시엄 늘리고 자금·기술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NIPA 제 12차 ICT CEO 포럼에서 김창용 NIPA 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전 대표는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공향안전 안면추적시스템 사업’ 등 수요기업과 개발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안전 분야 등에 AI를 접목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초기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자금·기술 등 AI 생태계 지원도 필요하다. 전 대표는 “개방형 인공지능 경진대회’처럼 챌린지 형태 스타트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도 효과적”이라면서 “NIPA ‘고성능컴퓨팅지원’과 같은 인프라 사업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반도체·안전·법률·의료 등 AI 주요 산업계 종사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AI 기반 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영우 네패스 전무는 “이미지, 음성 등 데이터 별로 표준 포맷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표준만 있으면 어떤 데이터라도 표준에 맞춰 데이터 학습이 가능해 산업별로 AI 기반 데이터셋 마련이 쉽고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찬 이투온 대표는 “AI 지원사업이 국내서만 머무르지 않고 NIPA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 진출까지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성공 가능성 있고 정교화 된 모델은 글로벌로 진출할 경우 시너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영업기밀, 저작권, 특허 등을 담당하는 법무팀이 없고 대부분 기술개발·사업화에 바빠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면서 “AI 확산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부분은 특허청 등과 공조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기업 스스로가 풀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산적한 규제 문제나 데이터 포맷, 데이터 공유 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 AI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까지 진출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W, 개발단계부터 안전·신뢰성 확보해야

“소프트웨어(SW) 안전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관련 인력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 SW 개발부터 테스트 등 전 단계에 SW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한찬희 대아티아이 이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SW 안전 확보 및 안전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ICT CEO 포럼’에서 SW 안전 인력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아티아이는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한다. 철도 분야에서 안전은 필수다. 철도에 탑재되는 시스템 SW도 마찬가지다. 한 이사는 “SW 안전 요건을 충족하려 해도 실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즉시 실무에 투입할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 CEO 포럼

美·英 등 주요대학 별도 과정 운영

국내서는 인력 부족 현상 여전

공공 주도 아카데미 운영도 해법

진흥법 통과, 산업 기폭제 될 것



NIPA 주최로 열린 ‘ICT CEO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맨 오른쪽)가 업계 관계자와 ‘SW 안전 확보 및 안전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자동차 분야도 SW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W 안전 확보가 필수다. 자동차 SW를 개발하는 오비고 한두현 이사는 “자동차는 SW 안전이 가장 떠오르는 분야인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사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력을 수급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대학에서 SW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는 SW 안전을 별도 과목으로 지정했다. 영국 요크대학은 SW 안전을 석사 과정으로 개설했다.

권기현 경기대 교수는 “SW 안전 관련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대학에서 별도 커리큘럼을 마련해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실무에서 필요한 SW 안전 요소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나 아카데미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현 한국SGS전문위원은 “공공기관에서 ‘SW 안전 아카데미(가칭)’ 등을 운영해 학계와 기업 사이에서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수료증 등을 부여해 공인 받은 인재가 기업에 바로 투입되도록 연계해 주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안전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는 “SW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등 주요 산업 필수인 상황에서 SW에 기치 못한 오작동은 인명, 재산 등 커다란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각종 스마트 시스템에서 SW 안전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SW 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SW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신설했다. ‘SW 안전 기준’과 ‘안전 전문가 지정’ 등을 담았다.

민병수 NIPA 본부장은 “SW 진흥법이 통과하면 SW 안전 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중기 성장 위해 ‘정부 지원 실증사업’ 확대를

“인공지능(AI)업계 인재가 모이려면 AI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성장, 성공하는 사례가 등장해야 한다. 해외는 정부 지원 실증사업이 많다. 국내도 AI 스타트업, 중기가 성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 AI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향후 해외까지 진출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진희경 날비(임베디드 디러닝 솔루션)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AI 융합 산업 미래와 AI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 16차 정보통신기술(ICT) CEO 포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 안면인식 AI 스타트업 센스타임은 수천개 카메라로 수집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중국 정부는 센스타임 외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중국 AI 기업은 실증사업에서 실력을 확보, 해외로 진출한다.

진 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본사 관계자를 만나면 중국 AI 스타트업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실증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사업을 전폭 지원하면서 중국 AI 기업 기술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 덕분”고 말했다.

NIPA, ICT CEO 포럼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지원도 필요

AI 강자 등 공유로 전문 인재 확보

인재→창업→고용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AI 융합산업의 미래와 AI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 16차 정보통신기술(ICT) CEO 포럼에서 진희경 날비 대표(왼쪽 두 번째),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네 번째), 김창용 NIPA원장(//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포럼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 법무부는 2022년까지 440억원을 투입, AI식별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실증, 검증 지원 사업을 진행,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NIPA는 향후 국내뿐 아니라 신평방지역 등 글로벌 시장까지 동반 진출을 기대한다.

진 대표는 “이번 NIPA 사업처럼 실증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동반 진출할 가능한 모델을 만들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 상황을 살펴 진출 가능한 국가에 국내 AI 스타트업, 중기가 진출하도록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다” 말했다.

AI 수요가 높아지면서 AI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도 AI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핵심 AI 인재 채용이 시급하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분야는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도화된 영역이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내 재교육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중기 종사자가 국내 유수 대학 AI 강좌나 프로그램, 외부 공개 강의 등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면서 AI 융합 교육 필요성도 높아진다.

전상현 마인즈앤킴퍼니 대표는 “AI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메인 지식이 있는 인재가 AI 기술력을 습득해 현업에 필요한 AI를 개발하는 구조도 중요하다”면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의료 등 도메인별로 담당자가 AI 기본 지식을 확보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보편화된 AI 교육도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용 NIPA원장은“‘인재양성→창업·기업 혁신 지원→기업성장·고용창출’ 선순환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AI인력 10만명 양성을 목표 하는 등 AI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면서 “스타트업, 중기가 개발한 좋은 AI 기술을 시도해보는 실증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삶의 질 높여줄 VR·AR... 사업 단계별 정부 지원 필요

#어반베이스(대표 하진우)는 인테리어 업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년 반 만에 전국 아파트 도면 85%를 3D 입체 화면으로 구현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D 도면 위에 가구, 벽지 등을 가상으로 배치, 구현한다. 원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VR, AR 기능을 활용해 가상 배치도 가능하다. 원하는 상품은 앱에서 바로 구매한다. 플랫폼 연간 거래 금액만 1500억원에 달한다. VR·AR 인테리어로 업계 새로운 플랫폼과 거래 장터를 구현했다.

#올림플래닛(대표 권재현)은 부동산 VR 시장을 개척한다. 견본주택을 VR 영상으로 제공, 직접 현장 방문해 매물을 보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도 VR로 옮겼다. VR로 모델하우스 내부와 외부, 단지투어까지 가능하다.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진출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VR·AR 콘텐츠 시장이 주목받는다. 콘텐츠 중심 개인용 시장(B2C)뿐 아니라 VR·AR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용(B2B) 시장도 성장한다. VR·AR B2B 기업은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급성장중이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로 열린 ‘제19차 정보통신기술(ICT)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참석한 VR·AR 스타트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동욱 지이모션 대표는 “페이스북, 인텔 등 글로벌 대형 기업이 VR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을 확실히 이끌 제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이 시장 승자가 없는 만큼 꾸준히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VR은 콘텐츠와 기술 모두 중요하다”면서 “시뮬레이션 등 원천 기술 확보한 기업에전폭적인 지지와 콘텐츠 디지털화에 정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보다 스타트업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과 계기를 제공하는 환경 조성이 효과적”이라면서 “VR 관련 액셀레이터 등을 초기 창업자와 연결해주면 창업가 견문을 넓히고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VR 등 신기술 저변 확대도 중요하다.

히지태 D3D 대표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많지만 이후 단계 지원은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유통까지 연결하는 단계별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익수 아이미다인 대표는 “VR을 어렵게 생각하면 확장이 어렵다”면서 “누구나 쉽게 VR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하도록 교육용 VR 콘텐츠나 교육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VR과 AR은 단순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삶(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유용한 기술이자 핵심 산업”이라면서 “기술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끊임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가 마련되도록 지속 관심 갖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SW안전· 신기술 등 각종 현안 논의 업계 소통창구 ‘우뚝’

NIPA, ICT CEO 포럼

올해 19회 걸쳐 주제별 포럼
AI 인력·데이터 확보 등 의견 제시
해외 진출 사례·수출 전략 공유
헬스케어·건설링 이종산업 교류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AI 융합산업의 미래와 AI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 16차 정보통신기술(ICT) CEO 포럼이 지난달 열렸다. 김창용 NIPA원장(왼쪽 여섯 번째) 과 참석자들이 포럼 후 기념촬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ICT CEO 포럼’이 올해 인공지능(AI)·공개소프트웨어(SW)·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신기술과 해외 진출 등 주요 시장 진출 전략을 다루며 업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

NIPA는 1년간 19회에 걸쳐 주제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분야별 산업계 CEO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주요 행사로 진행됐다.

NIPA는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AI △SW안전 △3D프린팅 △SW융합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공개SW △SW안전 △VR·증강현실(AR) 등 SW 주요 영역별 포럼이 열렸다. △신남방 정보통신기술(ICT)·SW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싱가포르 ICT 시장 특성·진출전략 △인도 ICT·SW 시장 진출 전략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다.

AI와 AI핵심 데이터 관련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AI 인력양성 부문에서 기업은 기존 기업 인력 재교육과 데이터 인사이트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의미 있는 실증 서비스를 발굴, 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의견이 나왔다. 데이터 확보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기업은 공공데이터만으로 비즈니스 활용이 불가, 신서비스를 위해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규제로 인해 병원·의료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제 완화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기 다. NIPA는 “관련 포럼에서 정부에서 공공데이터를 확보, 기업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AI 생태계 조성 관련 수요공급기업 매칭 등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많은 SW기업이 해외진출을 준비한다. 포럼은 해외진출 성공 SW 기업 사례를 공유, 시행착오를 줄이는 정보 제공에 주력했다. 포시에스, 싸이버로지텍, 인프라웨어 등 해외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한 기업 대표, 임원이 해외 진출 사례를 전했다. 최근 SW업계 수출 최대 관심지 신남방 지역 수출 방안도 공유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신남방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각자 경험을 나누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이종산업 간 교류도 활발히 이끌었다. SW융합 분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포럼에서는 고려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의료계와 라인웍스, 뷰노 등 산업계, 사이넥스 등 건설링 업계까지 함께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5세대(5G)통신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는 VR·AR 관련 논의도 이어갔다. VR·AR이 패션,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안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ICT CEO포럼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정책 등에 개선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새해에도 ICT CEO 포럼처럼 산업계 의견을 자주듣고 새로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술로 1분만에 코로나 진단 “D·N·A코리아” 이끄는 기업들

과기부·NIPA 4~6월 기업 선정

AI 의료영상 분석, 메디컬아이피
흑백 CT·MRI '3차원 컬러'로 실제와 유사한 3D 인공장기 제작
웨어러블 넥밴드, 링크플로우
360도 4K 카메라 '핏360',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 활용
클라우드 기반 SW, 알서포트
원격제어 관련 특허만 100여개, 재택근무·화상회의의 무료 서비스



실체 신체 장기를 3D로 구현한 메디컬아이피 SW ‘아닛델’



링크플로우가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 ‘넥스 360’

“난세에 영웅 난다”는 옛말이 있다.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정보기술(IT)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4~6월 선정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기업 메디컬아이피, 링크플로우, 알서포트가 대표적이다.

2015년 설립된 서울대병원 1호 벤처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코로나 19 폐렴병변을 1분 만에 자동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난 3월 이 SW를 무료 공개했다. 폐 전체에서 병변이 차지하는 비율(%)과 중량(g)까지 제시하는 이 SW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1일 기준 48개국 1,164개 기관이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았다.

이 SW는 메이컬아이피가 보유한 대표 기술인 메딕프로(MEDIP PRO)에서 비롯됐다. 메딕프로는 CT, 자기공명영상(MRI) 등 2차원 영상에 색을 입혀 3차원(3D) 모델로 바꿔주는 SW다. 기존 흑백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 장기 경계와 병변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 최초로 AI 의료영상 SW 분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CE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메이컬아이피는 모의 수술용 3D 프린팅 장기 제작에서도 독보적이다. 심장, 신장, 뇌, 척추 등 신체 장기 모양을 3차원으로 정확히 분해 수술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는 SW 아닛델을 의료계에 공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아닛델로 만든 3D 프린팅 신장을 활용한 수술 100여 건을 했다.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신장 종양을 실제와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구현한 3D 모형이 수술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컬아이피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14명을 추가로 채용하며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링크플로우가 지난해 KT와 함께 선보인 넥밴드(목에 감는)형 360도 카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약했다. 링크플로우는 삼성전자 사내벤처(C랩)로 시작해 분사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넥밴드 핏(FIT)360은 초고화질(UHD 4K) 영상을 360도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물론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한다. 영상통화도 물론 촬영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릴 수도 있다. 흔들림 보정, 빛노출도 자동 조절 기능도 갖췄다. 군경 등 공공보안, 산업 및 건설현장 등엔 핏 360의 다른 버전인 넥스360을 공급하고 있다. 넥스 360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비롯해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증축 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감일지구 공사, LH 김포 지구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됐다.

코로나19 창궐 이후엔 중국으로 진출했다. 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원격 검진, 원격 면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차이나 모바일 관계사와 2만 대 공급계약을 맺었다. 중국 병원 등에서 핏 360을 테스트 중이다. 링크플로우는 그동안 롯데, 일본계 글로벌 IT회사, KT 등으로부터 140억여원의 투자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첫번째 “DNA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알서포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 수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클라우드 기반 SW전문기업인 알서포트는 원격으로 회사 업무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접속해 장애나 고장을 처리해주는 원격 지원 및 제어, 화상회의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창업 이후 이 분야에만 집중해 노하우를 쌓아오다 코로나19로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난 2~4월 화상회의 서비스 리모트미팅, 재택근무 서비스 리모트뷰를 중소기업,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기간 1,000여개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4,200여 개 기업이 이들 서비스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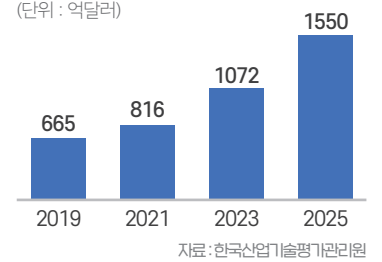
지난해 연매출 28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린 알서포트는 보유 특허가 100개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업체 주가는 지난 13일 장중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서포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에 대응할 수 있는 재택근무 솔루션을 사회에 무료로 제공해 경제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AI가 항로 알려주고 ‘IT전쟁터’된 바다 항만 창고 3D로 분석

글로벌 ‘스마트 해운’ 경쟁

英, 완전자율운항 여객선 출항
한국조선해양, AR로 항해 지원
광물원반선 호주 4회 왕복
삼성SES, AI로 항만물류 관리
5년후 첨단선박시장 1,550억佛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규모 전망치 > (단위 : 억달러)



“선박에 프로펠러 파울링(막힘)이 감지됐습니다. 이상 탐지 요청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디지털관제센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스마트선박 관련 기술이 집약된 곳이다. 300인치 대형 스크린에 ‘통합 스마트선박 솔루션(ISS)’이 적용된 60여 척의 위치와 상태가 보였다. 위성통신으로 선박 이상이 관제센터에 실시간 보고되고, 관제센터는 조치사항을 즉시 선박에 전달했다. 최소한의 연료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항로를 실시간각 추천하기도 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바다가 첨단 정보기술(IT)의 전쟁터로 떠올랐다”며 “바다에서 IT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글로벌 조선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전통 선박의 글로벌 수주량 감소,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신(新)선박 수요 증가가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맞물린 결과다.

AI가 바닷길 인도한다

한국조선해양의 ISS는 레이더는 물론 위성통신망 원격제어(MIT),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추진제어시스템(BMS), 선박식별장치(AIS), 기상해양정보시스템(MES) 등 기존에 따로 움직이던 선박 내 장비를 통합 제어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이다. ISS를 지원하는 항해지원 AI 시스템인 하이나스는 지난 4월 처음 선보였다. 하이나스는 주변 물체와 충돌 위험을 감지해 증강현실(AR)로 표시해준다. 초단파(VHF)로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기존 선박식별장치(AIS)보다 진일보한 첨단 장비다. 하이나스를 적용한 SK해운의 25만t급 광물 운반선이 한국과 호주를 이달까지 4회 왕복했다.

삼성중공업의 에스베슬 솔루션은 엔진 출력, 선박 기울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최적 경로를 선박에 알려준다. 선주들은 언제 어디서나 선박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모든 신규 선박에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의무 장착하는 e내비게이션사업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내비는 자율운항선박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다. 선박 내 각종 장비를 LTE 단말기로 한데 모은 ‘바다 위 스마트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e내비에 사용될 해상 무선통신망(LTE-M) 기지국과 단말기 검사를 이달 초 마쳤다. IMO가 지난해 관련 표준을 마련하면서 e내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뛰어들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눈앞에

스마트선박은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IMO는 △원격 제어하며 선원이 타는 선박 △원격 제어하지만 선원이 타지 않는 선박 △무인 선박 등 몇 단계 상용화 과정을 거쳐 자율운항선박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조선소 인근에서 자율운항 모형선박 이지고의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 250km 거리의 대전 제어센터에서 이지고를 원격으로 제어했다.

해상 사고의 법적 책임, 보험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자율운항선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선박의 항만 접안을 돕는 AI 시스템 개발업체 씨드로닉스의 박병덕 대표는 “자율운항선박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은 선원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부가가치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25년 1550억달러(약 1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만도 IT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트윈으로 물류 창고를 3차원(3D)으로 재현하는 기술, 항만 물류 관리, 솔루션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물류 플랫폼 첼로를 개발한 삼성SDS는 지난 2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유럽의 관문 중 하나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 물류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한정된 공간에 화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첼로 로딩 옵티마이저’, 가상현실에 실제 창고를 3D로 구현해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첼로 버추얼 웨어하우스’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율운항선박, 원격 항만관리 기술은 조선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개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연구개발비는 2018년 1,418억원이었다. 2014년 3,855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구인력은 1,738명에서 822명, 특히 출원 건수는 3,521건에서 1,766건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가 49조 8,545억원에서 68조 8,344억원으로 38% 뚝 떨어졌다.

EU “5년 내 대형선박도 완전 자율운항”

한국은 6~8m 정찰선 연구 그쳐

해외 선진국은 10여 년 전부터 자율운항 선박 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해왔다. 선체 길이60m이상대형선박을 자율운항선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6~8m 소형 정찰용 선박에 국한된 국내 자율운항 실증사업과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크다.

유럽연합(EU)은 10여 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모여 자율운항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다. 올해 연안에서 중 소형 선박을 위주로 시험한 뒤 2025년 원양 대형 선박까지 운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2030년까지 원양 선박 전면 무인화를 목표로 한 AAWA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롤스로이스마린은 2017년부터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엔 핀란드와 함께 개발한 첫 완전 자율운항 여객선 팔코의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노르웨이는 완전 자율운항 기능에 탄소배출이 전무한 적재용량 120TEU(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비료 운반선을 올해 바다에 띄울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길이 52m, 24TEU급 바지선 5척을 지난해 8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에 투입해 시험 중이다.

일본은 선박 간 데이터 통신을 최적화하는 IoT 플랫폼을 2015년 개발해 국제인증을 받았다. 심야에 식별이 어려운 장애물 등과의 충돌 회피를 위한 답러닝 기반 그래픽처리 장치도 개발 중이다.

3D프린팅 강국 만들자 배 만들고 미사일 길찾고 마스크팩 ‘뚝뚝’ 미래를 찍어낸다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이나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3D프린팅은 쉽게 말해 입체 도형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디지털 설계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D로 물체를 만든다. 따라서 별도 금형 없이도, 복잡한 형상을 정밀 제작할 수 있다. 또 여러 개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생산할 수 있다. 조립공정을 단순화하면서도 이음새가 없어 부품의 상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생산비용은 줄이고 부가가치는 높인다.

◇3D프린팅, 미래 제조업 혁신 ‘요술방망이’… 군사용 미사일, 인공뼈까지 프린팅하는 시대 왔다

3D프린팅 기술을 활발히 접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의료계다. 2018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병원들이 3D프린팅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해 수백 건의 임상결과를 내놓았다. 아직 임상단계여서 의료기기 허가나 보험수가 산정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3D프린팅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맞춤제작 가능해 의료분야 최적화 제조업 ‘시간·비용 절감’ 접목 활발

발사체 펌프 등 정밀부품 제작시대 美·獨·日 추월위해 기술고도화 필요

#지난해 7월 23세 남성 진모씨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두 개골이 함몰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재건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염증으로 함몰부위 주변 뼈가 녹아내려 자가 뼈 이식수술이 불가능했다. 진씨를 구한 것은 3D(3차원)프린팅 기술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티타늄합금소재 두개골복원용 맞춤형 임플란트를 제작해 진씨에게 적용했다. 두개골 CT(컴퓨터단층촬영) 데이터를 3D로 복원한 뒤 이를 3D로 모델링해 제작했는데 함몰부위에 정확히 들어맞아 감쪽같았다.

#방산업체 LG넥스원은 최근 유도 미사일의 핵심부품이자 미사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안테나를 3D프린팅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사일 안테나는 10개 넘는 특수 금속소재 부품으로 구성된다.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을 버텨야하기에 정밀접합기술도 필요하다. 이 방식은 생산 수율이 떨어지고 미사일 완제품의 무게와 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됐다. 3D프린팅 생산방식으로 바꾸려는 이유다. 최예운 LG넥스원 기계융합연구소 팀장은 “3D프린터로 한번에 출력하면 제작기간은 6분의 1로,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맞춤형 강점으로 의료분야 두각… 제조분야 접목도 활발

국내 제조분야의 3D프린팅 접목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의 제조공정 혁신 성과들이 가시화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협력사인 덕양산업과 이규엠텍, 링크솔루션 등과 함께 도어트림(도어 실내 측 마감부품) 생산에 3D프린팅을 접목한다. 도어트림은 15개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작은 부품이 많아 이를 3D프린팅으로 생산하면 다른 차량용 내외장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업을 맡은 링크 솔루션 최근식 대표는 “기존 사출금형을 제작하면 16~1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3D프린터로는 1~2단계로 줄어들고 금형제작이나 절삭·절삭·연마 등 과정도 사라진다”면서 “신제품 도어트림 개발에 5,6개월이 소요되는데 한 달로 줄이고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링크솔루션은 아모레퍼시픽과 3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마스크팩 제조용 3D 프린터도 개발했다. 이목구비의 위치, 얼굴 크기, 피부특성 등 개개인의 얼굴에 맞게 마스크팩을 찍어내는 장비다. 건조한 피부에는 수분함량이 많은 성분을 배합하고 여드름 등이 생긴 피부에는 진정효과가 있는 성분을 넣어 개인화한 마스크팩을 만든다. CJ CGV와는 음식용 3D프린터 연구·개발도 진행중이다.

◇발사체 산화제 펌프, 유도무기용 안테나까지 정밀부품 제작

우주항공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다. 국내 첫 소형 위성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스타코와 함께 산화제펌프는 3D프린터로 생산할 계획이다. 소형 인공위성(큐브 위성)을 500~600km 상공에 띄우는 발사체 로켓의 핵심 부품이다. 일정상공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연소를 위해 산화제를 공급해야하는데 산화제 펌프가 워낙 작고 형상이 복잡해서다. 그동안 정밀주조를 했지만 ‘누리호’처럼 대형 발사체가 아닌 소형 발사체는 펌프도 그만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해 제작이 쉽지 않았다. 이에 3D프린팅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 정밀주조와 단조, 용접판금 같은 공정을 3D폴리팅으로 대체해 내고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범원택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장은 “국내 3D프린팅은 기술적 한계와 성공 사례부족을 확산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금속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강국들이 앞서가는데 우리도 서둘러 성공사례와 기술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의료·챗봇... 시용 '데이터댐' 구축해 디지털 뉴딜 이끈다

9월의 우수사례 슈퍼브에이아이·답노이드·솔트룩스



슈퍼브에이아이의 솔루션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모습. 슈퍼브에이아이 제공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로 불린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인공지능(AI)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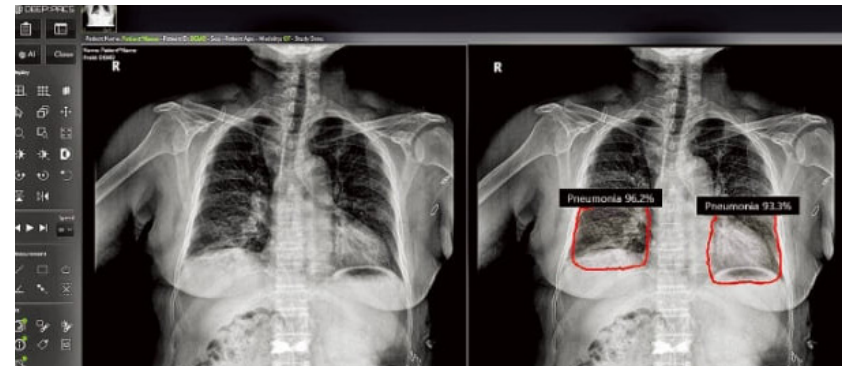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모아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민간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NIPA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한 슈퍼브에이아이, 답노이드, 솔트룩스가 대표적이다. NIPA는 지난 4월부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확대 개편했다.

데이터 라벨링 시간 10분의 1로 절감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슈퍼브에이아이는 효율적인 데이터 라벨링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라벨링은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재료로 쓰기 위해 데이터별로 정보값을 입력하는 작업이다. 과거 이 작업은 주로 사람이 맡았다.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데이터 가격이 높아진 이유다.

슈퍼브에이아이의 '슈퍼브에이아이 스위트'는 AI가 라벨링까지 도와주는 데이터 구축 플랫폼이다. 슈퍼브에이아이 스위트를 쓰면 데이터 라벨링에 드는 시간이 기존 대비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만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AI 데이터 라벨링 정확도는 99.3%에 달한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5,000만 개의 라벨링 데이터를 쌓았다. 데이터 라벨링 관련 국내 특허 1건 및 미국 특허 5건도 출원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25억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업계에선 슈퍼브에이아이가 특히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LG전자, 퀄컴, 나이엔텍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슈퍼브에이아이 스위트를 도입했다.



답노이드의 AI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으로 흉부질환을 판독해내고 있다. 답노이드 제공

의료진 시 연구 도우미

의료 AI 플랫폼 전문기업 답노이드는 의료인이 코딩 없이도 AI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AI는 의학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열쇠로 꼽히지만 의료인이 컴퓨터공학도 수준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는 게 기술 발전의 난점이었다. 답노이드의 '딥파이(DEEP:PHI)'를 쓰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의료인도 X선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의료 영상을 활용한 AI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 설립된 답노이드의 무기는 방대한 데이터다. 총 38종, 24만 8,000건에 이르는 뇌동맥류 등 의료영상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답노이드는 뇌동맥류, 폐결절, 요추 압박결절 등 총 15종 질환을 AI로 판독할 수 있는 '딥에이아이'도 개발했다. 공항 등에서 보안검색 영상을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이달 초 김포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에 시범 적용됐다.

답노이드는 AI 관련 1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총 35개의 특허를 출원해 그중 23개를 등록했다. 빅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인 대상 AI 교육도 진행 중이다.

'1세대 AI 기업' 솔트룩스 올 7월 상장

2000년 설립된 1세대 벤처 기업 솔트룩스는 국내 AI 기술 대표 주자로 꼽힌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 집중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머신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검색,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 등이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다. AI가 사람의 질문에 심층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기술과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솔트룩스의 대표 제품은 '시 스위트'이다. 자연어 이해, 음성인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언어, 시각인지 등 총 50여 가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이담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AI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 상담 등이 늘어나며 솔트룩스의 제품을 찾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현재 금융·통신·의료·쇼핑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회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다.

솔트룩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학습 데이터는 150억 건에 달한다. 음성 데이터는 2만 시간 분량이다. 보유한 데이터 중 오픈데이터, 소셜 데이터, 언어자원, 지식베이스 데이터 등 80억 건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솔트룩스는 올해 설립된 지 20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약 188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솔트룩스는 기업 보유 데이터를 공개해 지능정보 사회 구현에 기여했고, AI 서비스를 위한 국내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젠 CEO도 AI로 무장... “관리자도 데이터 알아야 품질결함잡죠”

철강부터 국방까지...산업현장서 AI 배운다

CEO·부장부터 연구원까지실무 활용하러 AI교육받아
“30년 쌓인 제조데이터 활용해 위험물질 인한 사고 예방할것”
과기부, IT기업 AI교육 지원



솔브레인 직원이 생산된 제품(Thin Glass)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다. 현재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불량률 검사하고 있는데, 이를 머신비전 기술로 대체하고 사람은 추후 모니터링만 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데이터 경제를 이끌 핵심 인재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교육기관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CT) 교육을 받아 업무에 접목할 때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산업협회를 통해 제공하는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사업’ 지원 기업을 보면 반도체와 철강, 국방, 물류 등 전 산업에 걸쳐 AI 융합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중간관리자(부장급)까지 AI·소프트웨어(SW) 교육에 눈뜨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상우 풍산FNS 대표는 한국국방기술학회에서 AI 교육 리더과정을 직접 들었다. 1984년 풍산 그룹에 입사해 방산 수출 경력만 20년이 넘는 류 대표는 “우리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다”며 “정밀유도무기에 들어가는 가속도계 센서 기술을 활용해 지진센서를 자체 개발하고, 지진 및 변위를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변위센서는 카이스트와 공동개발해 홍천과 의정부 국토관리소 비탈면, 일산 59층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에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위센서란 구조물이 충격을 받았거나 노후했을 때 변형이 있는지 계측하는 센서를 말한다.

류 대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집계하고 분석하느냐가 중요해서 KT와 다양한 SOC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해 MOU를 맺었다”며 “AI 적용 등 기술을 고도화하면 전 국토의 교량, 터널, 댐, LNG 탱크, 초고층 건물을 상시계측,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인재양성 교육도 하지만,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직원들의 AI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같은 ICT 핵심 소재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는 회사다.

구민 솔브레인 ICT전략실 이사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회사다보니 제조 데이터가 많은데 ‘하나의 그릇’에 안 담겨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회사 특성상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도 많이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데이터 관리를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브레인의 연구원은 130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화학 전공자다. 이 회사는 시뮬레이터 활용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총원하고 기존 연구원들이 시뮬레이터 값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구 이사는 2~3년 전부터 다양한 AI·SW 교육을 들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반도체협회가 제공하는 ‘AI 필수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링’ 수업을 들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외부와의 연결’”이라며 “임원들이 앞장서서 세미나도 듣고 교육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현업에서 가장 혁신을 망설이는 이유가 ‘돈이 드는 데 실패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인데, 개념증명(POC) 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결과를 따라 전략을 수정하면서 혁신 범위를 넓히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의 의지다. CEO가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한 추진의지를 보일수록 성공확률이 높다고 구 이사는 강조했다.

KG동부제철은 당진과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가전 등에 들어가는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회사다. 데이터 활용 역량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스마트팩토리로 변신하고 있다. 김진광 KG동부제철 설비부장은 “회사 차원에서 AI·SW 역량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철강협회에서 AI 역량 강화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화질 CCTV를 활용하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품질불량이 어떤 결함인지 파악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김 부장은 보고 있다. 그는 “예전에 비전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중간관리자들은 현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AI 재교육을 받으면 바로 큰 방향성이 보이고 현장에 적용할 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2019 정보화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AI 기술·서비스 이용률은 0.6%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년 초 국내 기업들의 IT·SW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내 임원급 최고 정보기술책임자(CIO)가 존재하는 기업은 2.5%에 불과했고 임원급이나 직원이 겸임하는 회사를 다 합쳐도 26.2%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IT산업에서 AI를 현장에 적용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비IT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해 1,8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에도 1,800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SW산업육성- 인재양성 통해 ‘디지털 전환’ 이끈다

올해 세계적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비대면 시장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제조업은 물론이고 물류, 교육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육성과 SW 인재 양성을 필두로 하는 자생적 SW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SW산업 발전협의회 소속 16개 지역 SW 진흥기관들은 지역 SW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이고 시민 참여와 SW·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 등을 운영 중이다. 다음은 지역에서 필요한 SW 인재 양성과 SW를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성과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전국 16개 지역 SW진흥기관 ‘SW 생태계 구축’ 활기

< 8개 지역별 SW산업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공 배달앱 개발, 도내 관광자원 가상·증강현실 콘텐츠화	
경남테크노파크	지능형 콘텐츠 큐레이션 AI 교육 플랫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어 영상 문자 서비스, 저상버스 서비스 개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비대면 방식 SW미래채움사업으로 SW 저변 확대	
인천테크노파크	지역 아동 안전·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인천 SOS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J-디지털 교육 벨리 구축 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국 ICT융합 공모전, 중국아세안 바이어 비대면 수출상담회	
포한테크노파크	시민 참여로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하는 경북 SOS랩	

가나다 순



인천테크노파크의 시민참여 SOS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 로봇 창의융합 코딩 캠프

SI교육 듣고 창업 준비까지 올해 전문인력 6,600명 양성

은퇴자·경단녀 위한 재교육

서울·부산·경북·대전·광주
정부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누구나 AI·블록체인 교육받아

<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개요 >		
운영기관(권역)	위치	주요 프로그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울)	서울 마포구공덕동 프론트원 6층	△온·오프라인 세미나, 기술멘토링 △수준별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전문 교육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 울산, 경남)	부산 해운대구 센텀벤처타운	△수요 ICT 기업 견학, AI취업박람회 △조선해양,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제조 산업과 연계
포항 테크노파크(강원, 경북, 대구)	경북 김천혁신도시 지택지식산업센터	△의료, 관광(강원), 소재, 섬유(경북), 자동차, 스마트 시티(대구) 산업과 연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 전라, 제주)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문화콘텐츠(광주), 농생명, 금융(전주), 농수산, 트랜스포트(전남) 산업과 연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전, 충청, 세종)	대전 유성구 대전 세종연구원	△로봇지능화(대전), 반도체(충북), 디스플레이(충남), 의료정밀(세종) 산업과 연계

은퇴자나 경단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SW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안랩이 운영하는 안랩아카데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과정과 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4대 권역(부산, 광주, 대전, 경북)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는 물론 예비 창업자와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5년까지 총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아 4대 권역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했다. 이들 네 곳에서 올해에만 지역 핵심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AI·SW 전문인력 6,600여 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오프라인 개발 공간은 물론 고성능 PC, 서버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마포구 프론트원 건물에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다소 줄었으나(월평균 이용자 2019년 1,700명, 2020년 1,500명), 방역 및 시설 개선을 통해 SW 개발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7년 차 개발자였던 조오윤 씨(43)도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과정을 듣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씨는 “개발자로 오래 일했지만 AI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수업도 듣고 비즈니스 모델도 발전시키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았다. 관심 있는 경단녀들이 많을 텐데 온라인 수업도 많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두석 씨(62)는 코딩 선생님이로 은퇴 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다. 노년층에겐 스마트폰 활용법을, 시니어와 경력단절여성들 에겐 인공지능(AI)을 가르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딩교실도 운영 중이다. 한 달 수입은 150만~200만원 정도 된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솔제지 전신인 전주제지와 한솔그룹에서 30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는 2017년부터 무료 교육과정을 찾아다니면서 코딩과 AI를 배웠다.

고씨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면서 더 공부하고 싶던 차에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 과정을 알게 됐고 AI 전문가 과정을 들었는데 제가 최연장자였을 것”이라며 “이 과정을 수료한 덕분에 아이들에게 AI를 접목해 가르칠 수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SW가 지역현안 해결사로... 시민 참여형 '솔루션 개발' 성과

과기정통부·NIPA, 5개년 사업 추진

지역민·지자체 주도 '바텀업' 방식으로 재난 대응서 대기질·교통편의 개선 등

문제 발굴·SW 활용까지 스스로 해결

전국 8개 랩서 36개 솔루션 개발 나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SW를 활용해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SOS랩이 주목받고 있다. SOS랩 시민연구반의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도출 활동 모습.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소프트웨어(SW)로 해결하는 '사회문제해결 실험실(SOS랩)'이 지역 곳곳에서 의미있는 활동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고거 포항과 경주 지진을 교훈삼아 '지진피해예방 SOS랩'을 운영, 소규모 지역에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소싱 기반 지진조기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진계 센서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지진 데이터 분석과 경보 발령이 가능한 현장경보기를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진계 센서와 현장경보기를 기반으로 지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경보 발령할 수 있다. 경북도는 내년에 포항시청과 경북대에 시범구축해 효용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버스 승객 밀집도 완화 SOS랩'을 운영해 출퇴근길 버스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SW를 개발했다. 버스 도착시간, 노선 정보 부족 등으로 특정 버스에 승객이 몰려 혼잡하고, 이로 인한 대중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 SW는 버스 도착 전 혼잡도를 '매우혼잡·혼잡·보통·여유' 4단계로 세분화해 모바일과 정류장 DID로 제공한다. 승객 분산 효과는 버스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승·하차 시간 단축으로 전체 버스의 정시 운행 체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청각장애인(농인) 애로 해소 SOS랩 운영으로 '농인 정보접근성 보장 기반 구축 시스템'을 개발, 이를 특화민원 서비스로 도입해 대전시 농인에게 재난안전 관련 문자를 수어영상으로 변환해 제공 하고 있다.

SOS(Solution in Our Society)랩은 지역사회 문제를 SW를 이용해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이자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해 지자체와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국비를 지원하는 'SOS랩 구축 및 SW 서비스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경북, 대전, 전북 3곳을, 올해는 경남, 부산, 인천, 전남, 충북 5곳을 선정하고 SOS랩 구축과 SW 서비스 기획·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지자체는 지역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SOS랩을 구성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난제를 발굴한다. 이어 SW와 SW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개발해 발굴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발굴과 분석, 문제해결 SW개발과 서비스 구현, 현장 적용 등 기획부터 실증까지 전 과정을 지역민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바텀업 방식이다.

NIPA와 지자체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전국 8개 SOS랩에서 36개 SW 및 SW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미 몇몇 SW 서비스는 개발 완료해 적용되고 있다. 재난 대응에서 대기질 개선, 교통 편의 향상, 장애인 권리 향상, 생활 쓰레기 교육까지 솔루션도 다양하다. SOS랩이 지닌 의미처럼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수도 수백명에 이른다.

SW 미래채움 사업, 청소년 5만5,000명에게 양질의 SW 교육

강원 등 전국 10개 지역 사업 조성

다양한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SW강사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서 소프트웨어(SW)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과정에 SW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SW체험시설, SW강사 등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역 간의 SW교육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W미래채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 기술 체험학습 가능하도록 센터 확대

SW미래채움 사업의 핵심은 SW교육거점 구축이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상대적으로 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10개 지역(강원·경기·경남·경북·울산·인천·전남·제주·충북·충남)에 SW미래채움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자생적인 SW교육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SW교육강사도 양성한다. SW관련 기본 지식 및 소양 교육뿐 아니라 ▶강사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데이 ▶강사와 학생의 SW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수업과정안 공모전 ▶코딩프로젝트 챌린지 등을 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1,500여 명의 SW강사가 탄생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자 등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전국 5만 5,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양질의 SW 교육을 시행했다"며 "SW교육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역 SW미래채움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양한 SW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10개 지역 SW미래채움센터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SW인재를 키우고 있다.

우선 강원센터는 도내 고교 SW동아리를 중심으로 SW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W동아리 발굴 및 운영 ▶SW해커톤 캠프 개최 ▶SW프로젝트 공모전 운영 ▶SW체험행사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인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SW를 통해 시각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센터는 도교육청에서 개최하는 '2020 경남 진로체험한마당(꿈에 로그인하다)'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을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진로체험교실은 미래채움 SW강사 2인이 사전 접수된 경남 소재 중학교에 직접 방문해 SW꿈나무들에게 SW와 관련된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2월 개소하는 경기센터(광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달 착륙(Loan Sho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969년 달 착륙은 꿈을 현실로 만든 인류의 위대한 도약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꿈' 소재의 공간도 구축 중인데, 정보 소외계층 청소년이 이곳을 방문해 꿈이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유일하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충남센터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지역 특성에 맞춰 시·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초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남서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해 초·중등생이 AR·VR, 코딩 드론, 모빌리티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전남센터는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과 SW교육 확산을 위해 장애청소년 '희망이음 소프트웨어(SW)코딩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과 SK텔레콤이 공동 개발한 SW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장애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SW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찾아가는 교육도

인천센터는 벽지 지역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도에 구축한 '인천 SW미래채움 교육 체험관'을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 이곳에선 인천 공항을 소재로 한 비행기 관제 코딩 등의 교육 콘텐츠를 SW강사 참여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할 수 있다. 정식 개관 이후에는 학교 단위 예약을 통해 방문객의 SW교육 수준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센터는 SW강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기초 입문부터 중급, 고급에 이르는 단계별 커리큘럼 교육을 58회 실시해 전문강사 100명을 배출했다. 강사들은 44개 지역 아동센터와 8개 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SW교육'을 실시했다. SW교육센터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돼 포항의 '함동해센터(464.11㎡)'와 안동의 '백두대간 센터(203.50㎡)'가 각각 14일, 15일에 문을 연다.

제주센터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해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맞춤형 LMS(학습관리 시스템)를 개설, 강사들의 SW교육 영상제작 기술을 적용해 제주도만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중앙여중을 SW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미래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센터는 관내 60여 개 초·중·고등학교,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교육시간에 인공지능·SW코딩 등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초등학교 체험캠프 운영 시 드론·3D펜 등 체험 중심 교육을 지원했다. 내년 4월엔 울산SW미래채움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센터는 지난해 12월 5일 SW강사들로 구성된 충북소프트웨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도왔다. 올해는 SW강사 자립심 구축을 위해 자격증 취득, AI 교육 등 후속 지원을 했다. 내년에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SW교육 인식 제고 및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단계 운영 돌입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특화산업과 만나 시장 창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SW융합클러스터 조성
과 활성화가 2단계로 접어들며 국가경쟁력
또한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SW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와 특화산
업을 연계해 새로운 시장이나 비즈니스 등을
창출하는 또 다른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SW융합이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Wearable)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사업이며, 빠른 정보화와 우수한 정보기술(IT) 인력을 바탕으로 IT 강국을 이룬 우리나라는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일찌감치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해왔다.

전국 12곳에 SW융합 거점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 특화산업과 SW기술과의 융합 촉진을 위해 SW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해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SW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SW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SW융합클러스터는 현재 11개 분야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2014년 부산 센텀(조선해양·기계·항만물류), 인천 송도(바이오·디지털사아이니즈·로봇), 경기 성남시 판교(금융·보안·게임)에 SW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 이후 2015년 전북 전주(농생명), 경북 포항(자동차·모바일), 2016년 대전 대덕(스마트국방), 광주·전남(에너지 신산업), 지난해 부산 센텀(스마트물류 서비스), 인천 송도(바이오정보 서비스), 충남 천안(융·복합 디스플레이), 울산(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경남 창원(지식친화형 기계설비 산업), 울해 초 경북 포항(미래형 모빌리티), 전북 전주(스마트농생명), 강원 춘천(지능형 관광테크), 충북 청주(지능형 반도체) 등을 추가했다. 초기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클러스터가 1단계였다면 지난해부터 조성한 클러스터는 2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SW융합클러스터들은 목적에 맞는 SW융합 사업을 넘어 지역 특화산업과 협업해 새로운 융합 제품, 신시장, 비즈니스 등을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산 센텀센터는 특화산업 분야 SW융합을 통해 스마트 물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 빅데이터 포털을 연계해 플랫폼 구축 및 가공 데이터를 10만 건 이상 확보,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피엘지는 센텀센터의 지원을 받아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식자재·메뉴 추천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8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보유 가맹점이 550개에 달하는 등 성공사례를 창출했다.

인천 송도센터는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협업이 용이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대학 매장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로 글로벌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북센터는 스마트농생명을 핵심 테마로 농생명산업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농업·축산·식품유통 등 농생명 분야 DNA 융합 서비스 지원체계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포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경북센터는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바탕으로 폭넓은 R&D 및 협업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기반의 SW 융합 생태계를 형성한 경북은 휴비즈아이씨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트럭을 활용한 캠핑레저카 튜닝 시뮬레이션 개발에 성공했다. 디지털 트윈과 실시간 트래킹 기술의 융합으로 모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SW융합클러스터 충남센터는 천안과 아산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산업을 토대로 SW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충남센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투스라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투시 디스플레이 도어 제작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인투시는 고유한 내부 투시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기반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에 추가할 수 있는 실용제품을 연구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상용화 지원을 통해 LG하우시스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고 해당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 또한 완료된 상태여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울산은 조선해양산업을 바탕으로 SW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 특히 친환경·자율운항 선박기술을 통한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를 완성할 방침이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기업인 유비마이크로는 울산센터의 상용화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작업장에서 질식,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프라이빗 로라(Private LoRa)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현대미포조선, SK가스 등 현장 적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화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선정돼 SW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강원과 충북은 각각 지능형 관광테크와 지능형 반도체를 기반으로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강원은 관광 빅데이터 확보 및 글로벌 실증단지를 통한 관광테크 융합 신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SW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2019년 SW융합 제품상용화 41개사는 상용화율 32%를 달성했고 2020년 이를 137개사로 확대해 지원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이 546명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취업준비생, 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교육 대상 다변화로 SW융합 전문 인력 1,670명을 양성하는 등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지역의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특화산업과 협업해 새로운 융합 제품, 신시장,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 환경 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매출 기여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SW진흥전략'을 발표하고 SW융합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 및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SW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한국인 맞춤형 'AI 의사' 닥터앤서… 코로나 뚫고 사우디 간다

韓기업들 이달 사우디 출장

현지 환자용 검증 마무리단계

내년 2월 최종 수출여부 결정

심뇌혈관·치매·대장암 등

8개 질환 21개 SW 개발 성과



닥터앤서 치매 관련 AI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뷰노 직원들이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1분 만에 환자 1명의 뇌 MRI를 분석하는 등 치매진단 보조역할을 한다. 작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했고, 지난 6월 유럽 CE인증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인공지능(AI) 영상판독 회사 뷰노의 개발자와 병원 정보시스템 전문기업 이지케어텍 엔지니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 이달 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SW) 기업 인피니티 헬스케어 엔지니어 1명도 같은 목적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64억 원을 투입한 토종 AI의사 개발 프로젝트 '닥터앤서' 참여기업이다. 사우디 병원에 닥터앤서를 수출하기 위한 검증 작업차 코로나19를 뚫고 출장을 떠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 맞춤형 의료AI'로 개발된 닥터앤서가 국내 병원에서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AI SW 수출이 많지 않은 데다 의료 AI 수출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닥터앤서는 당초 연내 수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환자 임상 검증이 늦어지면서 내년 2월 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닥터앤서란 AI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병원(HR)의 합성어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SW를 말한다.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AI 닥터'라는 의미도 있다.

이번 수출 논의는 지난해 여름 사우디 국방보건부 요청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중앙보훈병원, 한림대병원 등 38개 국내 의료기관이 교차 검증한 결과를 사우디 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국방보건부산하병원(MNG-HA·Ministry of National Guard-Health Affairs)에서 검증하는 단계다. 현재까지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정확도는 물론 의료진 만족도도 높아 수출이 유력하다고 주관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가 밝혔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도 기대된다. 지난 11월 양국 협력 안건 중 하나로 닥터앤서가 소개됐고, UAE 측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내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일본 등에도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장에서 닥터앤서의 성과를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균 5년이 걸리던 발달지연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5분 만에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라고 칭찬했다. 이 SW를 개발한 금창원 쓰리빌리언 대표는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면 많아야 수백 개 유전자를 보는데, 희귀질환은 수천 가지다. 그동안은 의사가 의심하는 일부 질환만 검사하다 보니 진단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며 “우리는 검사 한 번에 2만 개 유전자 전체를 검사할 수 있고 7,500여 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가 해외에 판매하는 검사 비용은 699달러로, 기존 검사비의 10% 수준이다.

가장 유명한 AI닥터는 IBM이 개발한 ‘왓슨’이다. 닥터앤서는 발병예측, 진단보조, 치료지원까지 가능한 AI닥터로 국내 의료진 사이에서 “왓슨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년간 8개 질환을 진료하는 21개 SW가 개발됐는데, 뇌출혈 진단과 대장용종 분석·진단 등 4개 SW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도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닥터앤서의 성과는 이제 막 꽃 피우는 글로벌 AI 의료기기 산업과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민관합동으로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2017년 474억 달러(약 52조 원)에서 2023년 1,003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면서 한국 의료와 혁신 기업들의 가교 역할을 해 체계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인증까지 이끌어낸 것도 훌륭한 성공모델이라는 평가다. 특히 닥터앤서 프로젝트는 환자 임상을 위해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절실했던 혁신 스타

트업들에 큰 힘이 됐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AI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이제 막 꽃피우는 단계인데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된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개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국가의 수출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오가니까 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 대표도 “현재 확보한 환자데이터가 1만 건 정도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정도 데이터를 쌓은 곳은 5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닥터앤서 덕분에 2,000명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투자자 신뢰를 얻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닥터앤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인 ‘닥터앤서 2.0’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참여기업과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공모한 뒤, 2년간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2년간 병원 임상에서 검증과 의료기기 인허가를 추진한다. 4년 예산은 280억 원이다.

< AI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개요 >

◇ 타깃질환 (총 8개)

심뇌혈관, 심장,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 유전질환

◇ 참여기관

-서울아산병원 등 26개 의료기관
-뷰노, 이제케어텍 등 22개 기업

◇ 주요성과

-21개 소프트웨어 개발
-7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 중
-4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사우디, UAE 등 수출 및 협력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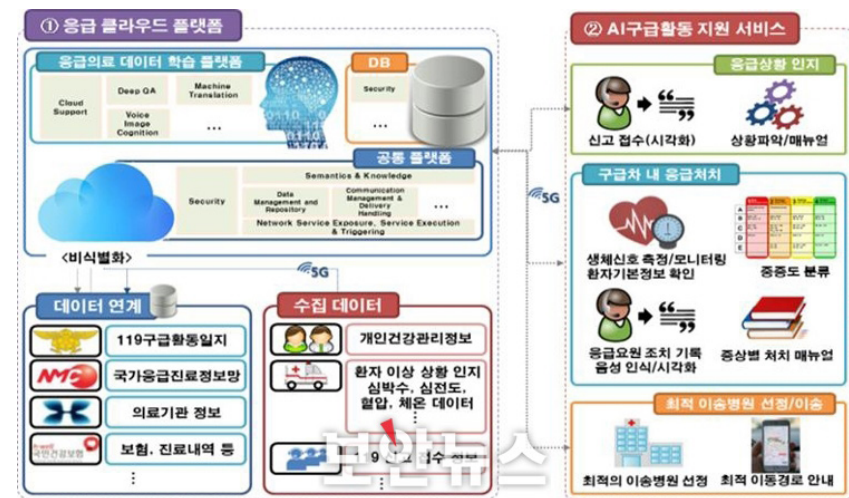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5G 기반 AI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연세의료원을 중심으로 7개 의료기관, KT,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이하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사업의 연구개발(R&D) 성과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3년(2019~2021년)간 180억 원을 투자해 2년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2개 지역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및 소방청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4대 중증응급환자(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의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응급실 이송을 통해 적시치료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음성, 영상,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5G 망을 통해 통합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구급차내 장비와 응급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 단말기를 추가 지원한다.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는 통합플랫폼에 전송된 응급데이터를 분석해 구급차 내 구급대원에게 ①표준 응급처치 방안 제시 ②구급활동일지 작성 지원 ③최적이송병원 경로 등을 제시하고, 응급실 전문의들에게는 구급차내 상황을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응급환자 도착 전에 최적의 치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해 환자 발생부터 최적 병원 이송까지 각 단계별로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이 지능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을 시연하고 참석자들에게 중계했다.

행사장 외부에 전시된 119구급차에서는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응급환자 데이터 수집 장치들을 소개하고, 응급환자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디지털뉴딜 현장점검 열일곱 번째 발걸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CT 역량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며,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연세의료원 장혁재 사업단장은 추진 성과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응급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IT접목 더뒀던 병원·학교·농촌에 혁신기술로 디지털 뉴딜 ‘잔결음’

디지털 전환 열풍이 여러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기술(IT) 접목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던 병원, 교육기관, 농업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각종 산업 분야에 접목해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각각 병원, 교육기관, 농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 이지케어텍, 코난테크놀로지, 그린플러스가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2001년 설립된 이지케어텍은 국내 대표 병원정보시스템(HIS)업체로 꼽힌다. 환자의 진료 예약부터 퇴원까지 모든 정보를 디지털 화해 제공하는 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베스트케어’가 핵심 제품이다. 수기로 작성되던 의료 차트, 전표, 필름, 종이 등을 모두 디지털화했다. 이지케어텍은 여러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지케어텍 제품은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국립암센터 등에 적용됐다. 이달 중순에는 전남대병원과 118억원 규모의 HIS 구축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 진출도 활발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10월의 우수사례 이지케어텍·코난테크놀로지·그린플러스



국내 첨단온실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그린플러스.

< 10월 디지털 뉴딜 우수기업 >				
기업	주요 사업	설립 시기	매출	직원 수
이지케어텍	병원정보시스템(HIS)	2001년	646억원	418명
코난테크놀로지	교육용 AI 솔루션	1999년	137억원	159명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솔루션	1997년	395억원	95명

매출 : 2019년 기준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장조사업체 KLAS에 따르면 이지케어텍의 ‘베스트케어2.0’은 글로벌 EMR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이지케어텍은 국내 의료 정보화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라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환경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교육기관에 AI 솔루션을 서비스한다. 방대한 학습용 교육 콘텐츠를 AI를 통해 분류하고 수집·가공하는 플랫폼을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채팅로봇) 서비스도 하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청각장애인·외국인의 학습 기회도 높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솔루션 ‘디리스너(D-Listener)’를 통해서다.

1999년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AI 교육 서비스 상버으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다. 교육 분야 서비스를 통해 고도화한 AI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기관·방송국 등으로 수요처도 넓히고 있다.

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기업도 있다.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다. 이 회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스마트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온실 개폐장치 등이 회사 스마트팜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환기율을 60% 높이고 병충해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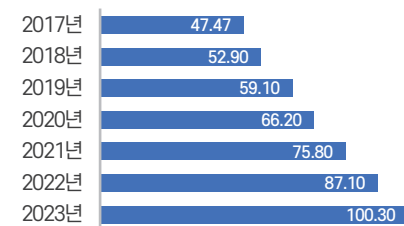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에는 최적온도를 맞춰주는 뿌리 주변 냉난방 시스템도 적용돼 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장치를 계단식으로 설계했다. 이 회사의 스마트팜 서비스를 통해서 딸기 등 기존에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되던 작물뿐만 아니라 오이 등도 재배할 수 있다.

1997년 설립된 그린플러스는 국내첨단온실 시장의 20%를 점하고 있다. 매출은 연평균 400억 원대에 달한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첨단온실을 수출하고 있다. 누적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를 수출했다. NIPA 관계자는 “그린플러스는 1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당백’ AI 닥터앤서… 5년 걸린 희귀 질환 진단, 15분만에 똑똑

<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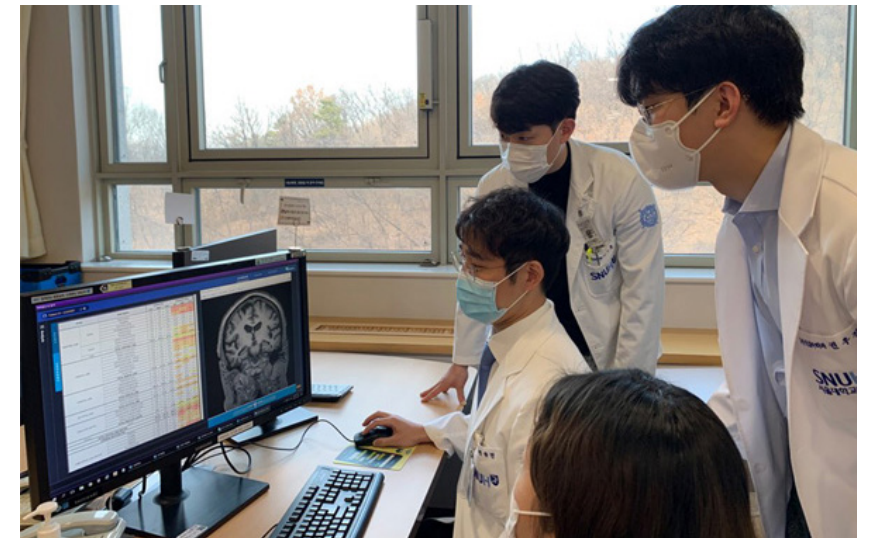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인 맞춤 인공지능(AI) 의사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닥터앤서’가 진료실 풍경을 바꾸고 있다. 원인을 찾기 못해 평균 5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야 했던 소아 희귀병 환자의 병명 진단이 15분이면 나온다. 검사후 4~6시간 후에야 판독결과가 나왔던 치매 진단도 1분이면 끝난다. 사람이 할 때에는 수십분 걸리던 관상동맥 CT판독은 2분으로 줄었다. 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의사가 육안으로 용종을 판독할 때는 81%의 정확도를 보이던 것이 닥터앤서 활용 후에는 92%로 늘었다.

용종을 놓치는 경우가 11%나 줄었다는 의미다. 숙련된 전문의나 전공 교수들도 놀라워하는 결과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닥터앤서는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정보·전자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뇌혈관·치매 등 8대질환 연구
관상동맥 CT판독 2분이면 완료
대장용종 진단도 92%까지 정확
AI 닥터가 진료실 풍경 바뀌놔
국내는 물론 사우디병원 곧 진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의료진이 닥터앤서(뇌영상 수치 자동 분석 SW)가 분석한 결과를 보며 치매환자 진단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분당서울대병원]

닥터앤서는 지난 3년간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 희귀질환 등 8대 질환을 연구(데이터 학습)했다. 지금은 국내 38개 병원과 사우디 국방보건부 산하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현장실습’을 하는 중이다. 닥터앤서가 학습한 데이터는 환자의 진료정보, CT와 MRI 등 영상정보,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정보 등 다양하다. 전세계 정부는 이같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정밀의료’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8대 질환중 치매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뇌 영상 자동분석 SW가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상현장에서 쓰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닥터앤서는 AI 베이스여서 처리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임상현장에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를 촬영한 영상검사(MRI 등)에서 뇌의 모양이나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분석해 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닥터앤서는 이같은 기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전문가 입장에서 뇌 변화를 그냥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닥터앤서가 제공하는 뇌 부위별로 계산된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뇌의 좌우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닥터앤서는 수치가 좌우로 나뉘어 나오기 때문에 단번에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MRI 소견상 알츠하이머일 확률을 계산해주는 SW도 현재 3등급 의료기기 심사중인데, 어떤 MRI 영상이든 치매확률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아말로이드 PET 검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 촬영한 MRI 영상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뇌졸중 진단 목적의 MRI와 치매 진단 목적의 MRI가 구체적인 촬영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뇌의 3차원적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닥터앤서를 활용하면 뇌졸중 진단을 위해 촬영한 MRI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까지 함께 진단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정도 활용도라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인허가 받은 SW로는 세계 최초이고 타이밍이나 기술 우수성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서 후발 주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느냐,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장암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가천대 길병원 박동균 소화기내과 교수도 닥터앤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어떤 사람이 대장용종이 잘 생기는지 보는 프로그램, 내시경할 때 자동 으로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을 찾는 프로그램, 대장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 예측부터 진단, 예후 추적, 치료까지 닥터앤서를 활용해봤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대장용종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내시경 시 대장용종을 찾는 SW를 집중적으로 임상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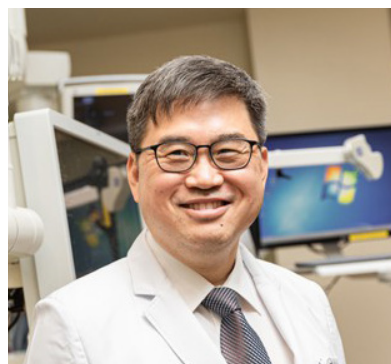
박 교수에 따르면 내시경에서 용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장이 길고 주름이 많이 져있고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깜박 놓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 세 명이 함께 봤는데도 용종을 놓치는 비율은 20~30%에 달했다. 닥터앤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용종을 찾아서 표시 해주기 때문에 놓칠 확률이 줄어든다. 초보의사도 능숙한 의사처럼 판독할 수 있게 실력을 제공하고, 숙련된 전문의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박 교수는 닥터앤서의 또 다른 장점으로 ‘데이터가 남는 것’을 들었다. 그는 “머지않아 개인 의료 정보 기록을 개인이 갖는 시대가 올 텐데, 병원에서 주는 결과지가 아니라 나의 내시경 원본 데이터를 받아서 보관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검진에 포함되어 있어 전세계에서 대장 내시경을 가장 많이 해주는 나라다. 전문의가 아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도 닥터앤서를 활용하면 판독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AI 의료 생태계의 기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질병의 정밀진단 및 조기발견, 맞춤 치료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고령화 시대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한민국의 의료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와 AI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전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닥터앤서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64억원이지만, 병원과 참여기업들이 평가하는 닥터앤서 프로젝트의 가치는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



김기웅, 분당서울대 교수



박동균 가천대 길병원 교수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골든타임 사수하라, 특명 수행중인 AI응급실

“5G와 인공지능(AI)으로 4대 중증 응급환자(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위급한 환자가 앰بول런스에 탑승했다. 구급대원이 문진과 응급장비 신호로 환자정보를 수집한다. 360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환자의 음성정보, 영상정보,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 중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증도를 예측한 결과 ‘심근경색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분석한 AI가 환자 중증도 정보와 현재 심근경색증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와 거리 등을 표시해준다. 환자에게 최적 이송병원이 ‘세브란스’라고 안내한 뒤, 구급차는 5G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최적의 이동경로로 달려간다.

과기정통부·정보통신진흥원 5G기반 AI 응급의료 시스템 3년간 180억 투자해 구축

<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요 >	
기간	2019~2021년(3년)
규모	231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51억원)
참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1개 병원·기업·산학컨소시엄 7개 의료기관(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주관, 순천향대부천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등) 14개 ICT 기업 및 산학(서울대, ETRI, KT, 카카오모빌리티 등)

그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는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이송된다는 알람이 울린다. 현재 구급차 위치와 도착시간은 물론 환자의 정보(성별·나이·생체정보 등)와 병원 응급실 의료 지원 상황이 화면에 뜬다. 구급차 안 환자 상태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응급실 의료진은 구급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구급대원에게 최적의 응급처치 방안을 제시하고, 처치하는 동안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응급실 화면에 뜬다. 의료진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착시간에 맞춰 환자를 인계받는다.

AI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닥터앤서가 진단부터 예후 관리, 유전자검사를 통한 예방까지 아우른다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AI 응급의료시스템)은 앰بول런스와 응급실 풍경을 바꾸고 있다. AI 응급의료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내년까지 총 3년간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2년간 핵심기술을 개발했고, 내년 2개 지역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을 중심으로 7개 의료기관과 통신회사 KT,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정보통신기술(CT) 기업이 참여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도 협력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AI 응급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실제 활용상황을 시연·중계했다. 이날 행사장 외부에 전시된 119구급차에서는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응급환자 데이터 수집 장치들을 소개하고, 응급환자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행사도 열렸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대한민구 ICT역량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장혁재 연세의료원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응급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IT시장 개척단’ 으로 코로나 위기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도 앞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SW융합클러스터가 지역 산업체와 특화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시장이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성과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서 경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구축된 SW융합클러스터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 시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찾아내 현실화시키고 있다.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가 바로 무역 분야다. 예전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무역 상담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해외 비즈니스 활동이 대폭 위축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W융합클러스터들은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역산업 선도하는 ‘SW융합클러스터’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이다. 조선해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울산센터는 조선CT(정보통신기술)융합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비즈니스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한국 조선해양 온라인 무역전시회’를 열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국내 기업 85곳, 해외 기업 19곳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70여 개국 1000여 명의 관계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세호마린솔루션사는 업체가 그리스 선주사와 1억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울산SW융합클러스터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해외 방문이 어려운 지역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상담을 가장 먼저 구상해 클러스터 간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곳은 SW융합클러스터 경남센터였다. 원래 2019년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미국(실리콘밸리, 댈러스), 캐나다(토론토), 중앙아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올 상반기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상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전국 11개 SW융합클러스터들과 협업한 ‘글로벌 IT시장 개척단’ 구성과 온라인 상담회로 이어졌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시장조사를 실시한 뒤 제품소개서를 현지로 보내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고 KOTRA의 화상 상담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과 해외 비즈니스 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7월부터 구성된 글로벌 IT시장 개척단은 제1차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통해 유럽 등 20여 개 지역에서 IT 및 SW융합제품(보안, 사물인터넷, 전기, 전자, 기계, 의료, 화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3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 184건의 상담을 이뤄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온라인 상담회에서 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 IT시장 개척단은 23개국에서 155명의 신규 바이어를 발굴했다. 수출 상담액은 4,150여만 달러(약 467억 원)에 달했고 계약 추진 액수는 2,500여만 달러(약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추진하고 있는 2차 온라인 화상 상담회는 26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중국(선전, 청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NIPA는 KOTRA와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등과 연계한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중동지역의 두바이, 동남아의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온라인 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1차 못지않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시장 개척단을 내세워 온라인 상담회를 추진해 예상을 넘는 큰 성과를 거두자 과거 정부와 NIPA는 향후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우수한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장을 통한 지역 SW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SW산업 활성화 △지역 SW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홍보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과 매출 및 수출 증대 △국외 SW융합 산업 비즈니스 정보 획득 및 가치사슬 진입으로 국제시장 다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지원 체계의 이원화 및 유망기업 집중지원 강화로 내수시장 활성화 유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독특한 방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들 수 있다.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는 기술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인천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SW융합클러스터 인천센터 출범과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출자해 6개 창투사와 함께 1171억 원을 마련했고 102개 프로젝트에 908억 원을 투자해 SW융합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사업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차 펀드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운영할 ‘인천성장펀드’로 이름 지어졌다. 재원은 회수금 100억 원과 신규 출연금 100억 원을 합해 모두 200억 원이며 2027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SW융합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며 운영은 인천시가 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출자자 및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SW융합클러스터 인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019년 인천지역 IT/SW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금 조달(46.7%)이었다. 이어 마케팅 부진(40.1%), 원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어려움(37.9%) 등이 뒤따랐다.

이 같은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펀딩 조성 방안을 마련한 인천 SW융합클러스터는 펀딩 자금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부터 창업, 시제품 제작, R&D 지원, 마케팅, 투자 및 펀딩, 자금 지원,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신생 기업부터 중견 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각 지역의 SW융합클러스터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성과를 내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로 보유한 특화산업 기반기술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SW융합 인프라를 새로이 정립했다. 전국 SW융합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경기침체와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 스쿨존 어린이 사고 ICT로 해결

[ICT와 사회적 가치①] 국민 안전



용인 역북초등학교는 보행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캠페인을 실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ICT)이 우리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특히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ICT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교통,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구원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ICT가 국가 경제를 살피우는 ‘혁신의 톨’을 넘어 사회 가치를 높여주는 ‘가치의 톨’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ICT가 만들어 가는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ICT가 바뀌고 있는 우리 일상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국민안전, 보건 복지, 환경, 사회통합, 지역 및 기업 상생 등을 주제로 다섯 차례 게재한다.

“아이가 길에 다니면서 자꾸 폰을 봐서 불안했는데 스쿨존에서는 쓸 수 없게돼 너무 안심이 됐어요”

“아이를 매일 등하교 시켜 줄 수 없어 혹시라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나면 늘 노심초사했는데 마음이 놓였어요”

어린이 스쿨존에 IT시스템을 설치, 보행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교통 사고 방지에 나선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역북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당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보행중 휴대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 사고가 연간 492건에 달한다.

2018년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용인 역북초등학교는 어린이 교통 사고 다발지역이다. 이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골머리를 앓던 학교는 시와 함께 ICT 기술을 도입,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학교와 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약 6주간 ‘노스몸비 캠페인’을 실시, 보행 중 스쿨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BLE 디바이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스쿨존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 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테스트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스쿨존에서 휴대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시스템을 설치한 알티앤씨 유성훈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일수가 거의 없어 참여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미 확보한 사용로그 분석 및 현장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구현 성능 부문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ICT가 교통약자 보행의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ICT 기술은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0조 600억원이나 됐다. 산업재해 피해액도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7조 6,000억원, 연간 사고사망자가 855명에 달했다.

ICT는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곳곳에서 안전 예방 파수군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물 인터넷(IoT), 5G,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융합, 국민 안전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래시장 화재 예방에도 ICT가 ‘구원수’ 역할을 한다.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기업 이노덱(대표 이성진)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시장내 화재취약 점포 1천여곳에 지능형 화재감지기 ‘스탑파이어’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스탑파이어’는 화재 발생 시 소방본부 상황실에 위급상황을 전달해 즉시 출동을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재난재해 관리시스템’이다. 특히 지능화한 화재 판단 솔루션 기술을 사용해 기존 화재감지기의 단점인 오작동을 최소화했다. ‘스탑파이어’가 수집한 빅데이터는 범죄, 미세먼지, 지진 등에 대비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성진 이노덱 대표는 “보통 화재가 발생한 후 대응을 하는데 ‘스탑파이어’를 사용하면 선제적 화재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서울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스탑파이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둠 속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망률을 낮추는데도 ICT가 한 몫한다. 당국에 따르면 터널내 교통사고가 10% 정도 줄면 연간 2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NIPA는 기업과 힘을 합쳐 세종시에 있는 부강터널에 ‘딥러닝 안전사고 관제 플랫폼’을 구축, 터널내 교통사고 감소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40만건 이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현성의 박병강 대표는 “터널내 위험 상황 감지와 상황 안내 등의 IT시스템을 설치, 터널내 교통사고 저감과 사회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면서 “NIPA 도움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내 특허 출원 2건과 해외 출원 1건의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건설 현장에서도 ICT는 없어서는 안될 안전 방패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안전 사고의 29.3%가 건설 쪽에서 일어난다. 테크플러스(대표 윤병호)는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상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와 병원, 응급구조사에 알려주는 장비인 ‘안전 스테이션’을 개발,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건설현장에 시범 운용해 호응을 받았다. 윤병호 테크플러스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ICT 융복합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는 ICT로 관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NIPA 지원을 받아 ‘시융합 실증랩’을 설치,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수성구에 설치한 1,800여대의 CCTV 자료를 기반으로 미아·치매노인 찾기를 포함해 침입·화재·폭력·실신·유기·배회를 인식할 수 있는 AI 기술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미아·치매노인 찾기는 실종 시간과 장소·실종자의 행동 양식 정보를 모아 AI를 통해 분석하고, 이 기술을 응용해 CCTV영상 속에서 실종자를 추적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CCTV가 수집한 영상을 기반으로 AI학습을 통해 사람의 행동 및 상황 등을 분석해 침입·화재·폭력 등의 특정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 하고, 112와 119에 신속히 신고한다. 수성구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할 기업을 다음 달 모집해 4월부터 입주시킬 예정이다.

김득중 NIPA산업본부장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ICT 기술로 우리 생활 곳곳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ICT가 우리 국민 삶의 안정 성과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 ‘첨단 도구’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똑똑한 AI, 스마트하게 국민 건강 돌본다

맞춤형 정밀의료 솔루션 Dr. Answer

#발달장애는 인지, 지체, 행동 장애, 퇴행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만성질환 이행률도 높다. 또 살아가는 동안 후유 장애(지적장애) 발병률도 높아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의학계는 전체 소아의 약 10%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

#병원내 약물 처방 오류와 이에 따른 의료 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6~2017년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3060건) 중 약물 오류가 28%(857건)나 됐다. 또 이중 약물처방 오류가 12%(375건)에 달했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 및 치매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현황정보 ‘치매 오늘날’에 따르면 치매 추정 환자는 2018년 기준 75만 명이나 됐다. 오는 2050년에는 300만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치매 관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6조 3,316억 원이나 됐다.

이들 세 사례는 건강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풍속도다. 고령화와 웰니스 확산으로 국민 건강 관심과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민 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인에이블러(enabler)’라 불리는 ICT를 활용해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같은 ICT를 건강 분야에 적용, 질병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ICT는 의료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트리거’ 역할도 하고 있다. AI가 대표적이다.

AI는 의료데이터를 학습해 진단과 치료 정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의료가 막강한 의료 강국이다. 의료 데이터도 풍부하다. 여기에 AI를 적용하면 의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2019년 5월 기준 건보 및 심평원이 보유한 데이터 건수는 6조 건이 넘는다. 국내 의료에 디지털을 도입하면 2030년에 50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과기정통부와 NIPA가 시행하는 ‘닥터 앤서’ 사업은 AI가 병원 진료를 바꾸는 대표적 사업이다. 출생 후 발달 지연으로 세 살이 될때 까지 고개를 들지도, 또 기어다니지도 못하던 남자아이가 AI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 앤서’ 도움으로 회복됐다. 역시 발달지연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던 1세 여자 아이 역시 열성 유전형 세가와병을 진단 받았는데 이 역시 ‘닥터 앤서’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 여아도 약 처방을 받고 1개월 후 고개를 들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

윤명숙 NIPA 책임은 “발달장애 SW 진단 기간은 5년인데 반해 ‘닥터 앤서’는 1.5개월이면 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다양하고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질병의 정밀 진단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I는 약물 처방 오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병원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사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한몫한다. 건양대학교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좋은 사례다. 건양대병원은 헬스케어 기업 인피니그루(대표 유경식)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약물 처방 오류 탐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건양대병원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에서 축적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AI가 학습했고, 이렇게 학습한 AI는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평소 패턴과 다른 잘못된 처방을 할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의사는 자신의 처방 오류를 점검, 교정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건양대 소아과에서 시범서비스중이다.

김종엽 건양대병원 데이터사이언스 센터장은 “무엇보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들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며 “뿐만 아니라 약물 처방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개발한 인피니그루는 이 시스템을 베트남 등에 수출을 추진중이다.

AI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의 질환이 중증으로 진전될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 6곳과 대학, 기업 3곳(뉴노, 루닛, 아크릴)이 과기정통부와 NIPA 지원을 받아 ‘AI 예후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X레이 영상 기반과 CT 영상 기반, 임상 데이터 기반 등 3종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게 목표다. 김현준 뉴노 대표는 “세계 최초의 감염병 코호트 기반의 AI 예측 및 예후 솔루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뿐 아니라 가상현실(VR) 기술도 국민 건강을 돌보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옴니씨엔에스(대표 김용훈)가 개발한 ‘옴니핏 VR-M’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그룹 상담으로 치유 및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대면으로 하는 그룹 상담은 얼굴 노출 부담감이 있다. 시간과 물리적 공간 제약도 부담이다. ‘옴니핏 VR-M’은 이런 불편을 없앴다.

VR은 사지절단 환자의 환상통을 줄이는데도 기여한다. 환상통은 신체 일부분을 절단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절단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사지절단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VR과 AR기술을 통해 가상의 정상 사지를 구현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공간 제약을 극복, 환자들의 운동량 증가와 통증 및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 준다. 일종의 통증재활 프로그램인 이 솔루션을 개발한 라이징크래프트스튜디오의 이중서 대표는 “지난해 7월 손목 사지절단 환자 4명을 대상으로 1차 실험을 마쳤다”며 “한국절단장애인협회와 MOU를 맺고 솔루션을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인터넷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ICT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만든다



스마트 공기 살균 장치 작동 원리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환경 오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기 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은 국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따른 국내 경제 손실 비용은 연간 10조원이 넘는다.

OECD는 한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질환 발생 등으로 직접적 경제 손실(시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2060년에는 1인 당 연간 500달러, 사회 전체로는 22조 원이 넘을 것으로 2016년 예측한 바 있다. 특히 OECD는 오는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에 따라 조기 사망률이 높고, 연간 GDP 손실 비율이 0.63%에 달하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6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따른 손실 비용을 약 11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ICT와 사회적 가치③] 환경

‘사회 문제 해결사’인 정보통신(ICT)과 소프트웨어(SW)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을까?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관내 기업과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기 살균 장치’는 이런 물음에서 출발했다.

경남TP는 국내 최고 ICT 지원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 도움을 받아 관내 기업인 경동냉열산업(대표 여성동)이 플라즈마 고도산화기술을 이용해 공기중 세균 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제품 개발을 돕고 있다. 플라즈마 고도산화기술을 이용해 공기중에 부유하는 세균과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필터 없이 처리하는 기기다. 장치의 운전 및 공기정화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및 관리해 실증데이터 기반의 플랫폼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제품 개발은 끝났고, 올 하반기 병원과 학교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개발중인 여성동 경동냉열산업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점과 배오존에 의한 우려를 없앤 새로운 공기정화 기술 및 제품 개발로 호흡기질환(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정태승 경남TP 팀장은 “경남지역 사회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제안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건강 과 청결 등 사회복지 분야 요청이 높았다”면서 “이번 장치 개발은 시민이 참여 하고 전문가가 협력,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ICT 기반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NIPA가 지원해 추진되고 있는 오염측정 저감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도 ICT가 생활 속 시민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례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NIPA는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와 영진기술, 휴엔릭스 등을 지원해 생활오염 주범인 미세먼지 및 오염 측정 저감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올 연말경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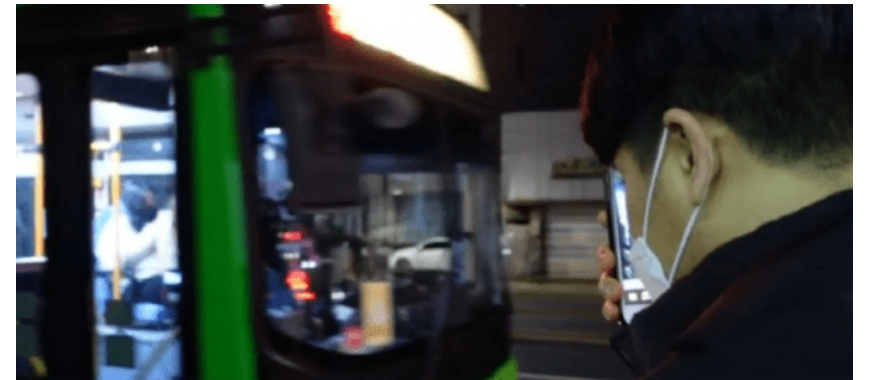
경기TP가 소재한 안산시의 경우 미세먼지,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1700개가 넘는다. 최윤정 NIPA 수석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5종(5만2천여 곳)은 관리가 거의 안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IoT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대신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고기능 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 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또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름 유출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감지와 정화에도 ICT솔루션이 큰 역할을 한다. IoT솔루션 스타트업 토이스미스(대표 서형준)가 개발한 장비와 솔루션이 그 예다. 지난 2003년 인덕원역의 한국 종단송유관(TKP) 기름 유출 이후 주변 회사에서 지하수를 대량 사용, 그 결과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이 넓게 확산됐다. 토이스미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IoT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오염 감시 및 분석과 원격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형준 토이스미스 대표는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로 오염된 지하수 현장을 IoT 기반의 센서 모듈 및 대시보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했다”면서 “기존 정화수는 오랜 정화기간으로 부지 사용이 제한,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정화 예측 및 빠른 지하수 정화가 가능해 환경 오염 절감과 함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ICT로 취약소외계층 품는다

[ICT와 사회적 가치④] 사회 통합



저시력 장애자가 스마트폰으로 승차하려는 버스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은 1조 5,512억 달러(1,830조 5,000여 억 원)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2위였는데 두단계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입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무역대국이다. 경제규모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 10개국’에 상당히 위치한다.**

하지만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은 경제지표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취약 계층과 소외계층을 넉넉히 아우르는 포용 인프라가 필요하다. 육체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통합’ 환경을 갖춰야하는 것이다. 실제 OECD는 지난 2011년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공적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다. 이는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정보통신(CT)과 소프트웨어(SW)는 우리나라가 품격있는 선진국가가 되는데 ‘디폴트’인 사회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 일자리 교육 등 취약 및 소외 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NIPA는 사회 통합을 높이는 여러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소재 기업 소프트기획(대표 박준호)은 NIPA 도움을 받아 청각장애인이 비대면으로 원격 영상의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인 ‘위로그’를 개발했다. ‘위로그’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현재는 PC용만 개발돼 있다. 상반기중 모바일 버전도 나올 예정이다.

박준호 소프트기획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됐는데 청각장애인은 이에 소외될 수 있어 ‘위로그’를 개발했다”면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00여곳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회의 환경이 좋으면 인식률이 90% 이상”이라면서 “음성 노이즈 제거 등 계속해 기능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소재 기업 우리소프트(대표 김병일)는 3D 게임으로 발달장애 치료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솔루션인 ‘뉴로월드(neuro world)’를 개발하고 있다. ‘뉴로월드’는 발달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경조인지장애(MCI), 치매 노인 및 뇌졸중 환자들에게 게임을 통해 저마다 적합한 인지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인지발달 선별검사와 재활훈련 도구를 3D 모바일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인지재활 도구다. 아이들과 노인에게 친근한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지재활 과정을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하게 해준다.

온라인 게임형태로 인지장애 진단 후 3~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인지검사 게임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연령대별로 수집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인지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별 장애 예측점수도 도출해준다. 게임을 통해 대상자가 몇 번 화면을 터치했는지를 파악,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지문으로 답을 찾는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이다. 검사 분야는 기억력과 언어, 주의집중, 시지각, 실행능력 등이다.



한 사용자가 청각장애인이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위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김병일 우리소프트 대표는 “뉴로월드는 현업에 종사하는 언어, 심리, 미술, 놀이, 음악, 감각통합 등의 재활사와 재활공학, 의용공학, 컴퓨터공학 등 연구진의 인지훈련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담았다”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인지 선별검사로 구현해 거부감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 아동 관련 국내 클리닉 및 병의원이 1만3,000여곳 정도 되는데 대구지역 아동발달센터 두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솔루션 개발 완성은 올 연말경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라이트비전(대표 정진하)은 저시력 장애자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였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조작만으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타려는 버스를 식별, 승차할 수 있게 해준다. 정진하 라이트비전 대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버스 이용 시 본인이 승차해야 할 버스 번호를 알고 있지만 해당 버스 번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 버스를 타기 어렵다”면서 “시각장애인이 겪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알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버스 노선번호 이미지 획득과 인식을 향상을 위해 실제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 데이터셋이 필요했는데 성동구청 장애인 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촬영, 실데이터 수집 및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번호 인식이 가능해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과 저시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가상현실 트럭 및 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브이리스브이알(대표 권중수)은 NIPA가 주관한 ‘실감교육콘텐츠 현장체험’을 맡아 전국 25개 실감콘텐츠 취약 지역을 찾아가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진로체험 및 교과연계 교육을 수행했다. 브이리스브이알은 이 사업을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클래스브이알, 성결대학교 XR센터 등과 함께 했다. 주요 콘텐츠는 진로체험 3개 15종, 교과연계 17종이다. 특히 진로체험은 스마트 팜, 로봇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실감교육콘텐츠 3종을 활용했다.

권중수 브이리스브이알대표는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VR 체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비수도권, 농산어촌 등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을 찾아감으로써 정보 소외지역 해소에도 기여하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및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시동 건다

【ICT와 사회적 가치⑤/끝】 지역 활성화 및 기업 상생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30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지난 6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발표한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 공급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더 많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도권 집중도에 해당한다고 조사는 지적했다. 지역내 총생산도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이 992.3조 원으로 비수도권(910.2조 원)보다 더 많다.

지역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국가적 문제’다. 특히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디지털전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뒤져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시행한 디지털 전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48.9%인 반면 중소기업은 29.9%에 그쳤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혁신의 톨인 ICT와 SW를 활용해 지역 격차와 대중소 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다. 이는 지역특화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강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SW융합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Wearable)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창조적 결합을 말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지역(11개 분야)에 조성돼 있다. 사업 첫 해 인 2014년에 부산 센텀(조선해양·기계·항만물류), 인천 송도(바이오·디지털사이언스·로봇), 경기 성남 판교(금융·보안·게임)가 선정, 스타트를 끊었고 이후 2015년 전북 전주(농생명), 경북 포항(자동차·모바일), 2016년 대전 대덕(스마트국방), 광주·전남(에너지 신산업), 2019년 부산 센텀(스마트물류 서비스), 인천 송도(바이오정보 서비스), 충남 천안(융·복합 디스플레이), 울산(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경남 창원(지식친화형 기계설비 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경북 포항(미래형 모빌리티), 전북 전주(스마트농생명), 강원 춘천(지능형 관광테크), 충북 청주(지능형 반도체)가 추가로 뽑혔다. NIPA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및 연구개발 129건을 지원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SW융합인력 2,700여명을 양성하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63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에 있는 VR/AR 제작거점센터'도 지역내 기업 성장을 돕는 시설로 주목 받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3년간 NIPA 도움을 받아 구축한 이 시설은 대전 주력 산업인 국방과 과학 분야의 특화된 전문 지원센터로 자리 잡았다. 대전시는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VR과 AR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 시범운영 및 사업화 ▲VR관련 기관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이 센터를 관내 특화산업인 국방과 과학 분야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시선을 받았다. 센터에서 이뤄진 콘텐츠를 제작 이후 수요처(군부대 등) 실증으로 연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실감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관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이재운 NIPA 수석은 “지역간 국가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VR, AR제작거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다양한 특화산업과 VR,AR 융합 및 확산을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활성화와 지역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성장 원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매출액



NIPA는 통신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IoT 제품 상용화를 돕고 있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모습.

항상과 일자리 창출, 가상융합경제발전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지역 내 VR/AR콘텐츠 지원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국방과 과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콘텐츠들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IPA의 '5G IoT 분야대·중소기업 상생 기술지원 사업'도 주목할만 하다. 통신 대기업과 힘을 합쳐 IoT 중소벤처기업이 지닌 혁신 아이디어를 제품 및 상용화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NIPA는 지난해 5G 기반 IoT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약을 통신 3사와 맺었다.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통신사별 제품 검증 기간이 최소 2~3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협약 이후 NIPA는 인천 송도와 서울 금천구 가산에 있는 'IoT기술지원센터'에 5G 기반 IoT 기술개발 및 테스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고도화, 운영하고 있다. 또 통신 3사는 협약에 따라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 공유 ▲각 사의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를 NIPA 및 중소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5G IoT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통신사 사전 테스트를 NIPA의 테스트로 대신할 수 있게 절차 개선 ▲5G IoT 관련 중소기업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NIPA는 중소벤처기업의 IR도 비대면으로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41%의 스타트업이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NIPA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비대면 IR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총 29회의 비대면 IR을 지원했다. 여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 총 2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NIPA는 코로나19로 해외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출 시스템도 지원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전시회 및 박람회 취소(변경 포함) 비율이 74%에 달했다. 이에 NIPA는 지난해 11월 비대면 수출 지원 전시관인 'ICT 사이버월드 2020'을 개설했다.

이종석 NIPA 팀장은 “지난해 15개 사업의 417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출 상담을 벌여 19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 판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PART 08.

인터뷰



“왓슨 대항마 ‘닥터앤서’…400조 디지털헬스케어시장 주도”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왓슨’(인공지능 닥터)을 만들겠습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59)은 올해 NIPA의 최대 중점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IBM 왓슨의 대항마로 개발 중인 ‘닥터앤서’를 첫손에 꼽았다. 김 원장은 “주로 서양인 데이터를 활용한 IBM 왓슨을 인종과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인들에게 최적화한 AI 진단 서비스를 개발,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2020년 4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야심이다. 지난 16일 서울 가락동 집무실에서 김 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NIPA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 및 아시아인·환경요인 특화된 AI 솔루션 아산병원 등 44개 의료기관·ICT新 개발 참여 하반기 주요 병원 유방암 등 8대 질환 진단 활용/VR 등 기업 해외 진출 도울 ‘위성 사무실’ 구축 규제샌드박스 지원 신사업 확산 생태계 마련”

Q. 올해 NIPA의 중점 사업계획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사업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정밀 의료서비스 닥터앤서 개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4개 의료기관·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이 분야 선두주자인 IBM 왓슨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인들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인종과 환경 요인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데이터를 적용하는 건 우리가 있어요. 국내에 도입된 왓슨 프로그램이 호평만 받진 않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에게 특화된, 그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헬스 AI 솔루션이 절실합니다. 장기적으로 닥터앤서가 북한에도 진출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의료·ICT 분야에서 각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 닥터앤서는 주요 병원에서 8대 질환(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까지 400조 원 수준으로 성장이 맞먹는 규모죠. 과감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관련 산업이 국가대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한 민간출신으로 외부에서는 조직혁신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고려 중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이 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요즘은 기술과 시장 변화가 너무 빨라요. 한 부서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업해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춰나가겠습니다. SW(소프트웨어)·ICT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Q. 휴대전화, 반도체 산업이 이끈 우리나라 ICT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벗어날 해법이 있다면
AI, 블록체인, VR(가상현실)·AR(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SW와 서비스 개발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합니다. 가령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다고 할 때 국내시장 규모는 5,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에서도 동시에 출시한다고 가정하면 시장은 수십억 명이 됩니다. 인프라와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는 어렵지 않은 전략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상

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NIPA는 국내 전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진출대상국의 시장 여건, 경쟁환경, 규제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거점 ‘위성사무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을 미리 준비해온 지사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안에 7~8개 거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Q. 지난 17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를 시행 중입니다. 공식 지원기관으로서 역할과 준비상황은
NIPA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ICT 생태계본부 조직을 신설했어요. ICT 생태계본부는 ‘산업규제전략팀’과 ‘규제샌드박스팀’으로 구성됩니다.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용을 지원해 신산업·신서비스 확산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얼마 전 조직개편을 통해 ‘AI융합 산업본부’, ‘전략기획단’이 신설됐는데 배경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산하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했는데 AI, 블록체인을 포함한 ICT 산업 진흥전담 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AI융합산업본부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AI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전략기획단은 대형 ICT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여러 ICT 신기술 중 유망분야를 꼽는다면
AI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가장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AI를 이용한 조선해양·디지털헬스·VR 등의 산업을 국가 혁신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도 무시할 수 없죠.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아닌 온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을 때 이익을 찾을 수 있어야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그런 기업과 블록체인 응용기술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삼성인’ 5회 수상 ‘기술리더’

김창용 원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첫 민간기업 출신 수장이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제품기술 개발을 주도한 엔지니어다. 삼성과의 인연은 1987년부터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0여 년간 근무하며 삼성전자 DMC연구소장(부사장), 삼성전자 CTO 위원회 운영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삼성의 대표 기술 리더 역할을 했다. 그중 최고 기술 인력에서 주는 ‘삼성 펠로우(Fellow)’에 2006년 선정됐으며 ‘자랑스러운 삼성인상’도 다섯 번이나 받았다. 재료비 추가 부담 없이 LCD(액정표시장치) 밝기와 해상도를 향상하는 영상표현기술을 개발하고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패널) 등 다른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한 LCD 구조 개발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창용 원장 약력

- 충북 영동 출생
- 서대전고등학교
- 한국항공대학교항공기계공학과 졸업
- 카이스트 기계·컴퓨터해석 석사
- 카이스트 제어·컴퓨터비전 박사
- 삼성종합기술원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퓨처IT연구소장
- 삼성전자 DMC연구소장(부사장)
- 삼성전자 CTO위원회 운영책임자
- BESM (Building Energy Management)협회장
- 3D융합산업협회장
- NIPA 원장

“SW로 소득 4만, 5만 달러 달성해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30년이 어느덧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민간 경험을 공공에서 꽃피우겠습니다. 조선 해양과 디지털 헬스, 가상현실(VR) 등 기존산업과 SW 및 ICT간 융합으로 국가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매진, SW와 ICT를 통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2년을 일했다. 32년 중 13년을 임원으로 있었고, 이 중 6년은 부사장으로 활동했다. NIPA 원장에 오기 전 삼성전자 고문으로 있었다. 그는 삼성 고문을 1년 이상 남긴 지난해 10월 NIPA 원장에 부임했다.

그는 삼성의 대표적 기술 리더였다. 그룹 최고 기술인력에게 주는 ‘삼성 펠로(Fellow)’상 (2006년)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삼성인상’도 다섯 번이나 받았다. ‘자랑스런 삼성인상’ 다섯 번 수상은 그가 기술 전문성 외에 ‘무언가’를 갖춰 있음을 말해준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지난 18일, 서울 가락동 집무실에서 김 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마침 이날은 그가 원장으로 취임(2018년

10월 18일)한 지 꼭 세달째되는 날이었다. 김 원장은 “책임감이 더 커졌다”면서 “같이 일 해보니 직원들 맨파워가 좋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방향만 잘 잡아 주면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공공기관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많이 다르다”면서 “공개(오픈) 조직이다보니 효율보다 소통과 협업이 더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NIPA가 창립(2009년 8월 23일) 한지 10년째 되는 해다. 김 원장은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및 이를 키워나가는 전담조직으로 NIPA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신SW와 ICT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SW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올해 안에 포털을 구축해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Q. 30여년의 기업 생활을 끝내고 공공 기관장에 부임했다. 그동안의 소회가 남 다를 것 같다.

마침 오늘이 취임한 지 만 3개월째다. 산업계 현장에서 바라본 NIPA와 직접 이끄는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 NIPA가 AI, 블록체인, VR과 AR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책임감도 더 커졌다. 30년간 축적한 기업 경험을 십분 활용해 속도감 있는 변화와 ICT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

Q.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포인트는 무엇인가

신SW와 ICT산업의 신 성장동력을 이끌 어내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개발하면 그 정책을 실현하고 모니터링하는 바람직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직무 경험과 전문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했다.

AI산업 혁신을 담당할 ‘AI융합산업본부’와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담당할 ‘ICT생태계본부’를 신설했다. 대형 국정과제를 기획 및 제안하고 총괄할 싱크탱크인 ‘전략기획단’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신SW와 ICT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기업을 신남방국가로 보다 활발히 진출시킬 계획이다. 모니터링하는 바람직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편

했다. 직무 경험과 전문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했다.

Q. NIPA 설립 목적은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민 경제 발전이다. 어떤 실현 방안을 갖고 있나

AI, 블록체인, VR·AR 등 급성장하는 신 SW가 앞으로도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정부 8대 선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요구가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접점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실행하는 것이 NIPA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

Q.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500조원 정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5~10년 내 700~8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 했다. 가능한 목표인가

과기정통부의 ICT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반도체, 휴대폰, 통신 등을 포함한 전체 ICT 산업의 생산 규모가 500조 원 정도 된다. 이 중 SW는 52조 원 정도다. 기존 ICT산업은 저성장 단계에 들어섰지만 신SW와 ICT 등 미래 주요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면 700~800조 원 규모를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서비스 예정인 5G처럼 신기술이 등장하면 신규 서비스와 전후방 연관 산업을 발굴해 국내 ICT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Q. AI와 블록체인, VR·AR 등 신SW 분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들 각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 방안은 무엇인가

AI 경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투자가 늦었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AI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 기업 가속 성장 생태계 조성, 주력산업에 AI를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경쟁국가 대비 투자가 늦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가 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해볼만하다. 유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실증을 통해 레퍼런스를 축적하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를 올해 50개쯤 찾으려 한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응용이 가능하면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VR과 AR은 킬러 서비스가 필요하다. 2021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908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는 아직 엔터테인먼트 위주 초기 단계다. 그래도 국내가 다행인 점은 올해 5G가 서비스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5G도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 한다. 지금 생각 중인 것은 가상 동대문이나 가상 광화문 같은 테마파크다. 동대문은 쇼핑 때문에만 가는 공간이 아니다. 복잡한 공간을 모두 다치지 않더라도 VR을 통해 동대문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 중이다. 여기에 한류를 결합해 아이돌 체험을 하는 등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Q. 세계 ICT 업체들이 클라우드 전쟁 중이다.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클라우드에는 서비스, SW,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 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그러나 세계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은 AW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가 51.8%로 가장 높고 MS, 알리바바, 구글, IBM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국내는 글로벌 대비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AI 등 신SW를 활용한 정밀 의료와 조선해양, VR과 AR 등 기존 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SaaS)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신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Q. AI 시대를 맞아 공개SW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공개SW 현황과 지원책은

신SW 분야에서 공개SW 비중이 매우 높다. 올해 공개SW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또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의 오픈SW랩도 운영하고,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개방형OS 기반 응용SW 개발도 지원한다. 오픈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Q. SW와 ICT 수출 확대 방안은

올해는 SW 수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을 포함해 SW기업이 약 2만개인데 개별 중소기업이 해외 거점을 만들 여력이 없다. 포털 등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컨택포인트를 알려주겠다.

Q. 지역SW도 국내 SW 생태계 중 한 축이다. 지역SW 기업 지원책은

지역경제는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낙후돼 있다. SW산업도 서울에 전체 기업의 61.4%(1만4097개)가 몰려있다. SW와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육성하겠다. 또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SW로 개선하는 것과 정보소외계층 SW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Q.정밀 의료, 조선해양 등 대형 ICT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는

현재 의료산업과 AI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와 조선해양산업과 ICT를 융합한 ‘ICT융합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지역산업에 AI를 융합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

Q.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ICT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싶다. AI 등 신SW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조선해양, 디지털헬스, VR 등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 국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Q.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3% 이상 경제 성장과 소득 4만 달러 이상 실현이다. SW와 ICT가 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AI와 VR 같은 신SW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주력산업에 신SW를 융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해양과 모빌리티, 제조, 의료 분야 등이 대표적 분야다. 그동안 국내 ICT 산업은 반도체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국민소득 4~5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신SW 육성이 시급하다.

1959년 생인 김 원장은 충북 영동에서 출생했다. 서대전고등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생활은 평범했다. 영동에서 기차로 대전까지 통학을 했고, 잠시 대전에 있는 친척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누구?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많아 대학은 항공기계공학과를 택했다. 79학번으로 특채로 한국항공대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설립한 한국항공대는 당시만해도 서울대와 연고대 못지 못지 않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한국항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KAIST에 들어가 석사(기계 및 컴퓨터 해석)를 마쳤다. 석사 졸업 후 1987년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 이후 32년간 삼성맨으로 살았다. 입사 초기 KAIST 박사에도 도전, 30대에 박사학위를 땀다.

칼라 프로세싱이 전공인 그는 TV가 흑백에서 컬러로,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큰 기여를 했다. 삼성이 아날로그 컬러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한 주인공이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종합기술원 퓨처IT연구소장과 DMC연구소장(부사장), CTO 위원회 운영책임자 등을 지냈다.

김 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조직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리더라면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본받고 싶은 리더는 세종대왕이고, 솔직한 소통과 협업을 중시한다.

김 원장이 꼽은 '나를 바꾼 책'은 백범일지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게 좋았다"는 설명이다. 매일 매일 새로워야 한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은 그가 늘 새기는 말이다.

김 원장 취미는 영화보기다. 타이트한 시간 형편상 몇 편을 몰아서 본다. 그가 '강추'하는 영화는 벤허와 대부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영화는 '국가부도의 날'이다. 전업주부인 부인과 의사인 딸과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신시장 개척하는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적극 도전해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기회를 주는 영국, 일본과 달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고 내용도 정교합니다.”

삼성전자의 DMC(세트 부문) 연구소장(부사장)출신 기관장으로 유명한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사진)은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은 핀테크(금융기술) 등 일부 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고, 일본도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최대 4년간 유예해준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에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NIPA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면 관련된 규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작성도 컨설팅해준다.

김 원장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 도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자사의 분야와 관련된 규제와 법령들을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삼성그룹이 최고 수준 기술 인력에게 수여하는 ‘펠로우’에 선정됐을 만큼 연구개발(R&D)에 정통한 인물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아마존,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잔치로만 여기는 비판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출발이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직도 먹거리로 삼을 만한 분야가 상당하다는 논리였다.

김 원장은 “전통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하면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ICT의 힘으로 전통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로는 조선·해양 분야를 꼽았다. 김 원장은 “선박에 AI, 빅데이터 등 ICT를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2년 정도 후면 한국을 ‘AI 선박’의 맹주로 꼽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IPA 원장으로서 목표를 묻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란 답이 돌아왔다. 김 원장은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해외 진출이 꼭 필요하다”며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을 조사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 출신 김창용 NIPA 원장

실패해도 규제·법을 공부할 기회
전통 산업에 ICT 기술 결합

5G 킬러콘텐츠 발굴 지원 디지털라이프 플랫폼 구축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스마트 콘텐츠 지원사업’과 그 일환인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이하 공동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상용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신서비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김원장의 생각이다. ‘MWC19바르셀로나’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김원장을 만나 콘텐츠 산업 현황과 전망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들어봤다.

스마트머신·모빌리티 사업화 위해
테스트베드·규제 개선 등 뒷받침
신SW 융합 ‘5G 선도 프로젝트’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제작 힘써

“5G 시대는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스마트 콘텐츠 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정책 지원과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MWC19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스마트 콘텐츠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만나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스마트 콘텐츠는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 특성을 활용해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는 게 김 원장 판단이다.

김 원장은 “5G를 통해 지연속도가 극히 짧은 초저지연과 초광대역을 활용하는 VR·AR 콘텐츠를 실시간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서 “기존보다 풍부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전에는 기업용(B2B) 서비스 혹은 교육, 게임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됐지만, 5G상용화를 통해 일반인도 언제 어디서나 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갖춰진다는 게 김원장 설명이다. 일부에 국한됐던 시장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017년 기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6.1%(21조 2,910억 원) 수준”이라면서 “5G 상용화에 따라 영화, 방송, 게임 등 분야에서 AI, VR·AR,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합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정책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5G는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대 산업 발전을 위한 ‘5G플러스 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벤처·스타트업 육성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 지원책도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5G플러스 전략이 스마트 콘텐츠 시장 확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NIPA는 ‘5G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5G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기존 콘텐츠

실증사업 중 일부를 선정, 5G 콘텐츠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VR·AR 제작 공간 및 실증을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 7개 도시에 구축했고 올해 3곳 더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MWC19 바르셀로나’ 전시관에 ‘스마트 콘텐츠 한국공동관’을 꾸린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공동관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수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데 대기업은 마케팅 역량이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는 분야별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협력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령, 체험을 위한 VR 버스 같은 경우엔 트럭 구조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ICT 규제 샌드박스 대상 중 하나로 논의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수한 ICT 인프라, 신기술에 빠르게 반응하고 소비하는 시장, 우수한 개발 인력 등 충분히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면서 “강점을 십분 활용해 우리 기업이 스마트 콘텐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NIPA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新SW·남방 기회 문 열어 ICT서비스 새로운 도약 발판 만들 것”

신소프트웨어와 신남방.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줄곧 집중한 키워드다. 두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 SW와 ICT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AI(인공지능), 블록체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로 대표되는 신SW 생태계를 육성해 연 500조 원 규모인 국내 ICT 산업이 5~10년 후 700조~800조 원 규모로 크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념이다.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 11개국에서 기회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11개국의 총 인구는 19억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8배 가량에 달한다. 우리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기대되는 시너지도 크다.

AI활용 기업 가속성장 지원 플랫폼
작년 구제화... 올해 예산 반영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산업
진흥원과 손잡고 데이터 취합
공동작업
절대강자 없는 디지털헬스 산업
주목... 5G 연결되는 미래도 중요
시장작아 유니콘기업 배출 힘들어
신남방 11개국 돌파구로 삼아야

취임 후 7개월 여의 기간은 확신과 신념을 정책과 사업에 녹여 넣는 기간이었다.

김창용 원장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쥐려면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승부해야 한다”면서 “잠재력이 큰 신SW와 5G·제조·조선 등 우리의 강점산업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디지털헬스·미래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키우는 일을 동시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퓨처IT연구소장과 DMC연구소장을 지낸 김창용 원장은 산업계의 속도 DNA와 미래를 내다보는 R&D 철학을 겸비한 전문가다. 기술과 산업 변화를 빠르게 읽어 NIPA 사업과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고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광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등 전 산업을 지능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기반으로 신SW와 타 산업의 융합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전후방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중에서도 AI 분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I를 통해 기업의 가속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그림을 구체화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AI를 활용하도록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산업데이터, AI 알고리즘, 교육을 종합 지원한다

AI의 전 산업 확산도 주목하는 이슈다. AI는 그 자체로도 산업이지만 다른 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무기가기도 하다.

AI를 활용하면 원래 강한 분야를 훨씬 강하게 할 수 있다. 세계 각국도 강점 중심의 지능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와 자동차에 강한 독일은 제조 4.0, 일본은 로봇, 미국은 원천기술과 신서비스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다.

AI 연관산업으로 무엇을 집중 육성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5G 관련 산업으로, 부품·솔루션·서비스를

우리가 주도하는 만큼 시를 결합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는 주력 제조 산업에도 AI와 IoT(사물인터넷)를 적용해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조선해양 분야에 시를 적용해 2~3년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면 앞으로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와도 더 잘 대응하고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

이 과정에서 AI·ICT 중소기업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기업과 협업하면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들은 수요가 확실하면 제대로 된 승부를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배 건조 효율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선기업과 ICT 기업이 한 팀이 돼 목표부터 같이 설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미래산업 육성도 놓쳐서는 안 되는 숙제다. 글로벌 시장이나 신흥방 국가에서 통하는 솔루션을 확보해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 시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장 주목하는 산업은 디지털헬스다.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우리가 보유한 동양인 데이터를 토대로 투자를 집중해 실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실용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니 글로벌 수준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업과 병원에서도 자신감을 가진 만큼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함께 해 보려 한다. 이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투자를 늘리려 한다. 당장은 크지 않

지만 엄청나게 클 시장이고 국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5G와 연결되는 미래자동차 산업도 주목하는 분야다. 자율주행차의 프레임을 5G 기반으로 바꾸면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스마트에너지도 중요한 성장엔진으로 꼽힌다. 5G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과거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면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미래 산업 기회를 동시에 쫓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만 10% 줄여도 수조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되니 환경에 도움이 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와 기존 방식으로 만든 전기를 최적으로 결합해 쓰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잘 개발해도 큰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AR·VR로 대표되는 5G 콘텐츠도 공을 들이는 분야다.

AR·VR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5G는 LTE에 비해 전송량이 20배 많아지니 같은 화질이면 20개 영상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동시에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의 진화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인 만큼 스포츠 중계 외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콘텐츠가 쓰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G 시대에 e커머스가 도입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면 5G가 열리면서

고화질·고실감콘텐츠가 자유롭게 오가고 VR 커머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체험할 수 있는 VR 공간을 서울 동대문 쇼펍몰에 준비 중.

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측정한 신체 사이즈를 토대로 VR로 가상피팅을 하고 공간과 용도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VR 한류 공연과 연계하면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파생 비즈니스도 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콘텐츠, e커머스, 물류, ICT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고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

5G 시대에는 VR과 AR이 제조, 현장 유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일 전망이다. 엔지니어 교육과 현장 업무에도 바로 접목될 수 있다. 이미 국내 주요 제조사들은 AR을 통해 제품 오류를 최소화하고 장애를 예지 정비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 AR과 VR을 도입해 경쟁력을 끌어올린 후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도록 집중 지원체계를 만들겠다.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은 5,500만 명의 작은 시장도 원인인 만큼 이를 타개할 돌파구로 주목하는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방 11개국이다.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흥방 시장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김원장은 11개국의 인구는 총 19억 4,000만 명으로, 그들의 구매력에 기대를 걸고 중소·벤처기업들이 동시에 시장에 접근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정보와 현지 거점, 수출 제품 현지화·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략이다. 기업들이 NIPA와 협력 기관들의 해외 거점을 지사처럼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SW 제품 현지화와 해외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SW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달부터 격월로 현지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신흥방 시장 전문가의 진출 경험을 전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전문가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CEO 대상의 SW 해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한다.

베트남은 하노이 지점 외에 호치민에 최근 IT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VR 등 콘텐츠 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도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진흥원, KOTRA 등과 협력한다. 기업들에 적합한 현지 협력기업을 찾아주고 DB화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 확보. 특히 SW는 분야별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한 만큼 도메인별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네트워킹을 도울 것. 수많은 기업이 각각 현지에 인력을 내보낼 필요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고 국가가 나머지를 도움으로써 기업들이 10분의 1, 100분의 1 비용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현지 기업 DB는 7월 정도 완성한 후 계속 업데이트하고 기업들에 공개해 수요·공급기업이 계속 만나는 가상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 간 공조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기업용 SW 분야 기업부터 적용하고자 한다.

국내 SW기업의 수출 자신감이 높지 않은 게 현실. 기존 SW에 시를 입혀 경쟁력을 키우고 중견·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묶어 기업용 솔루션을 통째로 진출시키는 전략을 통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패키지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비용을 분담해 부담을 줄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면 신흥방 동시 액세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기업용 SW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논의해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SW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글로벌화 전략이 부족했다. 이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해외 진출이 쉽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클라우드 산업은 SaaS(SW서비스) 경쟁력이 핵심. 조선해양·디지털헬스 등 강점 산업과 미래산업도 경쟁력 있는 SaaS를 만들어 산업과 클라우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도록 할 것.

제조·금융·유통 등 3~4개 전략SW영역을 정해 SaaS 육성전략을 펼 계획이다.

부설기관인 SW정책연구소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SW 산업 육성전략 수립과 정부 협업 과정에서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SW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하는 통계 기능도 보완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원기관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SW기업을 찾아가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법조문 해석,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류 작성도 돕고 있다.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20명이 문의를 하고 1,500명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만큼 규제 개선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 등 팀을 보강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국가 혁신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될 것



5월의 태양 별이 강렬한 5월의 마지막 주에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찾았다. 취임 8개월째로 접어든 김창용 원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독립된 소도시로 개발되어 있는 혁신도시 끝자락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바벨론의 공중정원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굵은 안경테가 참 잘 어울리는 김창용 원장은 꾸밈없는 얼굴로 일행을 반겼다. 그동안의 소회부터 물었다. 원장 공백이 7개월이나 있었던 차에 제가 부임을 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큰 시기에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제 경험과 NIPA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ICT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다졌어요.

김창용 원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 회의 탁자 뒤에 자리한 커다란 칠판이 눈에 들어왔다. 칠판에는 연구소나 이과대학의 강의실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각종 등식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글썄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있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결과물에 어울리는 부서에 더 연구를 해보라고 메일로 지시도 하고요.

1959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맞은 김창용 원장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했고 KAIST에서 ‘컴퓨터비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에 삼성종합기술원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고 2012년에는 삼성전자 내 완제품 선행개발을 담당하는 DMC(Digital Media & Communication R&D Center) 연구소장에 선임되어 수많은 기술신화를 창출해 내며 연구소를 이끌었다. 그는 삼성그룹이 최고 기술 인력에게 수여하는 ‘삼성 펠로우(Fellow)’에 선정된 바 있으며, 삼성에서는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5회나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TV연구에 주력해온 연구소장을 맡은 인연으로 2014년 임기 3년의 3D융합산업협회장에 재선임되어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NIPA 원장에 임명되었다.

저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D융합산업협회와 한국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협회의 회원사는 95% 정도가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입니다. 우리 NIPA에서 추진하는 VR·AR 콘텐츠 사업이나 3D

프린팅,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제가 두 협회의 장을 역임한 것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5일을 혁신도시 사택에서 지내며 주말이면 서울의 본가로 간다는 김창용 원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도 안경 너머로 총총한 눈동자를 연신 깜박이며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투사해내는 듯했다.

매일 매일이 새로워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특별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갈지 모르겠던 탁구를 통해 요즘 운동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배 탁구대회에 직원들과 복식팀 선수로 직접 출전하기도 했으며, 올여름에는 테니스도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용 원장과 인터뷰는 그의 말대로 NIPA가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ICT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이 든 시간이었다. 인터뷰 이후에는 외부 행사 일정에 시간이 박하다는 김창용 원장을 졸라 따가운 햇볕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NIPA 청사 앞에서 나머지 촬영을 했다. 정작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뷰파인더의 잔영은 사뭇 진지했다.

Q. 영화는 좋아합니까?

기업에서 일할 때 해외 출장을 너무나 자주 다녀서 이동 시간을 영화보거나 음악 듣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 출장의 경우도 왕왕 있어서 한 10여 편 이상의 영화나 장르 별로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다운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몰아보기 하거나 골라 듣는 것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시간은 없어서 집에서는 전문 채널을 이용해서 봅니다. 예술영화전문 채널을 선호합니다. 영화는 재미와 함께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습니다.

Q. 음악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나요?

클래식에서 록 밴드나 발라드, 70~80년대 노래나 요즈음 BTS까지 다양하게 좋아합니다만 특히 제가 청춘이던 대학 시절에 들었던 노래를 선호합니다.

삼성그룹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엔지니어에게는 종착지라 할 수 있는 연구소장을 끝내자마자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의욕이 넘치는 김창용 원장은 초등학교 시절 즐겼던 탁구를 통해 요즘 운동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배 탁구대회에 직원들과 복식팀 선수로 직접 출전하기도 했으며, 올여름에는 테니스도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용 원장과 인터뷰는 그의 말대로 NIPA가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ICT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이 든 시간이었다. 인터뷰 이후에는 외부 행사 일정에 시간이 박하다는 김창용 원장을 졸라 따가운 햇볕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NIPA 청사 앞에서 나머지 촬영을 했다. 정작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뷰파인더의 잔영은 사뭇 진지했다.

Q. NIPA는 어떤 기관인지 현황과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인공지능(이하 ‘AI’), VR·AR, 5G, 클라우드 등 ICT·SW 신산업을 육성하고 SW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지원해 국가 혁신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입니다. ‘ICT의 미래를 책임지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하고요. 핵심가치로는 전문성,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NIPA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2009년 8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을 통합하여 지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개소되었고 2015년 6월에 진천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조직은 1실(3단) 5본부 1부설 기관입니다. 해외IT지원센터가 3개국 4개소(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에 있습니다.

Q. 김창용 원장님은 NIPA 최초로 민간 기업 출신 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8개월째로 접어든 그동안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큰 시기에 부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NIPA의 역량을 결집해 ICT산업이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합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재직할 때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NIPA 역시 AI, IoT, VR·AR 등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실행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계 현장에서 바라봤던 NIPA와 NIPA를 직접 이끄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업·국민·국회·정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년간 기업 경험에서 축적된 경험을 국가적 과제에 접목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와 ICT산업의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야겠다는 다짐을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Q. 취임 한 달 후 원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중육성방안으로 ‘소프트웨어 혁신 성장의 기반’이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VR·AR’로 대변되는 육성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ICT·SW 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SW산업에서도 잠재력이 큰 AI 산업, 블록체인 산업, VR·AR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등의 SW를 스마트 제조, 스마트 조선, 5G와 같은 강점산업에 융합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미래 자동차,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기업용 SW 등과 같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SW와 타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되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하고,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등 글로벌 시장에 동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렸으니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AI 산업 육성은 국가, 경제는 물론 생활 전반에 AI 적용을 확산하여 전 산업의 지능화를 위해 AI 가속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산업이지만 다른 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무기이기도 하죠. AI 가속성장 생태계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 분야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AI를 쉽게 활용하도록 인프라, 산업 데이터,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GPU 클라우드와 같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 데이터는 산업 현장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 응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올해 600명 등 매년 AI 인재를 산업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복합교육 공간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IPA에서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광주광역시에 4,061억 원(5년)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등 광주 지역

특화산업과 AI를 융합해 지역 경제는 물론 AI 응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기업 육성은 효용성이 높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상용화 지원과 수요 발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조기 확보하고 '22년까지 100개의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블록체인 최신 기술과 응용서비스 구현 기법 등을 학습·체험·토론하는 블록체인 놀이터('19. 2월 서울 마포에 구축, '19. 4월부터 교육과정·세미나·멘토링 운영 중)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98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5G 관련 킬러콘텐츠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라이프스타일에 적용 가능한 VR·AR 콘텐츠로 산업과 생활을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화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인 만큼 VR·AR와 5G를 융합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콘텐츠가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G 플러그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교육, e-스포츠, 쇼핑, 제조 등 민간 수요가 높은 생활형 5G기반 VR·AR 킬러콘텐츠 확보할 계획입니다.

Q. NIPA는 신사업 규제혁신 실행기관으로도 ICT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요?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서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도의 안정적·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거침없이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혁신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서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도의 안정적·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거침없이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0여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하루 1,500명 정도가 상시 접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4건 접수과제 중 29건이 처리되었는데, 1차(2/14), 2차(3/6), 3차(5/9) 심의 위원회를 거친 11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들이 시장에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을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적·혁신적 창업기업이 쏟아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 홍보 강화,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이후 사업화 지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해소를 요청하는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은 1987년 삼성에 입사한 후 30여 년 근무하면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5회 수상 등 대단한 성과를 보신바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있어 '삼성'이 갖는 의미는?

ICT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국내 가전기업이던 20대 후반에 입사해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청·장년 시기를 함께 했으며, 30년이 넘는 재직 기간 동안 글로벌 ICT 기술을 배우고 DMC 연구소 등 삼성의 글로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ICT 산업의 흐름을 읽고 통찰력(Insight)과 전략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원장님은 평소 어떤 좌우명을 품고 생활해왔나요?

좌우명은 '생각하는 대로 이뤄진다'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결국 '꿈'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Q. 자주 인용하는 인용문으로는?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 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



불학즉태'입니다. 이는 공자의 말씀으로, 제가 ICT 업계에 30년 넘게 몸담고 있지만 빠른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을 내다보기 위해 사색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에 이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Q.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지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국가 ICT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만약 10대, 20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웃음). 그래도 돌아간다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평소 곁에 두고 보는 책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주위에 소개할만한 것은?

곁에 두고 자주 읽는 책은 <백범일지>입니다. 새로운 것에 깨어 있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김구 선생의 열정과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반성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을 안주하지 않고 매순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매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결심을 할 때면 읽게 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는 김태우, 김대륜 공저의 <패권의 비밀>을 꼽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향방을 가능해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산업혁명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도의 혁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AI와 기존 산업 융합, 산업 경쟁력 혁신 주도”

세계 굴지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32년간 몸담은 ‘삼성맨’이 삼성전자 고문 재직 중 사회공헌을 위해 공공기관장 공모를 결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임명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이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AI)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NIPA를 이끈다. 삼성전자에서 쌓은 인사이트와 기술력, 경험 등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AI 전문성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서 NIPA가 산업 혁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파격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NIPA는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산업 변화혁신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산업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등으로 축적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토대가 됐다. 김 원장은 NIPA가 다음 10년 동안 AI 산업 성장과 AI를 기존 산업에 융합해 경쟁력을 혁신, 국내 산업이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도록 전폭 지원한다. 광주 AI집적단지를 비롯해 5세대(5G)통신 실감콘텐츠 확보 등 추경예산을 확보, 속도감 있게 AI산업을 키운다. NIPA 내년도 예산은 신규 AI 사업 등에 힘입어 정부안 기준 올해 대비 약 900억 원 더 늘어났다. 기술경쟁력 강화 등 AI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NIPA와 김 원장 노력의 결실이다.

내년부터 5년간 ‘광주AI집적단지’신규사업 추진
자동차·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과 융합 생태계 조성
AI·5G 기반 중장기 5개년 계획 세워 신성장동력 발굴
‘제2반도체·스마트폰’육성해 주력산업 위기 막아야

AI관련 SW 기술 대부분 오픈소스로 누구나 활용 가능
‘5년 내 10만명’인재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 마련해야
매달 ‘ICT CEO 포럼’ 열어 산업계와 소통도 강화



AI와 5G 등 신기술을 활용해 SW 융·복합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제조 등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하고 리딩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 국내기업 글로벌 진출도 적극 돕는다.

첫 1년은 AI 관련 산업 육성 올인

10월이면 취임 1년을 맞이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AI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AI 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집중했다.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고 산업용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공유했다. AI 응용산업 전문가도 올해 600명 양성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4,061억 원 투입해 광주AI집적단지 애형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과 AI 융합생태계를 조성한다. 5G 실감콘텐츠 추경예산 198억 원 확보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NIPA 노력과 의지가 정부예산에 반영, 사업 육성은 현재진행형이다.

10년간 SW·ICT 국가 성장동력 기여

산업혁신 전문기관으로 ICT·SW산업 정책 수립 지원과 사업발굴, 글로벌 진출, 법·제도 지원 등을 도맡았다. ICT·SW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2009년 IT 코리아 미래전략, 2010년 SW 강국 도약 전략, 2012년 정보기술(IT) 융합 확산전략, 2013년 SW 혁신전략,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 지난해 I -코리아 4.0 ICT R&D 혁신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ICT융합 인더스트리4.0S 조선·해양과 P-HIS, 닥터앤서, 응급의료 등 디지털 헬스 영역을 발굴했다.

2014년 한·인도 SW 상생 협력센터를 시작으로 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IT지원센터센터, 베트남 하노이 IT지원센터, 베트남 호찌민 IT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과 ICT 규제 샌드박스 법령 개정 지원에도 일조했다.

NIPA는 조선해양, 디지털 헬스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ICT·SW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육성한다. 1073억원 규모 ICT 산업 생산액이 2009년 340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497조 3,000억 원, SW산업 생산액이 30조 6,000억 원에서 55조 6,000억 원으로 성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10년은 AI와 관련 산업 육성

향후 10년은 NIPA가 산업혁신 전문기관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AI 산업 자체 성장과 AI가 기존 산업과 융합돼 경쟁력을 혁신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조선, 스마트제조, 디지털 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산업 육성에 나선다.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AI 연관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1,750억 달러에서 올해 1조 9,010억 달러, 내년 2조 6,490억 달러 등으로 매년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에는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연관시장은 올해 70억 달러에서 2026년 140배 성장할 것으로 정보 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예측했다. NIPA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소통은 매달 CEO 포럼에서

올해 4월부터 AI, 5G, 블록체인 등 주요 분야별 ICT 기업 최고 경영자(CEO)와 매달 2~3회 소통한다. 정보교류,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발굴을 위해 ICT CEO 포럼을 마련했다. 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시장 변화·문제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ICT CEO 포럼을 마련했다. ICT CEO 포럼을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현장방문, 간담회, 협의체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기 내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5G와 AI를 기회로 ICT·SW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NIPA는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 혁신 융합서비스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이다. 2026년 5G 연관 융합 서비스 시장 규모는 실감콘텐츠 156조 원, 디지털 헬스케어 110조 원, 스마트공장187조 원, 자율주행차 84조 원, 스마트시티 155조 원 등 69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기업이 적기에 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위기는 신성장동력으로 해결

재료, 소재, 부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I 반도체, 지능형 공장, 기업용 솔루션 등 우리 경제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 제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제2반도체·스마트폰 신화’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력산업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 헬스,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 전폭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선도국가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기업 가속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에 전략적 AI 적용, AI 집적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VR·AR 콘텐츠, 4차 산업혁명 핵심 SW·ICT와 타산업 융합,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중점 실시한다.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혁신을 리딩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으로 혁신적 ICT융합 신산업과 신서비스 확산 생태계를 마련한다. 국내 ICT·SW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에 머물지 않고 베트남 등 신흥방, 러시아 등 신평방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인재양성은 오픈소스 전문가 중심으로

AI관련 SW 기술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다. AI 오픈소스 활용 이력 10만 명을 5년 내에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간에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AI와 SW구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 혁신을 리딩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개발자 확보가 시급하다.

디지털 헬스와 조선해양이 SW융합 대표 사례

디지털 헬스 성과는 P-HIS, 닥터앤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이다. P-HI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38개 모듈을 지난해 말 개발 완료했다. 서울 안암 고대의료원에 시범 적용 중이다. 닥터 앤서는 8대질환 21개 SW 중 3대 질환 8개 SW 개발을 완료해 올해 7월부터 전국 11개 병원에서 질환별 임상을 실시 중이다.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은 심혈관 질환, 중증외상 등 4대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한다. 향후 P-HIS, 닥터앤서, 응급의료 등 3개 과제를 연계해 국내 병원 확산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조선해양에서는 지능형 설계 검증자재 추적 모니터링 등 연구개발 24건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ICT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 설계 시간 절감, 입고지연 손실 절감, 야드사용률 증가 등에 기여한다. 2021년부터는 AI를 활용한 사업을 기획해 조선해양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해 상호 발전

충북 진천으로 본원을 이전한 지 4년 됐다.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힘쓰고 있다.

ICT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해 지역 내 초·중·고교생 대상 SW 코딩, 드론, 로봇, 가상

현실(VR), 3D프린팅 등 ICT·SW 신기술 체험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지역사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 발전을 위해 충북사회혁신플랫폼, 혁신도시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IPA설립 10주년 행사도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김창용 NIPA 원장은 1959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서대전고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컴퓨터 비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했다. 2010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퓨처IT연구소장, 2012년 삼성전자 DMC(Digital Media & Communication)연구소장, 2014년 삼성전자 CTO위원회 운영책임자 등을 지냈다.

32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그룹 최고 기술인에 주는 삼성 펠로우에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다섯 번 수상했다.

2011년 미국 IS&T 학회(The Society for Imaging Science and Technology)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3D융합산업협회장, BEMS(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협회회장등을 지내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2018년 10월부터 NIPA 원장으로 취임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AI기반 산업혁신전문기관 NIPA를 목표로 한다.



“AI, 5G와 융합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할 것”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한국의 정보통신산업(ICT)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육성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창용 원장은 30년간 ICT 업계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지난 1987년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해 2011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사장을 거쳐 삼성전자 DMC(Digital Media & Communication) 연구소장을 지냈다. 민간 기업 출신이 NIPA 원장에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NIPA를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ICT와 SW 산업에 대한 기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지금, 김 원장은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주도하며 NIPA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취임 1년
“기술격차 줄이고
경쟁력 확보”

Q. 곧 취임 1주년이다. 그동안의 성과는.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은 인공지능(AI)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신 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해 AI 가속성장 생태계 조성한 점이다. NIPA는 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단번에 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지원, 즉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현재는 2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800개 기업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AI 기업들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용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해 수요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뱅크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에 AI응용산업 전문가 600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4,061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인 광주AI집적단지를 기획했다.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 산업이 AI와 융합돼 약 2만 7,500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AI 벤처기업 1,000개가 육성되며 전문인력도 5,000명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5G 실감콘텐츠 확보를 위한 올해 추경예산 198억 원도 확보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NIPA 전 직원의 의지와 노력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Q.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안다.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비록 기술 자체가 뒤쳐져 있다 해도 산업의 관건은 '응용'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기술격차가 사물인터넷(IoT)은 1.2년, AI와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스마트시티의 경우는 2년, 블록체인은 2.3년 정도 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 VR·AR, 5G(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스마트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등이 그 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조선·5G 등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와 신기술을 융합해야 한다. 또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경쟁력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Q. NIPA가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다양한 산업과 생활에 융합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분야를 오는 2026년까지 1,161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에 NIPA는 5G 실감콘텐츠 조기 상용화 성공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실증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적인 킬러콘텐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가 5G와 VR과 e커머스를 결합해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e커머스와 VR이 결합하면 동대문에 직접 가지 않고도 VR로 보고, 선택하고, 입어보는 체험을 실제 상황처럼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AI 점원이 소비자에게 꼭 맞는 옷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내년부터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몇 년 내로 정교해질 것이다. 쇼핑뿐만이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모든 곳에 응용이 가능하다. VR로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한류도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될 것이다. 이처럼 5G가 일상에 파고들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Q. 신사업 규제 혁신 실행기관으로서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1건의 과제가 처리됐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거침없이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혁신성장 생태계에 꼭 필요한 제도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샌드

박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는 기업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기업도 많은 듯하다. 그래서 NIPA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 기업들을 찾아 샌드박스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일대일 상시 대면 상담’도 운영 중이다. 이에 1월 이후 ‘임시허가’의 경우 11건이 처리됐다. KT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한 것이 대표 사례다.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허용한 ‘실증특례’는 14건이 통과됐다. 대표적인 예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다.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면서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립이 첨예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는 7월 실증특례를 받았다. 신속처리는 36건이 처리됐다.

Q. SW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현지에 있는 사업 파트너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45% 비율로 가장 많다. SW 솔루션이나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의 기술은 사실 반제품과 다름이 없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편하게 선호하는 유저인터페이스(UI)가 있기 마련이다. 즉 단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지 맞춤형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직접 현지에 지점 만들어 사람을 뽑고 시스템화해서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실상 현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본도 없고 투자도 부족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현지

목소리에 따르면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고 자리 잡는 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NIPA는 5년을 단 몇 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전문 파트너와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에 NIPA의 해외 지사가 있는데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를 해서 기업 간 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 인력들이 전략 분야 시장현황과 정책 특화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지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대학 협력을 통한 현지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ICT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가치사슬의 전단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이 신남방과 신북방 등 전략지역으로의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Q. 앞으로 역점 두고자 하는 경영 최우선 가치는.

“국가 전 기관 중에서 NIPA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NIPA는 미래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 주력산업이 흔들리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가능 여부는 NIPA의 역할에 달렸다고 본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창의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직접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든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접목시켜야”

“인공지능(AI)을 전 산업에 도입하는 ‘AI+X(산업지능화)’가 답입니다.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AI가 전 산업을 바꾸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와 AI를 산업 곳곳에 확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형 AI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대한민국 디지털 1세대다. 1987년 삼성전자자의 브레인 조직인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한 이래 30여 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했다. 입사하자마자 디지털 프린터 개발과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센서 개발을 담당했다. 또 김 원장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사장과 삼성전자 DMC연구소 소장을 역임할 당시 연구원에서는 각종 로봇 제품군과 5G 제품군, 폴더 제품군을 테스트했다. 그만큼 30여 년간 대한민국 기술의 최전선에 몸담았던 셈이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공항서 실증
ICT로 조선해양 물류 최적화
VR·AR 인프라 구축도 박차

‘삼성브레인’ 종합기술원 출신
30년간 디지털 혁신 주도
공공기관 CEO 새 도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확대”

이러한 그가 4차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NIPA를 이끌게 된 것은 작년 10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NIPA 본사(현재 대한전기협회 빌딩)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현황과 그가 그리고 있는 구상을 들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1년간 4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 기업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르다”면서 “기업은 자기 내부에서 성장동력을 찾지만, 우리는 국가가 필요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늘리는 데 앞장섰다. 대외적으로 왜 4차 산업 진흥이 필요한지 알리는 동시에 NIPA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지 깊이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필요한 기업에 생태계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도 우리의 성장동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수입은 2018년 3,372억 원에서 2019년 3,580억 원으로 늘었다. 확보한 예산은 AI, 5G 등 각종 4차 산업 진흥에 투입됐다.

대표 분야 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와 AI 식별 추적 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안면인식·이상행동 패턴 인식 등 중국이 앞장서 있는 분야를 확대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해 수집이 어렵다. 김 원장은 “안면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이 공항”이라면서 “개인들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 법무부·과기정통부와 협력으로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NIPA는 공항 내 8개 빅데이터·AI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8개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공항 내 얼굴인식 이상징후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아직은 머신러닝 연구 단계로 데이터 반출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김 원장은 “2020년에는 실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갖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통상 안면인식 AI 기술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외부 반출 없이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들 AI 기업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안면인식 시간이 10초 반으로 단축됐다”면서 “이를 더욱 고도화하면 공항을 출입하는 국민이 현재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입출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IPA는 조선해양 산업에 정보통신기술(CT)을 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표 분야가 물류 조달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ICT를 활용해 조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ICT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은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조선 기업들과 연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조선 산업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물류 주수가 늘면서 1위를 회복하지 않았느냐”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ICT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ICT 건조, AI 운항 등으로 확대해 조선 산업이 절대강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이다. 현재 김 원장은 AR제작센터를 7개소에서 10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그는 “VR·AR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특히 5G 도입으로 생태계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G 시대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여 배 빠른 5G 시대에는 VR를 활용한 쇼핑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또 교육과 국방,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등 전 분야에 걸쳐 VR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동대문 쇼핑몰을 가지 않더라도 VR를 통해 현지에서 가상 동대문에 접속해 쇼핑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며 “또 K팝

아이돌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NIPA는 VR 콘텐츠 제작에는 값비싼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한 만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원장은 인공지능 연관 산업인 ‘AI+X’를 육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전 산업에 걸친 파급효과가 1.5배 이상 클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원장은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를 얼마나 빨리 다른 산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AI+X’ 산업을 육성하려면 4~5년 내에 3만 명에 달하는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방형 구조(아키텍처)로 분산된 처리 성능을 보이는 에지컴퓨팅 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자율주행차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면서도 “하지만 5G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 자율주행차 내에 있는 컴퓨터 용량을 줄이고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율주행차 설계에도 일대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He is...

- 1959년생
- 한국항공대 항공기계공학
- 카이스트 기계공학 석사·박사
- 1987년 삼성종합기술원 입사
- 2010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퓨처IT연구소장
- 2011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사장
- 2012년 삼성전자 DMC연구소장
- 2013년 대한전자공학회 -산업체 부회장
- 2018년10월~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디지털 동대문 프로젝트로 실감콘텐츠 꽃 피웁니다”

32년 ‘삼성맨’이 국가 ICT 산업 육성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처음엔 몸에 잘 맞을지 걱정이 앞섰다. 1년 2개월이 지났다. 기우였다. 마치 어제 맞춘 옷을 입은 것처럼 잘 어울린다. 2018년 10월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처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수장을 맡은 김창용 NIPA 원장 얘기다. 실감콘텐츠 시장을 꽃 피우기 위해 그가 나섰다.

김 원장은 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대한전기협회 빌딩(옛 NIPA 사옥)에서 IT조선과 만났다. 그는 5G 실감콘텐츠 육성과 시장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딱 맞는 옷 얘기를 꺼냈다. 동대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옷이 실제로 몸에 맞는지 가상 현실(VR)로 입어보고 결제까지 하는 서비스가 나온단다. NIPA가 추진하는 ‘디지털 동대문 프로젝트(DDP)’의 서막이 2020년 오른다.

그는 “4G 대중화로 e커머스가 성장한 것처럼, 5G가 대중화하면 실감형 커머스 시대가 온다”며 “디지털 동대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감콘텐츠 실무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32년 ‘삼성맨’,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 필요성 깨닫다

김 원장은 30년 넘게 대한민국 기술의 최전선에 몸담았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카이스트에서 기계·컴퓨터해석으로 석사학위를, 제어·컴퓨터비전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87년 입사한 삼성전자에서는 종합기술원 퓨처 IT 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DMC연구소 소장(부사장), 삼성전자 CTO 위원회 운영책임자를 역임했다. 2006년 그룹 최고 기술인력에게 주는 ‘삼성 펠로우’에 선정되며 기술리더 역할을 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기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과 NIPA에서 국가 4차산업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하지만 NIPA에서는 국민, 국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기업은 상황에 맞춰 과제를 변경한다. 반면 공공기관인 NIPA는 1년 단위로 약속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가 삼성전자와 공직에서 업무를 하며 느낀 차이점이다. 김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소회와 성과를 묻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5G, VR·AR 등 신기술을 강점산업(스마트제조, 스마트조선)과 미래유망산업(디지털헬스, 미래자동차 등)

에 융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AI 가속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시를 미래유망 산업에 실제 적용하는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5G-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커머스로 실감콘텐츠 시장 연다

NIPA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019년 5G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및 협회 역할이 겹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할 조정도 마쳤다. 5G 실감콘텐츠 추경예산(198억 원)도 확보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다.

하지만 실감콘텐츠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와 달리 시장 개화가 늦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VR·AR 시장은 글로벌 대비 성장이 특히 더디다. 시장조사업체 디지캐피털이 2018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실감미디어 시장은 117조2,000억 원 규모지만 한국은 5조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5G 콘텐츠가 청소년 대상 VR·AR 체험과 고화질 영상 위주로 제작되면서 국민이 5G 효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쇼핑, 교육, 여행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실감 기술을 융합해 5G 최적화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면 실감콘텐츠 초기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2020년 실증에 들어가는 디지털 동대문 프로젝트는 실감콘텐츠 시장 개화와 함께 5~10년 뒤 실감형 커머스 시대를 준비하는 NIPA의 대표 사업이다. 상인이나 개인 고객이 동대문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VR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 확보는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콘텐츠 제작, 전자 결제, 배송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NIPA와 기업의 합이 필수다.

김 원장은 “실감콘텐츠 시장이 개화 못하고 주춤하는 이유는 실생활에 쓰이는 콘텐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다”라며 “실생활 비중이 높은 쇼핑, 교육 등 분야에 VR·AR을 적용한 실감콘텐츠 킬러서비스를 관련기업과 함께 발굴하면 시장이 빨리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감콘텐츠 인재 150명 늘리고 인프라 확대하고

실감콘텐츠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초저지연·초고화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와 인프라 구축을 요한다. 이통 3사는 최근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 필연적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NIPA는 여기에 맞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NIPA는 2019년에 실감콘텐츠 제작기술과 창작 역량 기반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총 45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0년에는 5G, VR·AR·MR 등을 적용해 제조, 국방,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도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력 600명을 양성한다. 해외에서 신기술을 들여와 국내에서 적용하도록 연계하는 교육도 계획했다.

중소기업이 고품질 5G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서울 상암 한국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볼륨메트릭 캡처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2020년 운영 예정이다. 같은 해 5G 콘텐츠 테스트 베드인 ‘5G 실감콘텐츠 오픈랩(판교 ICT 문화융합센터)’도 연다.

김 원장은 “5G 실감콘텐츠는 제작과정과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까지 LTE와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다”며 “인력과 장비도 맞춤형으로 각각 육성·구축해야 경쟁력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장려한다. 경쟁력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유통·디바이스 제조기업 등이 손잡고 글로벌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미국(실리콘밸리), 베트남(하노이·호치민), 싱가포르, 인도 등 NIPA 해외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실감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NIPA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기관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가 존재하거나 관련 법령이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제도다. 장소 제한 등 조건이 붙어 승인을 받더라도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다. 김 원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허가 범위가 차츰 넓어지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그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 원장은 “VR·AR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군인 만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NIPA는 산업육성을 위한 신사업과 대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실감콘텐츠, AI, 5G가 융합한 산업 구조를 이끌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취임 후 1년 2개월은 ICT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2년 남짓한 임기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후임자가 와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PA, “3D프린팅 놓치면韓제조업 위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3D프린팅을 외면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3D프린팅 산업지원을 담당하는 범원택 디지털제조혁신팀장은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3D 프린팅 기술고도화와 산업 각 분야에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다양한 분야에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Q. 한국이 3D프린팅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다. 먹거리이자 일자리도 달려있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하고 끌어올리는 게 3D프린팅의 핵심이다. 특히 고부가산업인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발전플랜트 분야는 기존 공정이 한계에 부딪혀 혁신을 위해서는 3D 프린팅을 통한 혁신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GE, 지멘스 등 기업들은 이제 항공기 엔진과 가스터빈을 금속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메탈 파우더 입자를 하나씩 접착 물질로 녹여 붙여 물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대량으로

범원택 NIPA 팀장
“기술고도화와 산업분야 적용 서둘러야”

부품을 생산한다면 여전히 주조나 사출이 효율적이지만 소량의 정밀복합 제품은 3D프린터가 더 적합하다.

Q. 3D프린팅이 7~8년 전 각광을 받았지만 이후 시들했다. 왜 그런 것인가.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 연설에서 3D프린터가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자 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폭증했다. 모두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3D프린팅은 플라스틱 소재에 머물렀고 목업이나 시제품을 만드는, 취미활동에 쓰는 정도에 그쳤다. 정밀도나 소재의 강도 등에서 산업용으로는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3~4년 전께 대형 정밀금속프린터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증사례가 나타나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Q. 최근 국내 기업들 관심은 어떤가

정부가 2017년 1차 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공공시범사업이나 교육용 정도에 그쳤다. 올해 2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직접 산업현장에 적용하고자 실증사업과 성공모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사업을 공고하자 기업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제조혁신 실증 지원사업에 3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공개하긴 어렵지만 유명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사업계획과 기대효과를 감안해 방산과 우주, 자동차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물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적용에 나선다. 삼성과 LG, 현대차 같은 제조업체는 물론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Q. 3D프린팅 보급 확대를 위한 관건은 무엇인가.

공정개발을 위한 기술, 설계가 중요하다. 프린터와 재료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사다 쓰면 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않다. 3D프린팅은 부품이나 모듈을 통으로 적층제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조나 사출같은 기존 제조 설계 공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금속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강한 열로 용융하느냐에 따라 산출물의 파라메타(출력값) 즉 물성, 강도가 달라진다. 기존에 컴퓨터수치제어(CNC) 기기로 금속을 깎아내는 방식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반면, 3D프린팅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산출물을 만들려면 별도로 설계해야 하며 원하는 물성에 도달하기 위한 노하우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함수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SW)가 중요하다. 아직 이 분야는 걸음마 단계인데 해외업체들도 투자를 많이 한다. 최근 3D프린팅 업체들이 이같은 제조 노하우와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AI·SW 인재육성 초점… 반도체급 산업 3~4개 키워야”



“팬데믹 충격으로 더 빨라진 디지털 전환 흐름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5~10년 후 나라를 먹여살릴 반도체만한 규모의 산업 3~4개를 키워내야 한다.”

김창웅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늘어난 ICT, SW(소프트웨어), AI(인공지능) 관련 국가 사업과 예산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게 숙제”라면서 “후보가 될 만한 제조·에너지·헬스케어 등 10개 영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반도체급’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의료·안전보안·에너지·물류유통·금융 등 6대 전략산업과, AI반도체·

로봇·드론·지능형 아바타 등 4개 신산업이 타겟 분야다. 김 원장은 이 목표에 맞춰 기관의 사업구조를 조정했다.

산업의 변화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ICT·SW·AI 전문인력뿐 아니라 산업 전문성과 디지털 활용능력을 함께 갖춘 AI·SW 융합인재를 키우는 게 지향점이다.

김 원장은 “2025년까지 3만 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운 ICT 이노베이션 스쿼드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배출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10년 내에 100만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담=안경애 ICT과학부 부장

◇“매년 200개 이상 AI 산업융합 사례 만들 것”=NIPA의 올해 예산은 7,969억 원으로, 3년 전 약 3,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중 디지털 뉴딜 예산이 3,141억 원에 달한다. AI반도체, 닥터앤서 2.0, XR(혼합현실) 플래그십 등 정부 역점사업이 포함됐다.

김 원장은 “중요한 사업들이 시작되는 시기다. 기관 차원에서는 코로나19가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몇 년 걸릴 일을 1~2년 내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빨리 사업을 시작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월에 선정을 끝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늘어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부 투자가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꿨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규모 사업을 만들고 중요한 산업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AI+X, AI 바우처, 클라우드,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주요 사업들이 제조·의료·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배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 이상의 AI 산업융합 사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수요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전문기업 키운다=디지털 뉴딜을 통해 AI·SW·XR 등 혁신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 수요가 있는 ‘될 만한 영역’에 제대로 투자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소신이다. AI 바우처, 닥터앤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다.

특히 올해 2.0 사업을 시작한 닥터앤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닥터앤서에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488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아산병원 등 26개 의료기관과 22개 ICT 기업이 참여해 유방암·대장암·치매·소아희귀질환 등 8대 질환진단·치료용 21개 AI SW를 개발했다.

◇‘닥터앤서2.0’ 통해 의료 AI 개척=참여자들은 평균 5년 걸리던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15분, 4~6시간 걸리던 치매 진단은 1분 이내로 줄이고, 정확도가 74~81% 수준이던 대장암 판독 정확도는 92%로 높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김 원장은 “소아희귀질환의 경우 보통 진단에만 5년이 걸리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5분 만에 진단이 되는 것은 혁신적이다.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열정적인 이들의 노력 덕분에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나왔다”면서 “그들의 노력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보험수가 적용, 의료기기 등록 등으로 연계하고, 2.0을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와 글로벌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AI 연관산업에서 성장 기회 만든다=닥터앤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를 잘 지원할 것인지, 연관된 법·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진전을 이뤄냈다는 김 원장은 “AI 융합혁신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늘 강조하는 것은 AI 연관산업

의 중요성이다. 순수 AI 산업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제조·의료·에너지 등에 AI가 접목되면 매우 큰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해안경비 시스템만 해도 병사들이 눈으로 하면 20분만 지나도 집중도가 반으로 떨어지지만 AI를 이용하면 한계가 없어진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해안에 적용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건물, 산업단지 등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AI를 이용한 인식·분석·보안은 엄청나게 응용 분야가 큰 산업”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제조 분야도 AI로 혁신=에너지와 제조 분야도 AI 적용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AI+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산업단지에 AI를 융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019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는 약 1,200개에 달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중 10%만 줄여도 연 3조 8,000억 원이 절감된다. 당진 화력발전소 7기에 해당하는 양”이라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현대차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전력소비 효율화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AI 솔루션 기업을 키우면 글로벌에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NIPA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산단에서 생산량, 전류, 유효전력 등 데이터를 모아 실증장에서 학습시킨 후 에너지 효율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증해 국가산단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조 분야에 AI를 도입해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실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실증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올해 12개 공장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인데 임팩트 있는 결과가 기대된다. 제조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그들이 제조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군 의료에 AI 적용=닥터앤서에서 확인된 헬스케어 혁신사례를 확장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응급의료에 5G를 적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에 가장 잘 맞는 병원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세브란스병원 등에 적용했다.

군 의료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군 내 다빈도 질환이 기흉·결핵·골절·폐질환 등인데 환자가 많다 보니 민간보다 쌓인 데이터가 훨씬 많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적용해 질병을 더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실증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작년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군 병원과 격오지 부대에 적용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민간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바우처 통해 기업과 기업 잇는다=AI, 클라우드 분야에서 기술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고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참여 열기가 뜨겁다. AI 바우처의 경우 200개 기업 모집에

1,000곳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유통·제조·의료분야 수요가 특히 많았다.

김 원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 후 주제를 정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과가 크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지원해서 각 분야에서 혁신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증도 의미가 있지만 바우처는 기술기업과 수요기업이 머리를 맞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중요한 혁신 포인트를 찾아내고 산업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생태계를 키워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있고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는 수요기업들을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대·중·소 클라우드 시너지 생태계 지원=제조·물류·의료 등 전략 분야에서 클라우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서비스 기업과 플랫폼 기업, 인프라 기업을 묶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클라우드는 중요한 분야지만 국내 기업들이 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80~90%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특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조·에너지·물류·헬스케어 등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AI를 접목해 서비스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 과제나 R&D 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XR·AI 반도체도 키운다=XR도 김 원장이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영역이다. NIPA는 2019년부터 제조·의료·교육·국방 등에 XR을 적용하는 XR 플래그십 사업을 준비해 지원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제조·의료·교육·훈련 등이 XR의 혁신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과거 ‘세컨드 라이프’가 나와 주목받다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지금은 훨씬 큰 물결이다. 또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들은 2024년 글로벌 XR 시장이 1,3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메타버스에 올라타면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연관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핵심 산업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XR 융합 분야에서 작년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했고, 올해 4개 분야를 추가해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키워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이다.

김 원장은 “국가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인프라, 제작툴, 컴퓨팅파워 등에 투자해서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즉시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미래 산업과 기업이 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김 원장은 “향후 5년 내에 5만 명에 달하는 AI SW인력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AI반도체 등 다른 영역까지 넓히면 필요한 인력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10년 내에 AI 개발자가 100만 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인력의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소신이다.

“디지털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인력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AI에 대한 심화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개발자와 AI와 산업을 모두 아는 AI 산업인력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는 김 원장은 “기존 SW 인력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가 AI 개발자로 전환하고, 수학이나 공학 배경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AI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IPA는 서울 마포와 전국 권역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세우고 AI·SW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까지 3만 명을 양성하는 게 당초 목표였는데,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규모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10년 내에 100만 명은 키워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소신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을 연결해주는 바우처 방식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국가의 역할은 혁신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철학이다. 글로벌 시장전망기관들은 2030년 AI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13조 달러에 이르고, 글로벌 GDP(국내총생산)가 평균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IT 기술이 촉발시킨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생산성 향상 효과가 0.6%였다면 AI는 1.4%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있는 기존 산업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AI 연관산업에서 혁신 포인트를 찾고 빨리 적용해 남들보다 앞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혁신 인에이블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PART 09.

방송



충북혁신도시 가족초청 ICT 체험 축제



충북혁신도시의 국책기관들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재능기부를 통해 첫 번째 ICT 체험 축제를 열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볼을 드리블하는 코딩로봇을 타블릿으로 조정하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결정적인 찬스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자살골을 넣어라! 골 넣을 수 있는 기회야!”

공중으로 날아오른 드론이 장애물을 통과하자,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항공촬영을 위해 잔디밭에 누운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습니다.

《장수정》

음성군 맹동면

“너무 볼게 많구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좋아요. 애가 어려도 할 수 있는게 많아서 좋아요.”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한 ‘ICT 체험 축제’입니다.
가족 단위로 5백여 명을 초청해,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들이 만든 재능기부 행사입니다.

《이종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나눔미봉사단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ICT관련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보람찼고, 뿌듯했습니다.”

ICT기술로 가족간의 추억을 만드는 게 이번 축제의 취집입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ICT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첨단교육시설을 갖춘 ‘ICT무한상상실’을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 문턱 높은 국책기관, ‘축제’로 소통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국책기관 #ICT #로봇 #드론 #축제



국책기관의 따뜻한 온정 나눔 지역상생 ‘김장 나눔’

엄동설한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김장 김치를 마련하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국책기관들이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새빨간 김치속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담근 김치포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신혜》

한국소비자원 홍보팀원

“평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서툴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올해로 2년째입니다. 임직원들이 한뼘 두뼘 모은 자선기금으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 지역상생의 의미도 보탬했습니다.

《이세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프린팅 산업팀원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보람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의 소망이 담긴 1004 (천사)포기의 김치는 충청북도 광역자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겨우내 김치가 필요한 15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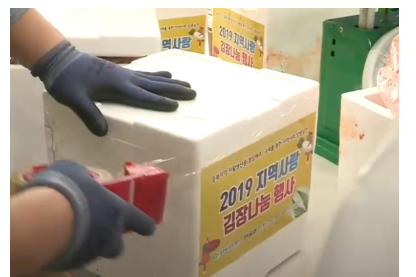
《박재국》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장

“남보다 덜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비자원은 연말까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책기관의 지역상생 ‘김장 나눔’ *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도기사자료집

발행처



발행일

2021.06

홈페이지

<http://www.nipa.kr>

편집·디자인

(주)커뮤니케이션우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도기사자료집

NIPA PRESS KIT